금주의 법구-〈정법염처경〉
게을러 헛되이 살면
미래 세상에도 또한 헛되어
열반을 얻지 못한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1월 5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33호 2017년 2월 1일 수요일

도심 선방서 방부드는 '수행포교시대' 열린다

체계적 참선교육 프로그램 도입 사찰 확대

#서울 종로구 소재 여행사서 근무하는 김○○ 씨(33)는 최근 참선수행을 시작했다. 3년 가까이 일하면서 접한 고객들의 수많은 항의에 '번 아웃(Burn out) 증후군'을 겪어서다. 그런데 조계사 참선입문 저녁반에 등록해 간화선을 공부하면서 점차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평상시에도 화두를 놓지 않으려 노력하다보니 자신을 괴롭힌 문제들이 정작 삶에서 중요치 않다는 걸 느껴서다.

#가정주부 송○○ 씨(58)는 사찰 일요법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열혈신도다. 하지만 바쁜 직장생활 탓에 좀체 수행을 하지 못했다. 그런 송 씨는 지난해 직장을 그만두자마자 불광사의 4개월 과정 참선반을 신청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참선을 시작한 그는 나날이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양육을 위해 아등바등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면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

각박한 삶에서 느끼는 현대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도심사찰들이 마련한 참선 프로그램이 인기다. 오래 전 재가불자들을 위해 개방된 시민선방은 스승의 지도가 잘 이뤄지지 않아 종종 문을 닫는 사례로 이어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비롯해 실참 · 질의응답 등의 기회가 제공되면서 대형 도심사찰 참선 프로그램에 불자들이 몰리고 있다. 게다가 원활한 수행환경 조성을 위한 인원 제한까지 있어 신청이 늦으면 대기자로 빠질 정도다.

도심사찰 수행은 산중에 비해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까지도 계속되는 '힐링 열풍'과 불자의 덕목 중 하나인 '수행'과도 직결돼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인 참여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의 경우 대형사찰을 중심으로 참선 · 명상반 등이 꾸준히 열린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 선림원은 참선입문반 · 자율선원 · 야간선원 등을 마련해 수행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한 회 2달간 진행되는 참선입문반은 20기를 앞두고 있을 정도로 호응이 높다. 간화선 수행이론과 실참을 2년 4학기 심화과정으로 배우는 선림원도 열려 수행에 매진하고 싶은 불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있다.

봉은사 봉은선원도 매일 2시간씩 참선지도가 진행되며 주2회 수행면담이 이뤄진다. 전산에 입방기록이 남고, 안거를 성만한 불자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된다. 입방을 위해선 지도법사 스님과 인터뷰해야 하는데 평소 8~90명, 안거 때 120여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국제선센터 · 불광사 · 화계사 · 참불선원 등 많은 사찰서 참선과정을 마련해 불자들의 수행을 독려하고 있다. 부산서도 범어사 · 홍법사 · 미타선원 · 해운정사 시민선원 등 곳곳에서 참선수행과정이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명상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가, 남방불교 수행단체들의 국내 진출로 인한 수행문화 확산 등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불자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전문 불교교육을 받으며 수행 관심이 늘어난 것도 주 요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불교계가 수행포교시대를 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불자들의 자기성장에 이은 '회향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수행이 자기만족에 그친다면 정작 포교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복덕과 지혜를 갖춘 스님들이 지도하며 불자들의 수행공덕을 회향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때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도록 문화와 결합한 수행을 할 수 있게 불교계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수행포교시대에 맞춰 불교수행이 이웃종교와는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설명해 현대인들의 이해를 도와야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확립된다"고 덧붙였다.

불자들의 집중수행을 지도하는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은 명상의 상업적 이용을 경계했다. 스님은 "명상과 참선수행은 불자들 삶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내 바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수행 붐(boom)이 일어나 상업적으로 이용된다면 불교 본질서 멀어지는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교계가 먼저 수행을 올바르게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견해처럼 수행문화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자 참선반을 운영하는 사찰들은 신청 인원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적게는 30명에서 많게는 50명으로 사찰이 보유한 공간에 맞춰 적정 인원을 책정한다. 또 지도법사가 심화과정 및 시민선방 신청자들을 직접 인터뷰해 적절한 수행력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입방하도록 하면서, 함께 수행하는 도반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한다. 이 같은 사례는 탈종교 현상이 심각한 현대사회서 불교가 직면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편으로도 평가받는다.

부산 미타선원 주지 종호 스님은 "불자들을 지도하기 위해선 선승이 늘어나야 하고, 결국 선풍 가득한 사찰이 시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게 마련"이라며 "수행으로 쌓은 공덕이 자연스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 세상을 맑히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참선반 및 시민선원 운영 도심사찰

지역	사찰	내용	연락처
서울	조계사	참선입문(11강) · 선림원(2년) · 자율선원 · 야간선원	(02)768-8525
	봉은사	봉은선원(수행점검 月, 수행면담 火 · 木)	(02)3218-4800
	화계사	참선입문(2개월) · 시민선방(심화과정)	(02)902-2663
	국제선센터	참선입문(10주) · 금차선원(회원제)	(02)2650-2200
	불광사	참선입문(4개월) · 간화선 심화(16주) · 불광선원	(02)417-2551
부산	미타선원	시민선방(연중무휴) · 안거기간 참선반	(051)253-8687
	홍법사	무위선원(月~金)	(051)508-0345
	대광명사	참선교실(火 · 金) · 야간참선 수행반	(051)742-7610
	고심정사	겁외선원(月~土)	(051)464-0068

명상 붐 · 학력 상승 원인
지속된 힐링문화 영향도
입문 · 심화 · 야간 과정 多
新 포교대안 기대효과 높아

수행공덕 회향 모색 필요
상업적 이용도 경계해야



"장애 · 빈곤 없는 세상되도록"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철폐를 주장하며 광화문역에서 1600일 넘게 농성을 펼치고 있는 장애등급제 · 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1월 24일 농성 1616일째 되던 날, 종교계서는 처음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방문했다. 자승 스님은 휠체어에 앉은 박경석 장애등급제 · 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대표의 손을 꼭 붙잡으며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위해 종단이 힘을 모을 것"이라며 "특히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간절한 뜻을 정치권에 잘 전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글, 사진= 박아름 기자**

고려양식 JSA법당 낙성 '눈앞'

군종교구 1월 25일 공개
현재 내부 불사만 남아
625관 평화의 종 세워져
순국선열 위패도 봉안 중



JSA 법당(오른쪽)과 '평화의 종' 종각(왼쪽).

남북 갈등 해소와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법당이 3월 31일 낙성을 앞두고 있다.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3월 31일 오후 2시 공동경비구역 안보견학 교육장 옆 JSA법당 불사 현장에서 낙성식을 개최한다"고 1월 25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군종교구가 국군불교총신도회와 국군예비역불자회와 함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JSA법당 신축불사 현황이 공개된 바 있다. 법당 낙성법회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불교 안팎의 주요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신축 법당 무량수전의 삼존불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부대와 협조하여 3월 31일 낙성법회를 봉행할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 군내면 JSA 안보견학 교육장 옆에 법당 82㎡, 종각 9㎡의 고려양식 목조건축물로 들어서는 JSA법당은 현재 외부 불사가 마무리된 상태다. JSA법당은 고려양식인 수덕사 대웅전과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을 참고 했으며 평화의 종각에는 625관에 달하는 평화의 종도 건립됐다.

불사 완료를 앞두고 당초 군종교구가 세운 예산 확보도 순탄히 진행돼 단청을 포함한 10억원의 예산 중 1월 16일 기준 9억4100만원이 모연된 상황이다. 먼저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이 1억원을 냈으며, 교구장 화주로 8900만원을 모연했다. 군종교구 기금 2억원에 군승 및 군사찰 모연으로 2억5000만원이 충당됐다.

군종교구는 JSA법당 내부에 한국전쟁 참전 16개국 및 순국선열 위패를 봉안하고 순국선열을 기리는 법회와 함께 다양한 평화기원 타종식 등 다양한 행사를 열 예정이다.

이준석 군종교구 포교팀장은 "JSA법당은 단순한 법당이 아닌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과 함께 불교의 호국정신도 알리는 교육의 장으로의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종교구는 지난해 7월 1일 강원도 인제지역 집중호우로 붕괴된 2사단 17연대 쌍호정사 불사를 진행한다.

군종교구 측은 "현 군예산만으로는 단기간 법당 재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노덕현 기자**

다음주는 20면 발행합니다.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한글/영어)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독송용)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설운 스님이 종회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종단 발전을 위한 양보를 당부하고 있다.

태고종 승려의무금 인상 추진

1월 23일 중앙종회서 결의… 부채해결 위해

태고종 중앙종회가 종단 부채 해결을 위해 승려의무금을 일괄 인상했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설운)는 1월 23일 서울 전통문화전승원에서 제127회 임시 중앙종회를 열고, 승려 의무금 인상 외 총무원 부원장과 교육부원장 선출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해임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재적의원 52명 중 35명의 종회의원이 참석한 이날 임시회에서 종회의장 설운 스님은 "전통종단의 위상을 재정립하며 미래지향적인 종단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보가 필요하다"며 "무의미한 논쟁을 중단하고 종단 발전을 위해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현재 태고종 승려의무금은 12만원이다. 이를 30만원으로 인상 시 총 승려수 3600명을 기준으로 매년 6억4000만원가량 추가 확보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상은 4년 한정 기간으로 2017년부터 실시된다.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으로 승려의무금 인상안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중앙종회는 총무원 부원장에 백운 스님, 교육부원장에 묵원 스님을 선출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혜일 스님의 해임 동의안도 통과시켰다. 또 고시위원장에 지홍 스님을, 중앙선관위 부위원장에 광진 스님을 선출했으며 원로의원에 동우 스님을 추천했다.

이와 함께 총무원 종무원 직제 개편을 담은 종법 개정안과 지방종무원장, 지방종회의장, 지방종회의원의 자격 기준을 하향시키는 지방종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돈관 스님, 은해사 주지후보 당선

1월 23일, 주지후보 선출 산중총회서 만장일치로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차기 주지후보에 現주지 돈관 스님<사진>이 당선됐다.

은해사는 1월 23일 경내 도선당서 차기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후보로 출마한 돈관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산중총회에는 구성원 92명 중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돈관 스님은 "문도스님과 대중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문중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화여고를 비롯한 교육불사와 사찰정비를 마무리하고, 가람수호에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은해사 주지후보 선출은 경선 후보였던 불산 스님의 후보직 사퇴에 따라 돈관 스님 단독후보로 변경돼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상황이었다. 총무원서 주지 임명장이 수여되면 돈관 스님은 은해사 주지 3선을 지내게 된다. 임기는 오는 3월 5일부터 4년간이다.



돈관 스님은 일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8년 10월 해인사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9년 3월 송광사서 구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하양포교당, 환성사 주지, 제14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으며, 2008년부터 은해사 주지를 맡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은퇴출가제도 대폭 수정… 2월중 공청회

권리 제한하되 승려 준하는 지위 부여
출가특위 수정안 논의, 수계는 갈마로

지난해 11월 조계종 중앙종회서 부결된 은퇴출가제도가 공청회 등을 거쳐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조계종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수암, 이하 출가특위)는 1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은퇴출가자 특별법 수정안을 논의한 뒤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회의서는 기존 은퇴출가자 특별법에 제기된 논란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수정안을 놓고 위원들 간 의견을 조율했다. 중앙종회에 처음 발의된 특별법은 출가자의 지위를 '은퇴 후 사찰에 거주하며 불법수행과 자비보살행을 수행하는 자'로 규정해 논란이 발생했다. 특히 삭발염의를 하지만 8계 및 보살계만을 수지하도록 해 스님과 차별을 두면서 '수행법사'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지난해 11월 중앙종회서 3독회 축조심의까지 실시했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은퇴출가 '수행법사' 논란에
구족계 수계 가능케 선회
별도 교육체계 필요성 공감
복지혜택 남용 예방 조항도

반면 출가특위 내부간담회 등을 거친 수정안은 은퇴출가자에게 '승려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했다. 은퇴출가자에 대한 개념을 승려로 해석한 것이다. 다만 악용될 소지가 있는 법계품수 · 선거권 및 피선거권 · 종무직 취임 등과 관련된 권리는 제한했다. 또한 늦은 나이에 출가해 승가의 복지혜택만 누릴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고자 은퇴출가자 정의에 '사회 각 분야서 15년 이상 활동한 자'라는 단서를 달아 개인 복지를 어느 정도 스스로 해결하게 했다.

법안 수정에 많은 부분을 담당한 주경 스님은 "조계종단 승려가 되고 싶지만 나이제한으로 인해 타종단서 출가했다는 보도가 몇 번 있었다. 이에 우리 종단도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지난해 제출된 법안에서는 은퇴출가자 개념이 특수포교사 정도에 머물렀다"면서 "승려법과는 별도로 권한을 조금 제한하더라도 승려 대우는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수행정진 할 수 있는 길을 반듯한 모양으로 열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은퇴출가 절차는 3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행자로서 3년간 사찰서 공동생활을 한 뒤 세속의 인연을 모두 끊고, 출가독신자인 경우 갈마를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할 수 있다. 이때 출가독신자가 아닌 경우에도 행자 신분은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사미(니)로서 10년간 수행정진과 교화활동을 한 자에 한해 갈마를 하고 구족계를 수계한다. 또 은퇴출가자에게 승려법에 의한 기본교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 교육원이 별도의 교육체계를 수립하고 종령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출가특위는 3월 중앙종회 임시회에 앞서 은퇴출가자 특별법 수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2월 중 열기로 했다. 이후 최종적으로 성안해 중앙종회에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위원장 수암 스님은 "법계위원회 · 계단위원회 등 종단 어른들을 모셔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겠다. 특별법을 통해 선의의 불자들을 수용하고자 하는 핵심에 맞춰 접근하자"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신행혁신운동 추진본부 구성해 운영"

포교원장 지홍 스님, 1월 23일 신년회견서 밝혀
교육원 · 대중공사추진위 협력
3월 '신행혁신' 권역별 대중공사
수행 현대화, 전법사 과정 개설



"수행문화 정착을 위해 신도수행체계를 정립하고 생활 수행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신행혁신운동을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신행혁신추진본부를 구성해 운영해나갈 것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밝힌 신행혁신 운동을 이끌어갈 구심체가 공개됐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사진>은 1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대중공사 추진위, 기존 결사추진본부 관계자들과 3차례 실무회의를 가진 상황"이라며 "신행혁신운동을 위한 추진체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포교원이 중심이 되고 대중공사 추진위 등이 협력하는 추진본부를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구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포교원은 추진본부를 통해 3월부터 서울, 인천경기, 강원, 충청,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등 8개 권역별로 신형혁신 대중공사를 진행, 신행혁신운동 확산을 꾀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이와 함께 불교사회연구소와 공동으로 신도들의 신행현황을 조사하고, 신도수행학교(신행아카데미) 단기 프로그램을 개발,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지홍 스님은 "포교전법은 포교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스님과 사찰이 같이 하지 않으면 좋은 정책을 입안해도 실현 가능하지 않다"며 "특히 종단 내에서는 교육원과 함께 연구하고 종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전법신행지도자(가칭)' 과정의 신설을 통해 신행혁신 운동 주도층으로 양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지홍 스님은 "신도단체 임원연수 교육과 교육기관별 재교육 커리큘럼에도 신행혁신이 포함돼야 한다. 교육된 불자를 조직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스님은 기존 포교사 제도와의 차이점에 대해 "대중포교를 위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전법사의 개념이 강화된 것"이라며 "포교원이 자격증을 부여해 신행지도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어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홍 스님은 "기존 불자들은 기복에 편중돼왔고, 이런 문화가 현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신행혁신은 결국 한국불교 정통 수행인 지계, 간경, 염불, 참선, 보살행을 현대인들이 접근하기 편하도록 재구성하는 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며 "신행청규 제정과 함께 불자들이 생활 속에서 수행하고 봉사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가톨릭 학술교류 나선다

동국대, 2월 7일 안젤리쿰大와

불교와 가톨릭이 종교 간 대화와 학술 교류에 본격 나선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오는 2월 7일 오전 10시 정각원에서 교황청립 안젤리쿰대학과 자매결연식을 열고, 불교-가톨릭 간 대화 및 교류 협력 사업 등을 논의한다"고 1월 24일 밝혔다.

안젤리쿰대학은 1222년 도미니칸회 신부들이 건립한 교황청 종립대학으로 미래 가톨릭 지도자 양성 교육기관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등 세계 150여 명의 가톨릭 최고 지도자(추기경, 대주교, 주교)를 배출해왔으며, 토마스 아퀴나스 철학과 사상을 따르는 토미즘 중심대학 기능을 하고 있다.

자매결연식에는 총장 보광 스님을 비롯해 불교대학 교직원들이 참여하며, 안젤리쿰대학 측에서는 스테판 쥬릭 신학대학장 신부, 미켈 푸스 신부, 이재숙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자매결연식 이후에는 미켈 푸스 신부가 '불교와 가톨릭 간 교류사례 발표 및 양교 간 교류방안 제의'를 주제로 특강도 개최한다.

한편 안젤리쿰대학 방문단은 2월 8~9일까지 해인총림 해인사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 2017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옥천범음대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를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불교의식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졸업자에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으로 지정

신입 및 수료 과정					
모 집		교수내용	요일	시 간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 I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월	오후 1시 ~ 7시	30
2학년	상주권공 II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수	오후 1시 ~ 7시	편입생 약간명
3학년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 1시 ~ 7시	편입생 약간명
4학년	영 산	영산과정	금	오후 1시 ~ 7시	편입생 약간명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행위전승학습	화	오후 1시 ~ 4시	*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

■ 응시자격

❶ **입학과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❷ **편입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❸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 1부,
주민등록등본 ····· 1부,
반명함판 사진 ·····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 1부(해당자)

❹ **전형일정** : **2017년 1월 16일 ~ 2월 17일**

❺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❻ **특 전** :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 부여하고, 국내외 공연 시 우선 선발

❼ **입학문의** : 전화 (02)392-3234 / 팩스 (02)392-3239
03721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탈종교화 "대중 욕구 충족 못한 기성종교 탓"

1월 25일 '탈종교화 대응' 3대종교 특별토론회



윤승용 박수호 박문수 김진호

종교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망은 높아지지만 기성종교들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단 분석이 나왔다. 한국사회 현대적 현상으로 대두된 '탈종교화'가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이 아닌, 그들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제도종교계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1월 25일 안국동 W스테이지서 열린 3대종교 특별토론회 '한국 종교, 탈종교화에 대응할 수 있나'서 발제자들은 2015 인구센서스 종교인구조사결과 무종교인이 56.1%로 종교인구 43.9%를 앞지른 현상을 주목하고, 원인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기조발표를 맡은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와 3대종교 부문 발제를 맡은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박수호 중앙승가대 불교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사회불안 속 국민들의 종교적 갈증을 해결치 못한 기성 제도종교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박문수 가톨릭평론 편집위원장만이 종교 인구 감소의 원인을 '세속화와 영성의 시대로 대변되는 탈 제도적 종교성의 확대'라고 봤다.

먼저 윤승용 이사는 "작금의 종교인구 감소는 종교의식의 세속화나 서구적 탈종교 현상보다 한국사회의 불안과 생존위기로 증대된 종교적 욕구를 수용할 수 없는 기성 제도종교의 문제"라고 평가했다.

윤 이사는 "신앙대중의 삶이 팍팍하게 되고, 그들의 사회적 보호막이 점차 해제되면서 종교적 피난처를 찾는데 골몰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이 같은 불안정한 삶이 종교의 욕구를 증대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안식처를 제공하는 종교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에 신앙대중들은 기성종교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5 종교인구조사결과
무종교인 56.1%로 나타나
종교인구 앞지른 현상 분석

"종교적 갈증 높아지지만
기성 제도종교 역량 부족"

윤 이사는 이에 따라 한국인들이 기성종교를 거부하고 대체종교, 즉 '영성종교와 근본주의'란 새 종교지형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교인구 감소시대에는 산토끼를 찾아 나설 것이 아니라 집토끼를 잘 관리하는 전략이 더 주효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진호 연구실장(개신교)은 명상 및 자기계발 프로그램들이 성행하는 현상, 필립 코틀러가 '산업사회의 마켓1.0'과 '소비사회의 마켓 2.0'을 지나 '영성사회의 마켓 3.0' 시대에 도래했다고 예언한 점 등을 언급한 뒤 "오늘의 세계는 곳곳에서 더 종교적"이라며 "전통적 종교체제들이 대표했던 종교의 영토를 넘어서 모든 존재의 장소가 종교 혹은 종교적인 것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문제는 기성종교들은 그러한 '종교 너머의 종교성'에 대해 닫혀있단 사실이다. 그리고 과거에 구축·경직된 언술들을 반복 주장한다. 즉 사회제도의 변화의 따른 새로운 종교성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수호 연구위원(불교)도 불자 감소의 원인에 대해 불교계가 불자들의 종교적·개인적 욕구들을 제대로 충족해주지 못한 결과라고 내다봤다.

박 연구위원은 "우선 불자들의 종교적 욕구가 무엇인지, 그것이 언제 형성되는지 검토해야한다. 사람들이 종교에 귀의하는 근본적 이유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함"이라면서 불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방법으로 '서원(誓願)불교'를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그동안 한국불교는 전근대성을 극복한다는 명분 아래 기복불교를 비판하고, 지식불교·수행불교·참여불교·작복불교 등 다양한 방향성을 모색했다. 하지만 구복에 대한 불자들의 욕구 해소를 위해 서원불교를 지향해야한다"며 "서원불교는 구복과 성불이란 종교적 욕구를 결합한 것이다. 불자들은 서원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함과 동시에 성불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문수 편집위원장은 "제도종교 역할 여하에 따라 종교인구가 증가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며 "종교인구의 급격한 감소 원인을 세속화와 영성의 시대로 대변되는 '탈 제도적 종교성의 확대'라고 생각한다. 경제난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 젊은 연령대 뿐 아니라 고령층에서도 감소했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한편 이번 3대종교 특별토론회는 신대승네트워크, 우리신학연구소,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신대승네트워크는 지난 1월 12일에도 '2015 인구센서스의 종교인구 변동이 한국불교에 던지는 함의-불교인구, 하락의 사이클에 들어갔나' 특별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설립 종령 공포

1월 25일, 출판사 종령 폐지

지난해 11월 '조계종출판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령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조계종이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령'을 1월 25일 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의 수익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조계종 사업부는 △건축설계사무소 운영 △사찰 연계형 전세버스 사업 △불교 공제조합 운영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포된 종령에 따르면 사업지주회사는 △출판 및 서적 도소매 △기획물 제작 대행업 △미디어업 △유통업 △프랜차이즈업 △부동산 중개 및 임대업 등 다방면서 직접 사업하거나 자회사 운용으로 수행한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은 주주총회서 선임하고,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재정현황을 고려해 주주총회 결의로 종단에 배당한다. 배당금 규모는 총무원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특히 전문경영인을 대표이사 권한대행자로 선임할 수 있어 조계종이 각종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포교원 인성교육계발 프로그램 공모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1월 24일 '2017년 포교원 인증 인성교육계발 프로그램' 공모를 공지했다. 올해 공모는 기획 '차(茶)를 통한 인성교육'과 일반 분야 등 2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청소년 마음등불' 사업 참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접수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로 심사는 3월 17일 진행 예정이다. 접수서류는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다운 가능하다.

한편, '인성교육 계발·인증위원회'는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을 위원장으로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 명상상담연구원장 인경 스님, 포교원·교육원 부실장 스님, 김영래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교수, 박병기 한국교육대 윤리교육과 교수, 박선형 동국대 평생교육원장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봄이 온 줄 알았건만…" 통도사 영각 앞 봄의 전령인 홍매화가 한겨울에 고개를 내밀었다. 허나 불래춘(不來春)이다. 삭막하기만한 겨울, 탐스런 붉은 빛이 반갑기 그지없지만 금세 사그라질까 걱정 앞선다. 그래도 수백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봄소식 전한 너이기에 아름다운 이별도 고맙다.

양산 통도사=하성미 기자

대선후보들, 잇따라 조계종 행보

문재인·반기문·유승민, 불교계 지혜 구해



자승 스님과 반기문 前UN사무총장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잇따라 조계종을 예방, 불교계의 지혜를 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반기문 前UN사무총장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서는 차별금지에 대한 서로의 견해를 주고받으며, 정부와 종교계가 국민을 위해 뜻을 모아야 함에 공감했다.

자승 스님은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지만 일부 종교지도자들이 선교활동에 방해가 된다며 국회의원들에게 연락해 법안이 무산됐다. 하지만 인권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평등을 명시한 헌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반 총장님께서 많은 경험을 하셨으니 꼭 신경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반 前총장은 차별금지는 UN헌장의 기본이기도 하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차별 받으면 안 된다는 대원칙"이라며 "UN사무총장으로 일하며 세계 73억 인구가 모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화답했다.

이어 23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만난 자승 스님은 "국민과 소통하고 교감하며 이심전심 되는 후보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승민 의원은 "제일 어려운 국민을 위해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오랫동안 갖고 있던 생각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보수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국민 원하는 개혁을 위해 보수정치가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前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에 앞서 19일 조계종을 예방한 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참석해 정권교체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국민의 마음이 어둠을 헤쳐 나가는 하늘길이라 여기겠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연등전문기업 대광불교

지혜의 등·자비의 등
연등을 밝히세요!!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6-7270 | 031)766-7271

일 주 문



각성 스님 신년법문

각성 스님은 2월 12일 서울 선릉역 동보성에서 열리는 보명선원 신년법회에서 '한국의 미래와 불교'를 주제로 법문한다.



정각회 2월 정기법회

주경 조계종 기획실장 스님은 2월 1일 국회 정각선원에서 열리는 정각회 정기법회에서 '불교 기본수행법, 참선'을 주제로 법문한다.



대전 서구노인福, 설맞이 나눔

장곡 대전 서구노인복지관장 스님은 1월 25일 대전지역 독거어르신 80가구에 설맞이 제수용품을 전달했다.



생활참선 강좌 개강

엄상호 불교인재원 이사장은 2월 10일부터 4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서울 전법회관에서 생활참선 강좌를 연다. (02)1661-1108

관음종 설맞이 숭인동 자비나눔



관음종 복지재단(이사장 홍파)은 1월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낙산 묘각사에서 숭인1,2동에 홀로 사는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 80가구에 쌀 1600kg을 전달했다.

홍파 스님은 "설날을 맞이하여 작은 정성이지만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인사 동국대 서울캠퍼스 보직인사

△미래융합대학장 겸 미래융합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장 박선형 △행정대학원 부원장 겸 사회과학대학 부학장 강재원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겸 경영대학 부학장 이상현 △공과대학 부학장 겸 융합소프트웨어교육원 SW산학연구센터장 임대운 △일반대학원 교학부장 최연식 △불교대학원 교학부장 겸 불교대학 교학부장 지창규 △교육대학원 교학부장 겸 사범대학 교학부장 황인규 △다르마칼리지 교양외국어센터장 조윤오 △다르마칼리지 창의혁신소통센터장 곽문규

〈현불뉴스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성역화 불사 원만 성취 총력"

김의정 조계사 신도회장

"한국불교 총본산 성역화 불사의 원만 성취와 함께 조계사 대중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사가 한국불교 대표사찰로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는 장소로 발돋움하길 기원합니다."

1월 20일 제24대 조계사 신도회장으로 취임한 김의정 신도회장은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원력을 드러냈다. 김 회장은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2005년부터 7년간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을 역임했으며 2015년부터 23대 조계사 신도회장을 지냈다.

김 신도회장은 먼저 "지난 임기 동안 많은 신도들의 협조로 원만 회향할 수 있었다. 향후 2년도 한 식구처럼 마음을 모아 성역화 불사 등 조계사가 당면한 과제를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처 재건 내걸고
24대 임원진 구축

김 신도회장은 특히 조계사 신도회 사무처 재건 등 신도조직 체계화에도 관심을 쏟을 것임을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신도회 고문에 이영희 · 지승동, 부회장에 박영환 · 송영란 · 김춘미 · 함정희, 지역본부장에 고재경, 포교사회본부장에 박종화, 소임본부장에 신지형, 사무총장에 김문주, 총무부장에 김진여심, 재무부장에 장성연 등도 임명됐다.

김 신도회는 "신도회 임원 임명도 함께 이뤄진 만큼 신도조직 체계화에 나서겠다. 가족과 같은 신도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김 신도회장은 2013년 불자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재단법인 명원문화재단 이사장으로 궁중다례와 궁중복식을 익히며 전통문화 복원과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탈북민 불자 정착에 기여"

한원덕 봉은사 신도회장

"불자들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봉은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절의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한원덕 봉은사 신도회장이 새롭게 취임했다. 오랜 공석 끝에 맡은 자리인 만큼 신도회의 미래에 대한 각오가 다부졌다. 특히 한 회장은 봉은사에서 탈북민 불자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냈다.

"소외받은 사람들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종교생활을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법회 기회를 만들고, 그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싶습니다."

사찰 문턱 낮추고
소외계층 나눔 증진

한 회장이 앞으로 봉은사 신도회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우선적 가치는 '즐거움'과 '보람'이다. 신도회가 즐겁되, 보람도 함께 찾을 수 있어야한단 의견이다. 한 회장은 "어느 조직이든 활성화를 위해선 회원들이 신명나게 즐거워야한다. 또 보람도 있어야한다"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신도회원들 간 격려하고 칭찬하는 문화를 만들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한 회장은 봉은사 인근에 건립 예정인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반대 서명운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계종은 최근 사찰 3,000곳에 서명지를 배포한 상태다.

한 회장은 "조계종이 추진하는 범국민서명운동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봉은사 신도회도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원덕 신도회장은 현재 한덕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최고영영자(AMP) 교우회장 등을 맡고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조계종 중앙신도회 신년하례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1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신년하례를 가졌다. 이날 예방에는 이기흥 회장을 비롯해 종단 등록 신도단체장, 전국 교구신도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 자리에서 현황보고를 받고 "불자의 긍지를 갖고 가족과 주변부터 적극적으로 포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포항북장애인福, 장애인 자비나눔



포항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권순관)은 1월 24~25일 '희망담은 행복상자' 사업을 진행하고 저소득 장애인 150여 명에 설 명절 선물을 지원했다.

권순관 관장은 "지역사회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 · 프로그램과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용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승희 기자

세계불교지도자 대법회 연다

대불총 3월 22일 개최계획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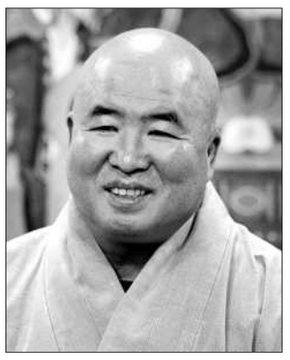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이사장 박희도, 이하 대불총)과 국제불교문화교류진흥원(원장 홍을선)은 "국제적 경제위기와 물질문명의 폐해로 인한 사부대중의 정신적 공황상태를 치유하기 위해 오는 3월 22일 세계 불교지도자들을 초청해 대법회를 연다"고 1월 23일 밝혔다.

오전 9시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서 진행되는 대법회에는 중국 · 일본 · 스리랑카 · 캄보디아 · 미얀마 · 네팔 · 태국 등서 활동하는 불교지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스리랑카 전직 대통령인 마힌다 라자팍세를 비롯해 미얀마 전직 대통령 · 양곤불교대 총장 · 캄보디아 훈센불교대학장 등이 참석의사를 밝힌 상태다. 윤호섭 기자

부산 사상구불교문화회관 건립 추진

사상구불교연합회 신임 회장
선광사 주지 성문 스님



"자비와 보시를 화두로 삼고 부산 사상구불교연합회는 화합하며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부산 사상구불교연합회는 1월 18일 부산 사상구청 신바람홀에서 '사상구불교연합회 회장 이 ·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취임한 신임 회장 성문 스님〈사진〉는 자비 나눔에 더욱 진력하고 앞장 설 것임을 밝혔다.

성문 스님은 세종대왕의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을 예로 들며 "세종대왕이 천개의 강에 비친 달을 설명하며 백성을 사랑한 그 마음은 중생을 사랑한 부처님의 마음을 닮았다. 이처럼 사상구에 있는 지역민을 위해 마음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료급식 등 나눔거점 활용
문화포교 적극 전개

아울러 스님은 사상구불교문화회관 건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문 스님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가족들이 찾아와 불교문화를 느끼고 접하고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문화회관에는 불교문화 포교뿐 만이 아니라 무료급식을 통한 나눔의 구심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계획을 설명했다.

한편, 부산 사상구불교연합회는 1986년 청량사 주지 김성림 스님을 초대회장으로 지역 사찰 41곳이 합심해 발족했다. 북구사암연합회로 출범했지만 1995년 3월 사상구와 북구가 분구되며 2011년 1월 사상구 소속 사찰 32곳이 모여 재결성했다. 그동안 사상구불교연합회는 국태민안 수륙방생대재를 봉행하고 논산훈련소 위문 등을 진행했다. 또 장학사업과 캄보디아 구호활동, 불우이웃 돕기 등에 앞장서 왔다.

한편, 이취임식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 전 회장 유정 스님, 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이상갑 사상불교신도회 회장, 송숙희 사상구청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2월 28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사찰 환자 GoldenTime 우리가 지킨다

응급구조 실습인형에 초당 2회의 흉부압박을 계속하자 건장한 스님들조차 의외로 힘이 든다고 했다. 이런 푸념도 잠시, 생명을 살린다는 생각에 스님들은 힘차게 압박을 계속했다. 1월 24일 조계사가 사찰 최초로 심폐소생 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스님들이 실습에 참여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심장 정지가 집안에서 발생할 확률이 20%, 집 밖에서 발생할 확률이 80%라고 합니다. 즉, 우리와 우리 가족의 심장정지가 일어난다면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말이죠. 다른 이를 돕기 위한 생명구조법을 익히는 것이 결국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임을 명심해 주세요."

자동심장충격기 패치를 붙인 여성 소방관의 모습을 보며 신기한 듯 웃음을 보였던 스님의 표정이 이내 진지해졌다. 그 진지함은 금새 생명을 살리기 위한 방법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바뀐듯 하다. 이어진 실습에서 소방관에게 정확한 방법을 다시 묻는 스님들의 눈에는 결연함까지 엿 보였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1월 24일 조계사 관음전에서 조계사 교역직 스님과 종무원, 봉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종로소방서 이성숙 홍보교육팀 소방관을 비롯해 홍승택 소방관, 홍향선 시민안전파수꾼 등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심장제세동기) 사용법, 소화기 관리 및 사용법 등을 설명했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이 안내돼 눈길을 끌었다. 최근 불교계에서는 심정지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이 찾는 사찰 내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있다. 조계사는 지난해 종무소 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바 있다. 이번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은 사찰 최초로 진행된 것이다.

"심장제세동기가 있다면 심폐소생술보다 우선입니다. 심폐소생술이 골든타임을 연장한다면, 심장제세동기는 다시 살리는 기구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 이성숙 소방관이 전원을 키는 파란색 버튼을 누르자 지시가 흘러나왔다.

"패치를 부착하십시오."

이 소방관이 직접 몸에 패치를 붙이자 "분석 진행 중입니다. 제세동기를 실시하세요." 음성과 함께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란 안내가 나왔다.

"만약 환자의 몸에 붙어 있으면 전류가 흐르게 되고 자신의 심장에 부정맥이 생겨, 환자 옆에 함께 누우실 수 있습니다. 목욕탕 같은 경우 환자 몸의 물기를 닦아주셔야 합니다. 털이 많은 경우 털도 제거해야 합니다."

진지한 분위기 속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잠시 뒤 전류표시의 버튼을 누르자 "삐" 소리와 함께 심장충격이 실시됐고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심폐소생술 교육에서는 일반적인 안내보다 현실적인 내용이 전달됐다.

"갈비뼈는 당연히 부러집니다. 수십 차례 교육을 받고 실습하는 구조대원도 갈비뼈를 부러뜨립니다. 하지만 4분 내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환자는 더 큰 손상을 입을 수 밖에 없기에 감수하고 열심히 실시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혹여 환자가 응급처치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상태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선뜻 나서질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응급처치 과정으로 처벌받은 판례가 없어요. 두려워 마세요."

"여성의 경우 흉부 압박에 앞서 가슴 노출 등으로 인한 성추행을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굳이 옷을 벗기실 필요는 없고, 정확한 위치를 누르시면 됩니다. 제세동기 사용의 경우에는 옷을 벗겨야 하는데, 주변에 응급조치임도 함께 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진 실습에서는 스님들을 비롯한 참석 대중이 실습용 인형을 이용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사찰에서는 흔치 않은 교육이기에 배움의 열기는 뜨거웠다. 한차례 씩 진행되는 실습을 수차례 반복하는 스님부터 수첩에 빼곡히 응급처치 방법을 적는 종무원까지 모두가 열심이었다.

조계사 교육국장 승묵 스님은 "심정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은 출가 이후 처음"이라며 "최근 추운 날씨에 사찰을 찾는 어르신들이 걱정이 됐다. 사찰이 찾는 이들의 안전에도 신경을 쓴다는 것 만으로도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로 평소 조계사 자동심장충격기를 봐왔다는 선정화 안순일 씨는 "만약 조계사에서 누군가 쓰러진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를 확실히 알게 됐다. 사용법도 정확히 익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계사 부주지 원명 스님은 "오늘 배운 응급처치는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그 자체로 생명살림"이라며 "사찰은 고령의 신도가 많아 미연의 사고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불교계에서 앞으로 다양한 교육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사 1월 24일 스님 · 종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현장



심폐소생술 실습에서는 봉사자 교육도 진행됐다.



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설명하는 이성숙 소방관.



스님들이 심폐소생술 설명을 흥미롭게 보고 있다.

잠깐! 사찰에서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면?

1. 먼저 환자의 의식을 확인한다. 심장정지의 경우 쓰러지며 머리 충격의 가능성이 있기에, 머리 외 어깨 등을 쳐서 의식을 확인한다.

2. 의식이 없으면 바로 119에 신고한다. 호흡은 실제 호흡 유무와 상관없이 평소 호흡기조로 정상처럼 보일 수 있다.

3. 119의 지시에 따라 호흡 상황 등을 체크 한 후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압박점은 가슴 명치 부분이다.

4. 압박점 5cm를 1초에 2번 눌러야 한다. 30번 가슴 압박 후 이마를 누르고 턱을 들어올려 기도를 확보한다. 코를 잡고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날숨이 나올 수 있게 코를 놓는다.

5. 2016년 119구조대가 4분 안에 도착한 경우는 전체 사건의 54%였다. 첫 목격자의 빠른 신고와 주변의 응급조치 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

6. 자동심장충격기를 보유한 곳이라면 119 신고 후 심정지 상황에 대해 이를 사용한다.



조계사 종무소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파라미타, 지역조직 강화 나선다

1월 20일 2017 3대 과제 발표… 1사찰 · 1학교 결연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지홍, 이하 파라미타)가 올해를 조직 강화를 위한 해로 선포하고, 울산과 경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지회 및 분회 조직 확산에 앞장서기로 했다.

파라미타는 1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 회의실에서 제38차 이사회를 열고 2017년 3대 주요과제를 발표했다. 파라미타가 꼽은 과제는 △지역조직의 안정적 운영 강화 △사찰학생회 활동 활성화 △국제적 역량 강화로 이중 파라미타는 지역조직 확산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가장 먼저 파라미타는 올해를 울산 및 경북지역 활성의 해로 지정하고 지도자 교육과 모임을 정례화를 비롯해 은퇴 지도자 역할 부여 등 지역 조직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초등학교 파라미타 동아리 활동을 독려해 신규 분회를 5%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회장 지홍 스님은 "파라미타의 경우 지도하는 일선 선생님이 전직을 하는 경우 조직이 와해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별 조직화를 목표로 설정해 지역조직에서 파라미타 활동을 끌고 가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조직 확산에는 사찰의 동참이 필수다. 이를 위해 파라미타는 1사찰 · 1학교 자매결연 맺기를 추진한다. 사찰학생회 활동과 파라미타 활동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생활기록부에 등재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파라미타는 이미 2014년부터 3년 연속으로 생활기록부에 등재 가능한 청소년단체로 교육부 선정을 받은 바 있다.

첫 지역으로 '울산 · 경남'
신규분회 5% 확대 방침
"교사 전근 시 와해 고려"
은퇴교사 활용안도 모색

또 각 사찰의 청소년 법회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연간계획 안내서'를 제작해 보급하고, 불교 및 전통문화 콘텐츠를 통한 다양한 체험활동의 꺼리도 제공키로 했다. 이밖에 현재 혼재돼있는 초 · 중 · 고 청소년 회원 명칭을 구분해 단계적 활동도 정립한다.

올해 총 예산은 8억 5620만원으로 예산 중 5억 2615만원이 청소년문화지킴이 운영사업, 파라미타 도전 골든벨, 한일교류활동, 국제캠프 운영 등을 포괄하는 '밝은 청소년 육성 사업'에 배정됐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1월 20일 제38차 이사회서 성진 스님을 상임이사로 선임했다. 파라미타는 이날 올해 지역조직 강화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특히 제20회를 맞은 파라미타연합캠프는 1억 9000만원이 배정됐으며, UN기구 WFBY(세계불교도청년우의회)와 함께 개최하는 국제청소년캠프로 진행된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상임이사로 사무총장이었던 성진 스님이 선임됐으며, 임기가 만료된 주경 스님(총무원 기획실장), 덕조 스님(불굴사 주지)이 이사로 재선임 됐다. 이와 함께 경남 파라미타청소년협회 거제지회장 서명희 씨도 신임이사로 선임됐다.

상임이사 성진 스님은 "문화재청과 결합한 청소년문화재지킴이 활동 등 생활기록부에 등재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 입시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단체가 되었다. 이제는 사찰과 파라미타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일만 남았다"며 "청소년 층 불자인구 감소에 대응해 한국전통과 불교문화를 통한 다양한 포교방법을 고안,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복지 백년대계 원년으로" 빅데이터 구축 등

조계종복지재단, '2017년 종무기조 및 핵심과제' 발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올해 '복지 100년'을 위한 종무기조 아래, 미래를 내다본 발 빠른 대응책 및 관리 체계 구축에 집중한다고 발표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이하 조계종복지재단)은 1월 24일 전법회관 6층 재단프로그램실서 '2017년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종무기조 및 핵심과제'를 공개했다.

이날 조계종복지재단은 '복지 100년을 향한 미래 전략 기반 구축'을 종무기조로 발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도를 뛰어넘어 사회복지 미래를 선도하는 재단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조계종복지재단은 "불교 복지정책을 이끌어갈 구심점 구축에 집중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 4개 핵심과제로 △빅데이터 및 운영모델 개발 통한 시설관리 체계 혁신 △(가칭)불교복지중앙센터 건립 기반 마련 △종교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불교사회복지 전략 수립 △전문 인재양성 시스템 정비 등 내세웠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함결 스님(사진)이 1월 24일 '2017년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종무기조 및 핵심과제'를 공개했다.

특히 사회복지 빅데이터 구축 마련을 통해 기존 복지사례 수집 · 분석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시설장 임용평가 강화 △시설 운영 평가지표 세분화 및 평가기준 보완 △복지시설 운영모델 개발 △지역별 특성 및 운영 사례 수집 및 대응 시스템 구축 △여성 · 아동 · 다문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모색 등 다양한 영역을 보강해 정보 수집력을 강화한다.

또한 시설장 · 교수 · 실무자로 구성된 '복지백년 발전위원회'를 출범하고 불교복지중앙센터 건립을 위해 100억 원 모연에 돌입한다. 모연은 일반 · 교계 언론기관과 MOU 체결로 벌인 공동모금 사업으로 충당한다.

아울러 불교복지중앙센터 내 불교복지콘텐츠 강화를 위한 'AR(증강현실) 복지시물레이션관'을 운영, 3,000배 철야정진 · 만발공양 등 다양한 체험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 조계종복지재단 상임이사 함결 스님은 "재단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복지백년 발전위원회' 기구가 필요하다. 올해부터 출범 준비 중"이라며 "불자가 감소하고 있는 현재를 위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시기를 혁신의 기회라고 생각해 미래를 준비할 계획이다. 스스로 줄기를 뻗어 숲을 이루는 반얀트리처럼 사방으로 퍼지는 불교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복지 소식

서울노인福 고령 구직자 취업교육과정

내일행복학교 1분기… 취업연계아카데미, 바리스타, 상담가 등

서울지역 고령 구직자를 위해 여가활동과 취업을 연계한 신규직종교육이 진행된다.

서울노인복지센터(센터장 희유) 부설 서울시어르신취업훈련센터는 2017년 내일행복학교 1분기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고령자 적합 신규직종 교육에 돌입한다.

특히 올해 교육과정엔 △바리스타 △실버도슨트(영화 해설가) △동년배상담가 △사서도우미 교육 등 고령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종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 참여는 서울시 거주 50세 이상 희망자라면 기관을 방문해 구직등록 후 신청가능하다.

구체적 일자는 △취업설계아카데미 1기(1/31~2/3) △바리스타 교육(2/7~3/23) △도슨트 1기 교육(2/8~3/6) △동년배상담1기 교육(2/9~28) △사서도우미 교육(2/15~3/3) 등이며, 모든 교재비는 1만원이다.

희유 스님은 "어르신들이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데 주저함 없이 도전하길 바란다"며 "교육 후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며 인생의 보람을 다시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02)735-1919

이승희 기자

포교사단, 연수교육 체계화 '시동'

연수교육 교재 개발해 올해부터 도입

조계종 포교사단이 일반포교사 연수교육교재를 개발해 교육 체계화에 나선다.

윤기중 조계종 포교사단장은 최근 "1차 합격자에 한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각 지역단에서 2차 연수를 진행하는데 올해부터 교재편찬위에서 발간한 연수교육 교재를 도입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교사단 연수교육의 대상은 2월 18일 치러지는 제22회 조계종 일반포교사 고시 1차 합격자로 3월 10일 포교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포교사단의 연수교육 교재에는 불자로서 가치관을 포함해 종단과 포교사에 대한 이해, 어린이 청소년과 군포교, 교정교화, 사찰문화와 염불봉사 등 7개 영역의 이론과 포교방법을 담고 있다. 교재 편찬을 위해 포교사단은 올해 포교사업비 중 1000만원을 편성했다.

윤기중 포교사단장은 "늦어도 3월 말까지는 교재가 완성될 예정"이라며 "2차 연수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월 18일 치러지는 제22회 조계종 포교사 고시에는 총 582명이 응시했다. 지난해 705명보다 123명이 줄어든 것이다.

포교원은 이날 서울과 경기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과 경남, 광주, 충청권 등 전국 8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1차 필기시험을 치른다. 최종 합격 품수식은 8월 중 포교사 8재계 수계법회서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공무원 불자들, 2월 11일 백양사서 결집

신년법회 및 임원 연수 예고

전국 공무원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년 불법홍포를 서원한다.

전국 불자공무원 신행단체인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규, 이하 공불련)는 2월 11일부터 1박 2일 동안 장성 백양사에서 '2017년 신년법회 및 임원 연수'를 개최한다.

행사 첫날인 11일에는 백양사 교육관에서 고불총림 방장 지선 스님의 법문과 입재법회가 진행되며, 판소리 · 가야금 공연 등 문화행사도 펼쳐진다. 이어 임원단 회의와 탑돌이, 철야기도정진이 진행될 예정이다. 12일에는 새벽 예불과 108배, 암자순례와 백양사 주지 토진 스님을 법사로 회향법회가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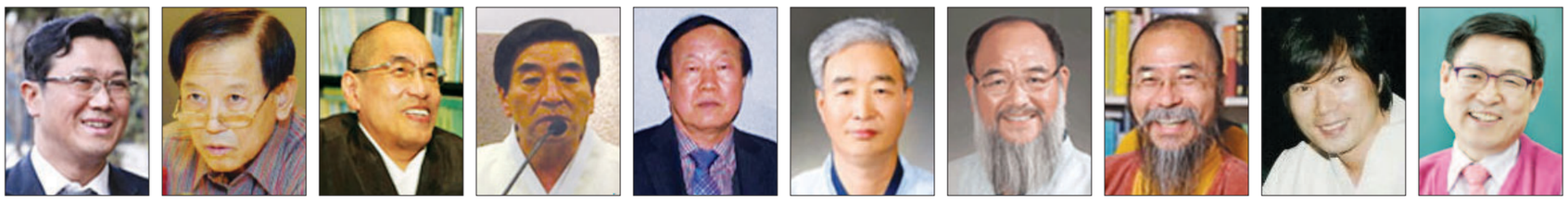
노덕현 기자

동국대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제4기 모집



대한민국 易學, 사주명리학 최고 교수진!!

대한민국 역학계 명문파 장문, 최고 실력자, 최고 권위의 교수님들과 함께 하는 아주 특별한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주역, 관상 등 기존의 역학에서 미신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를 배제하고 합리적 이론체계로 정립되고, 검증된 역학, 동양미래예측학을 통해 이 시대 최고의 동양미래예측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수님들과 과정생들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졸업 후에도 원우회와 동문회 활동 등 멘토와 멘티로서, 혹은 동반자로서 소통과 융합을 통해 이 시대 역학계, 동양미래예측학계를 이끌어 갈수 있는 인재 양성 과정!! 자신의 학문에 대한 현위치 파악 및 역학계 위상정립!! 더 이상 스승 찾아 헤멜 필요 없습니다.



미래예측학박사 1호 소재학교수(주임교수), 박청화교수, 꼴관상 신기원교수, 학선 유래웅교수, 백민교수, 정창근교수, 최명우교수, 노승우교수, 조규문교수, 이상광교수, 박성희교수, 문봉 박재범교수, 정경연교수, 신석우박사, 내정법 김인순박사, 명리학과 한의학의 만남 김민재박사, 박용남교수, 샤머니즘박물관장 양종승박사 외
〈특강교수〉 미래특강-세계미래포럼 이영탁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장관), 가수 김태곤박사, 최면 NLP상담기법 설기문교수, 멘탈리스트 이진규소장 외

대 상 명리학 초중급자, 현업 종사자, 역학, 명리, 풍수, 관상 교수 및 강사(학력무관)
일 정 2월 23일 ~ 6월 22일, 매주 목(木) 18:40 ~ 21:30 / 수료 후 2학기 심화과정 선택
자격증 문광부 등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가(소정의 절차)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 /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 현대명리교육 상담사
입학식 3월 2일(목) 17:30 ~ 공개강좌 2월 23일 (목) 18:30 등록금 240만원
홈페이지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FCA) www.gfca.kr/
다음카페 FCA동양미래예측학최고위과정 http://cafe.daum.net/fca2
심화과정 FCA현대사주학석하명리 최고지도자과정 (원리를 알면 공부가 재미있습니다!!)

석하 소재학 박사 / 동양 미래학자, 미래예측학 박사 1호
명리학자 (공식전공 사주명리학 박사 1호)
동국대학교 FCA동양미래예측학최고위과정 주임교수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명리미래예측전공 주임교수
재)하원정미래학회 회장, 글로벌융합인재포럼 회장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FCA) 원장, 동양미래예측연구소장
서울신문 STV그룹 고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자문위원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및 발전위원장, Earist University 학장 역임

※ 장소 : 동국대학교 ※ 홈페이지 : www.gfca.kr ※ 문의 : 02-3443-4984 ※ 등록금계좌 : 신한은행 140-010-663788 예금주 : 동국대

불교 철학 Essay
붓다 찾는 천로역정

붓다 없는 불교·불교 없는 붓다 無

③ 붓다와 불교의 관계는

붓다와 불교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란 질문에 대해 언뜻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질문이 제일 어렵고 의미심장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붓다 다르마는 불교에서 올바르게 구현되고 있는가? 불교 없는 붓다는 과연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붓다의 가르침이 불교의 틀 안에서만 존재 하는가? 이렇게 붓다와 불교의 관계는 우리에게 많은 고뇌를 던지고 있다.

첫 선각자가 떠나면 그 제자들은 스승의 뜻을 따르기 위해 스승의 말씀을 정리하고 체계화시킨다. 여기에 여러 뛰어난 제자들이 나름대로 선각자의 사상을 해석하고 체계화시키면서 교단이 형성된다. 그리고 제자들이 전법의 뜻을 실현하고자 조직을 만들면 그 첫 선각자를 교조로 하여 하나의 종교가 탄생한다. 이렇게 출발한 종교는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자기 생명력을 유지시키고 확장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종교는 여러 가지 특성을 구비하고 체계화시킨다. 종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여러 종교학자들의 이론을 종합하여 제시하여 보면 △교리적, 철학적 차원 △윤리적, 율법적 차원 △경험적, 감정적 차원 △신화적 차원 △의례적, 실천적 차원 △사회적, 조직적 차원 등 6가지 차원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종교가 지닌 여러 차원의 특징들은 종교 자체가 스스로 생명력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계속 보안되고 수정된다. 첫 선각자(교조)의 가르침은 대개 교리적, 철학적 차원과 윤리적, 율법적 차원에 치중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종교 체계를 유지하기에는 어렵다. 이에 신화적 차원, 의례적 차원, 조직적 차원 등이 추가되어 작동한다. 이러한 과정이 거듭하면서 교주와 종교의 관계는 엷어지기도 하고 오히려 충돌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종교는 교주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교주를 팔아 종교 생명력을 유지시킨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말법이니 말세니 하는 것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리라. 긴 종교의 역사에서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았던가. 중세 기독교의 면죄부, 십자군 전쟁, 마녀사냥 등 대표적인 사례를 거론할 수 있지만 어찌 기독교 뿐이겠는가.

붓다와 불교라는 종교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자. 스리랑카의 큰 스님이자 불교 석학인 라훌라의 견해를 보자. "부처의 가르침에 붙이는 '불교'라는 딱지도 그리 중요하지 않다. 누군가가 지어놓은 이름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진리에는 상표가 필요치 않다. 진리는 누군가의 전리품이 아니다. 파벌적인 딱지는 진리를 자주적으로 이해하는데 장애가 되며, 사람의 마음에 해로운 편견을 만들어 낸다."

붓다의 가르침은 불교라는 상표가 없이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분명 맞는 말이다. 그러나 제도 불교의 습기에 젖었는지 이 말이 섭섭하다. 그만큼 나는 불교라는 용어에 집착하는 것이리라. 어리석게도.

그럼, 붓다의 가르침은 어떻게 다양한 모습으로 종교화 되었는가? 붓다가 세상을 떠난 후 붓다의 가르침은 인도 땅을 넘어 중앙아시아를 넘어 중국과 인접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붓다의 가르침은 새롭고 다양한 문화 환경을 만나면서 변신과 변신을 거듭하면서 특정한 입장을 중심으로 한 종파가 성립되었다. 그리고 각 종파는 자기 종파의 우월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리를 개발하고 심화하는 작업을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초기의 불교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고, 여느 계시(啓示)종교와 유사한 면도 많아졌을 것이다.

나는 불교가 2500년 동안이나 지속되어온 것이 신기롭고 기이하게 생각될 때가 있다. 지금 불교는 아시아라는 지역적 틀을 넘어 서양 세계에 새롭게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다. 왜 신기롭고 기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바로 '무아'의 문제이다. 무아는 연기론에 바탕을 둔 것으로 불교의 핵심 교리이다. 무아는 일단 '자기부정'의 논리이다. 무아는 인간 삶의 양식에 있어서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이다. 인간은 영원하고 실재적인 것을 염원한다. 즉, 산스크리트어로 아트만(Atman)을 인정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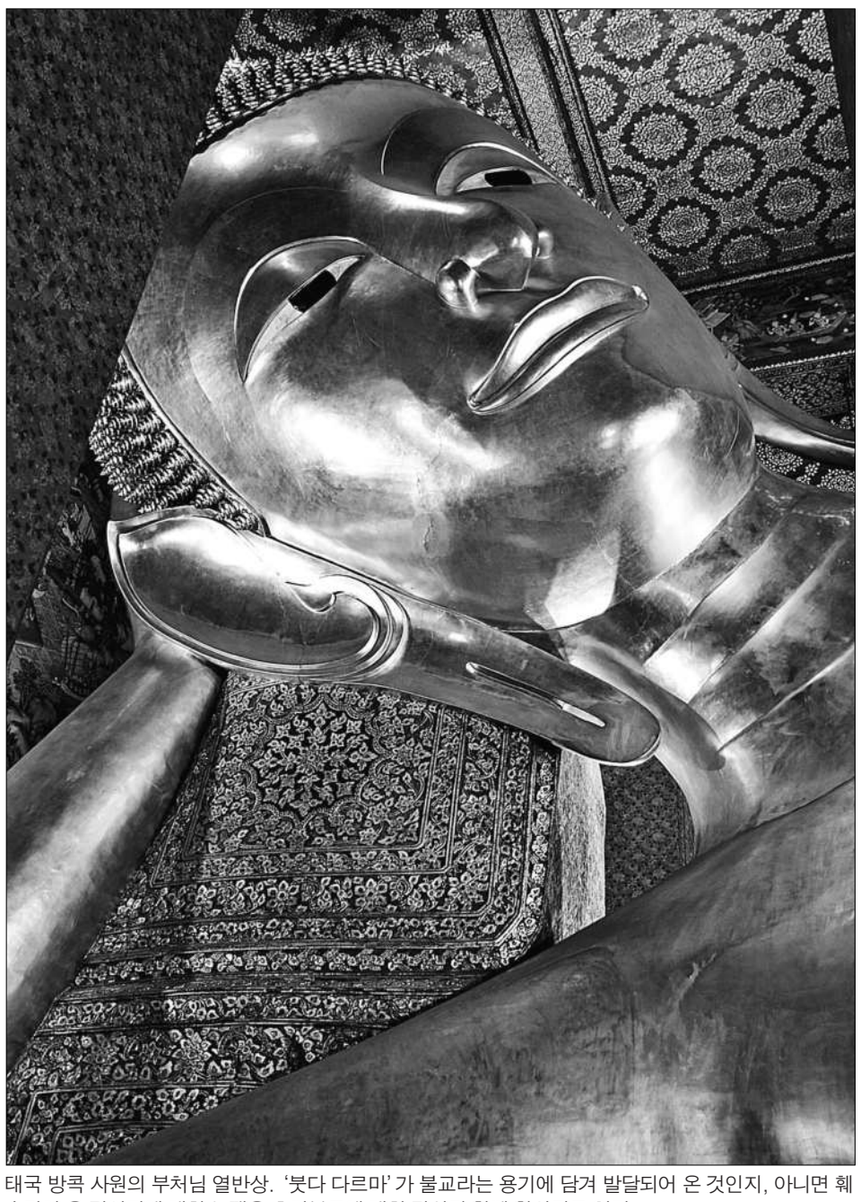
세계의 모든 종교는 이름만 달리할 뿐 다 아트만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자기 보호와 자기 보존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불사의 '영혼'을 가정하고 신을 만들어 의지하고 영생을 추구한다. 그런데 붓다는 무아를 주창한다. 그리고 초월적 존재도 무시한다. 이렇게 종교의 틀을 무시하는 불교가 지금까지 존재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의 불교는 붓다를 배반하면서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인가? 반대로 붓다의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더럽힌 것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나는 라훌라의 입장에 반대하고 다음과 같이 단언하고 싶다. "붓다 없는 불교는 없다. 불교 없는 붓다도 없다." 붓다는 불교의 울타리 안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 없는 붓다는 없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은 붓다 다르마가 불교를 통해 꽃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붓다 없는 불교 없고, 불교 없는 붓다는 없다"는 것은 불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절규인지도 모른다. 붓다 없는 불교를 보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신음일 수도 있다.

나는 불교를 통해 2500여 년 전의 붓다를 만나는 것인가? 아니면 역사적 인물로부터 해방된 붓다를 만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이 두 붓다를 한 분으로 만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불교는 역사적 인물인 붓다의 가르침에서 출발하였지만 또한 불교는 붓다를 역사적 인물에서 해방시켜 또 다른 붓다를 탄생시키고 있다. 이는 바로 역사적 인물인 고타마 붓다의 역할을 함께 하기 위해서다. 바로 아미타불과 많은 보살은 역사적 인물에서 해방된 붓다라고 생각한다.

탁월한 서양 불교학자로 알려진 콘즈(E. Conze)는 그의 저서 〈Buddhism: Its essence and development〉에서, 붓다 입멸 후 1500년이 지난 후 불교사상의 창조적 맥락이 멈추었다고 주장하면서 안타까워한다. 150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불교교리의 연꽃이 피어날 만큼 만개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1000년 동안은 과거의 위대한 유산만을 지키려고 애써 왔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창조적 불교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다. 콘즈의 입장은 이러한 불교의 다양한 변신에 대해 '연꽃의 만개'라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교에 대해 붓다 사상을 훼손시키는 결손된 불교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이것은 붓다 다르마가 불교라는 용기에 담아져서 발달되어 온 것인지, 아니면 훼손되어 온 것인지의 논쟁으로 연결된다. 오늘날 초기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논의는 다양한 영역에서 제기된다. 이러한 논의는 오늘의 한국불교를 보는 맥락과도 연결된다.


태국 방콕 사원의 부처님 열반상. '붓다 다르마'가 불교라는 용기에 담겨 발달되어 온 것인지, 아니면 훼손되어 온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초기불교에 대한 관심과 함께 확산되고 있다.

> **붓다 다르마 담은 제도적 불교는 자신이 처한 연기적 조건 속에서 스스로 갱신하면서 다양하게 나타나 순수한 '붓다 다르마'는 있어도 변치 않는 '순수한 불교'는 없다**

여기서 나의 입장을 정리해야겠다. 붓다 다르마를 담은 제도적 불교는 자신이 처한 연기적 조건 속에서 자신을 스스로 갱신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순수한 '붓다 다르마'는 있어도 변치 않는 '순수한 불교'는 없다고 본다. 남방 불교, 티베트 불교, 중국 불교, 한국 불교, 일본 불교 등은 자신이 처한 연기적 조건 속에서 붓다 다르마를 구현한 것이라고 본다.

문제는 이러한 연기적 조건 속에서 얼마나 붓다 다르마를 올바르게 표현하고 구현했느냐의 문제이다. 기후와 바람, 해류 등에 따라 불교라는 배의 항해는 매우 다양할 것이다. 붓다는 배가 제대로 항해할 수 있도록 '항해 지도'를 만들어 주었고, 항해의 방향을 안내하는 '등대'도 만들어 세웠다. 따라서 붓다 다르마를 탐구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불자들은 끊임없이 붓다의 항해 지도를 독해하고 등대의 빛을 따라 항해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배는 좌초하고 표류하고 말 것이다. 여기에 '승가 공동체 구성원'의 자질과 사명감이 요구된다. 그 붓다 다르마의 길을 '방편'이라는 틀로 피해 가서는 안 될 것이다. 방편은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단일 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21세기 문명 대전환의 격변기 속에서 불교는 어떤 모습으로 붓다 다르마를 구현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불교와 신비주의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자. 불교는 합리적 종교이기 때문에 신비주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붓다 다르마와 신비주의는 공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나아가 불교의 최고 지향 가치인 열반과 선불교 및 밀교를 신비주의적이라고 보기도 한다.

신비주의는 붓다 다르마를 훼손하는 것인가? 제도 불교의 의례 중에 나타나는 신비주의적인 요소는 우상 숭배고 기복적인 것인가? 이러한 논쟁은 신비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궤도가 달라진다 하겠다. 신비주의는 일상의 경험세계를 초월하여 우주의 근원과 인간의 본성을 보려는 인간의 열망에서 생성된 것이다. 신비주의는 어떤 실재와의 직접적이고 내면적인 일치의 체험을 중시하는 것이다. 신비주의의 긴 역사 속에서 그 유형과 범주도 어지러울 정도로 다양하다. 사는 것 자체가 신비스러울 정도로.

저명한 불교 학자인 콘즈는 〈반야심경〉에 심오한 붓다 다르마와 주술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다고 감탄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보리사바하'는 산스크리트로 열반의 저 언덕으로 빨리 가자는 간절한 염원을 나타내는 내용이다.

그런데 구마라집과 현장은 산스크리트 원어를 왜 번역하지 않았나? 언어의 신비화를 통해 붓다의 가르침을 극대화한 것인가? 나는 진언 게송이 없는 〈반야심경〉은 상상이 되지 않는다. 필자는 대학 시절부터 신비주의적인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이에 관한 독서도 꽤 많이 했다. 특히 현대 물리학과 신비주의의 관계에 대한 담론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신비주의가 현대 과학에 의해 신비의 가면을 벗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불교를 연구하고 사랑하는 분들 중에는 불교가 신비주의와 결합되는 현상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러나 나는 불교 의례의 신비적인 요소는 결코 기복적인 것이 아니며, 붓다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아가 불교의 신비적인 요소가 없었다면 붓다 다르마가 이렇게 넓게 파종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나는 지금까지 해온 관음 기도를 이제는 기복을 넘어 붓다 다르마에 가까이 가는 수행 길로 생각하고자 한다.

어느 불교 학자는 나보고 '미신 불교'를 믿는다고 농을 한다. 이러한 농에 대해 전혀 불편이 없는 걸 보니 아무래도 불교를 신해(信解)하는 나의 틀은 나만의 것으로 소중하게 간직해야겠다.


방영준(성신여대 명예교수)

출강 및 통신 2017학년도 제26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 교육 신입생 모집

탁월한 불교교육과 정명한 법사자격을 원하십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은 정통한 법사교육으로 26년의 전통과 신뢰로서 자랑과 긍지를 삼고 있습니다.

① 사단법인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인증하는 법사자격 법위증이 수여됩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 교육합니다.
④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 불학연구원과정(5년) · 불교석학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7년 2월 23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대학원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 신 대 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사교과에서 활안큰스님 "석문의범" 특강이 있습니다.
◇ 원서교부 : 2017년 1월 15일 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개 강 : 2017년 3월 7일 화요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 박사님, 김익순교수 외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천도재의식 및 권공의식, 작법무
◇원서교부 : 2017년 1월 15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7년 3월 2일 목요일 오후 2시
※3월부터 3개월간 예수재의식 특강이 있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미륵이 만든 正覺像, 그 빛은 동쪽을 비춘다



윤범모 교수의 '佛道紀行'
– 붓다가야에서 토함산 석굴암까지

② 깨달음의 땅 보드가야



인도 보드가야 마하보디 사원의 전경. 이곳의 보리수 아래에서 붓다는 정각을 이뤘다. 6세기 경부터 대승불교의 사원이 건립됐다. 현재의 고층탑 건물은 19세기 후반에 복원된 것이다.

붓다 생애에서 '길'이 주는 상징성은 매우 크다. 우선 길에서 태어났다는 것부터 의미심장하다. 인도의 풍습이어서 그랬겠지만, 마야 부인은 출산하기 위해 친정으로 길을 나섰다. 하지만 싯다르타는 '집'에 도착하기 전 노상에서 태어났다. 무우수 나무 아래서 마야의 몸을 빌려 옆구리로 나온 이, 거기가 룸비니였다. 왕궁을 버리고 고행 길에 나선 이, 길을 걷고 또 걸었다. 길에서 깨달았고, 또 길에서 설법했고, 또 길에서 열반에 들었다. 길은 인생의 현장이었다. 붓다의 생애 모든 장면마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주목을 받는 곳이 바로 보드가야다. 깨달음의 현장이다.

고행 길에 도착한 곳, 거기가 전정각산(前正覺山)이다. 평원에 거의 삼각형 모양으로 우뚝 솟은 산 하나, 외경스럽게 보인다. 깨달음의 현장으로 적합할 것 같은 산이다. 하지만 그곳은 아니다. 아름다운 경치와 깨달음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 결국 정각을 위해 산을 나와 강을 건너야 했다. 나이란자나 즉 니련선하(尼連禪河). 인도 가기 전 나는 니련선하가 이름처럼 매우 아름답고 큰 강인 줄 알았다. 그래도 깨달음의 무대이니 뭔가 그럴 듯한 풍광을 자랑할 줄 알았다. 나는 니련선하에 가서 실망했다. 강물은 말라 있었고 한마디로 평범했다. '정각의 땅'이라면 뭔가 특별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 또한 범부의 생각이었다. 깨달음의 장소는 특별한 곳이라기보다 그렇고 그런 평범한 장소였다. 절경과 수행처는 별개의 문제였다. 정말 처처불상(處處佛像)이었다. 우주 공간 어느 곳이나 다 깨달음의 장소이고, 또 모든 것이 다 불상이었다. 아, 그런데 그동안 나는 왜 아름다운 풍경만 찾아다녔을까.

메마른 강에서 전정각산을 바라본다. 운무(雲霧)로 가려졌는지 형태가 또렷하지 않다. 나는 텅 빈 강을 거닐면서 주변을 살펴본다. 니련선하, 그 거룩한 이름의 강, 아니 강 비슷한 곳. 그래서 나는 강을 건넜다. 그리고 길 위의 싯다르타를 생각했다.

붓다 구법로 걸어 도착한 정각처
모든 곳이 깨달음의 도량이었구나

마하보디석굴 안의 정각 이룬 이
친견하고 무릎 꿇고 예경 올린다
미륵이 만든 본불은 사라졌지만
그 빛은 동쪽 석굴암으로 이어져



마하보디 사원 대탑의 본존불. 석굴암 본존불과 같이 항마촉지인의 수인을 지닌 좌상이다.

고행의 마지막에 도달했음인가. 싯다르타는 지쳤다. 강 근처의 마을에서 싯다르타는 수자타 여인이 준 유미죽을 먹고 기력을 회복했다. 첫 공양자가 살았던 수자타 마을 역시 평범했다. 싯다르타는 보리수 아래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났다. 6년 고행의 험로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다. 그곳이 바로 보드가야 즉 깨달음의 땅이다. 구법승들이 즐겨 찾던 곳, 오늘날 성지순례 1순위의 장소이다. 그래서 그런지 세계 각처에서 몰려오는 나그네의 발길은 분주하다. 하지만 이곳조차 한동안은 폐허의 땅, 잊혀진 곳이기도 했다. 이슬람 침입 이후 특히 그랬다. 19세기에 이르러 가까스로 마하보디 사원의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마하보디 불당에 이르면 무엇보다 거대한 탑과 만나게 된다. 높이 55m의 탑으로 상층부로 이를수록 좁아지는 첨탑형 구조이다. 삼각형 형태여서 안정감을 자아낸다. 중앙의 대탑 네 모서리에 각각 작은 탑을 두었다. 이 거대한 탑 건축은 19세기 말의 작품이다. 버마의 파간 탑(12세기)을 기본으로 하여 세운 것이다.

당시 버마 사람들이 마구 복원사업을 펼치니 영국 정부가 나섰다. 하지만 파괴된 원형은 되돌릴 수 없는 불행을 자초했다. 오늘날 대탑의 뒤에 가면 보리수가 있고, 금강좌가 있다. 바로 깨달음의 현장이다. 그래서 그럴까, 세계 곳곳에서 수행승과 불자들의 기도소리와 좌선하는 모습으로 가득하다. 티베트 사람들을 비롯 아시아 각지에서 온 사람들, 더러 구미에서 온 백인들도 보인다. 당나라에서 온 현장법사는 이곳을 돌며 저서 〈대당서역기〉에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보리수로 둘러친 울타리 한가운데 금강좌(金剛座)가 있다. 이 금강좌는 옛날 현겁(賢劫)이 처음으로 열릴 때 대지와 함께 솟아난 것으로 삼천대천세계의 중간에 거처하고 있는데 아래로는 금륜(金輪)에 닿아 있고 위로는 지면으로 솟아있으며, 금강으로 이루어져 있다. 둘레는 백여 걸음에 달한다. 현겁 천 분의 부처님께서 이 자리에 앉으셔서 금강정(金剛定)에 드셨으므로 금강좌라고 한다. 또한 성도(聖道)를 증득하신 곳이므로 도량이고도 부른다. 대지가 진동하였지만 이 자리만이 홀로 흔들리거나 기울지 않았다."

그곳이 성스러운 길, 바로 성도(聖道)였다. 세계의 배꼽에 해당하는 성스러운 길, 바로 금강좌였다. 보드가야는 성역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순례자의 발길로 가득하다. 대탑 주위를 돌면서 두 손을 모은다. 불행하게도 현재 이곳에서 오래된 불상은 볼 수 없다. 마투라 형식의 4세기 굽타시대 불상이 남아 있다. 보드가야의 불상은 대부분 9~12세기의 제작이다. 그런 가운데 대표작으로 꼽히는 불상은 촉지인 불좌상(9세기, 파트나주립박물관 소장)이다. 당당한 체구에 우견편단 옷을 입고 가부좌 틀고 있는 모습이다. 오른손은 무릎 아래로 내리고 왼손은 겹쳐진 발 위에 올려놓았다. 광배는 위에 보리수가 있고 꽃다발을 든 천인이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새겼다. 본존 좌위에는 관음과 미륵이 서 있다. 정말 당당한 작품이다. 하지만 나의 관심사는 대탑 안에 봉안된 본존불이다. 역시 항마촉지인의 수인을 지닌 좌상이다.

마하보디 석굴 안에 앉아 있는 깨달은 이. 원형 두광을 두고 항마촉지인의 수인에 고개를 똑바로 쳐들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있는 이. 2m 높이의 금빛 화려한 빛에 노란색 가사로 몸을 감싸 더욱 신비롭게 보이는 부처님, 저절로 무릎을 꿇게 한다.

이 불상은 10세기 후반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19세기 복원 당시 힌두교 계통 마한트 사원에서 옮겨온 것이다. 때문에 당나라 구법승들이 참배했던 불상은 아니다. 아쉬움을 안기는 부분이다. 그나저나 깨달음의 이미지를 누가 조성할 수 있을까. 무불상시대를 거쳐 오랜 세월 흐른 다음 어느 누가 진정한 불상 즉 정각의 모습을 만들 수 있을까. 마하보디의 정각상(正覺像), 당나라의 현장법사는 이 부분의 일화를 흥미롭게 기술했다. 그의 〈대당서역기〉에 수록된 내용이다.

정사가 준공되자 성도한 붓다의 모습을 새길 공인(작가)을 모집했다. 하지만 응모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하기야 그렇지, 어떻게 범인의 솜씨로 붓다의 이미지를 조성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정각의 순간을 형상화해야 하는 것을. 세월만 흘러갔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한 브라만이 나타났다. '내가 여래의 묘상(妙像)을 훌륭하게 만들겠다.'

드디어 붓다의 이미지는 조형화되는가. 불상 제작에 있어 브라만의 요구는 오로지 향니(香泥) 한 가지면 된다고 했다. 향기 그득한 흙 그리고 등불 하나. 단 조건 한 가지가 있다. 제작기간인 6개월간 그 어누 누구도 문을 열면 안 된다. 6개월 동안 브라만은 두문불출 정사 안에서 깨달은 이의 모습을 만들었다.

하지만 궁금증이 많았던 일반인들은 참지 못하고 일찍 문을 열었다. 그래서 완성 직전에 작업은 멈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상은 장관이었다.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항마촉지인의 좌상이었다. 바로 토함산 석굴암 본존상과 같은 예이다. 토함산 위에서 동해를 바라보고 있는 본존상, 바로 그 모습과 같다.

그런데 고맙게도 현장법사는 마하보디 정각상의 크기를 기록해 주었다. 대좌의 높이는 4척 2촌에 넓이 1장2척5촌, 불상의 높이는 1장1척5촌, 무릎의 폭은 8척8촌, 두 어깨의 폭은 6척2촌. 정각상의 규모, 이는 토함산 석굴암 불상과 똑같은 크기가 아닌가. 보드가야와 토함산의 불상은 같은 모습에 같은 크기, 그리고 같은 동향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석굴암의 모델은 바로 보드가야 정각상이 아닌가.

깨닫는 순간의 모습, 그 정각상을 만든 브라만은 누구인가. 바로 자씨(慈氏)보살, 미륵이다. 그는 일반인은 '부처님의 성용(聖容)을 추측하기 어려우리라' 생각하고 스스로 불상을 만들었다고 했다. 아, 미륵께서 정각의 모습을 만들어주셨구나! 이런 붓다 이미지를 요새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상투적으로 공장 제품 만들 듯 불상을 만드는 이른바 불모(佛母)는 없는지, 반성하게 한다.

"정각상은 미륵보살이 친히 와서 만든 것/ 일반 속인은 물론 바라문도 만들 수 없는 것/ 실내 깊은 곳에 있어/ 아침 일찍 커다란 거울을 가지고 햇빛을 끌어오면/ 드디어 영상(靈相)을 잡을 수 있다/ 자비로운 모습/ 중생에게 무한한 감동을 안긴다/ 깨달음의 순간을 증거한다// 속인은 상상할 수 없는 것/ 보살이 와야 만들 수 있는 것/ 보드가야의 정각상/ 그 깨달음의 모습 동쪽을 비추기 시작한다"

-졸시집 〈토함산 석굴암〉 中

〈미술평론가, 가천대 명예교수〉

사진=황헌만 사진작가

제 95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2월 중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전류가 흐르며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신라왕릉 무인상, '서역인' 아닌 '금강역사'가 모델

임영애 교수, 〈조선왕릉 석물조각사〉서 주장

신라의 서역과 직접 교류를 추정하며 드는 역사적 증거 중 하나는 경주 원성왕릉(일명 괘릉)의 무인상이다. 부리부리한 눈과 뚜렷한 이목구비, 풍성한 수염의 무인상을 두고 일반적으로 "직접 교류를 했던 서역인을 이미지화 했다"고 여겨왔다.

하지만, 신라왕릉의 석물 조각들이 불교미술의 영향을 받았고, 특히 원성왕릉의 무인상은 신장상(神將像)에서 이미지를 가져왔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다.

임영애 경주대 교수는 최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맹식)가 발간한 연구서 〈조선왕릉 석물조각사(Ⅰ)〉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임 교수는 '신라왕릉의 석인상' 연구논문에서 신라왕릉 4기에 세워진 석인상들을 조명했다. 임 교수에 따르면 석인상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성덕왕릉이며, 이것이 완성형태에 이른 것은 원성왕릉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원성왕릉에 대해서는 "석인상의 조각이 매우 뛰어나며, 왕릉 석물이 완전체를 이루고 있다. 원성왕릉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국적 얼굴의 무인상은 신라왕릉 조각의 백미(白眉)"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임 교수는 권영필, 민병훈 등이 제기한 신라와 서역의 직접 교류설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당위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우선적으로 서역인이 9세기 중후반에 존재해야 했지만, 당시 신라는 극심한 혼란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상인집단이었던 이들이 혼란기 신라를 찾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경주 괘릉서 무인상 첫 등장해
조선왕릉 무인상에도 영향 미쳐

'서역인 이미지'는 역사 증거 無
당시 '서역인=상인', 수호자 못돼
신라왕릉 석물, 불교의 영향 지대
원성왕도 불교 기반에 왕위 올라

또한, 장사치에 불과했던 서역인들이 왕릉과 같이 신성한 공간을 지키는 수호자로 나설 수 있냐는 비판도 제기했다.

임 교수는 "8세기 전반 당의 수도 장안에 2~3만 명의 서역인이 거주했을 때조차, 심지어 그들이 군사적 역할을 담당했을 때에도 그들의 모습을 앞세워 황릉 수호를 맡긴 적이 없다"며 "이런 점을 상기하면 통일신라에서만 서역인에게 왕릉 수호의 역할을 맡겼을 것이라고 상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주 원성왕릉의 무인상. 그동안에는 서역인을 모델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불교의 금강역사가 모델이라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다.

무인상의 복식 역시 서역인과는 맞지 않다는 게 임 교수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임 교수는 "신라인들이 서역인을 정확히 인식하고, 서역인을 왕릉 앞에 세우기를 원했다면 오히려 서역인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호모(胡帽)를 쓰고 깃이 벌어진 호복(胡服)을 입었을 것"이라며 "원성왕릉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서역적 특징은 단지 얼굴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원성왕릉의 무인상은 서역인이 아닌 불교 호법신장인 '금강역사'을 모델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신라왕릉의 석물에 불교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신라왕릉 조각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라며 "신라는 당나라와는 달리 능묘조각의 작가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필요에 따라 불교조각가를 기용해 석인상을 비롯한 석물 제작에 참여토록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성왕의 경우 불교를 기반으로 왕이 됐고, 유언에 따라 화장을 하는 등 불교와의 관계를 유추하기는 어렵지 않다"면서 "만약 원성왕릉의 무인상의 얼굴 모습을 두고 서역인을 직접 모델로 했다고 이야기하려면 감은사 사리기의 사천왕상이나 석굴암 금강역사상을 두고도 서역인이 도래한 결과라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선왕릉 석물조각사〉에는 고려왕릉 조각의 대외교류 양상과 조선으로의 이행을 비롯해 조선왕릉 석인조각과 능제(陵制)와의 관계, 도상(圖像) 변화 등을 알 수 있는 연구 논문들이 수록됐다.

분단으로 인해 확인하기 힘든 북한의 고려왕릉 석인상의 실제 모습을 지면을 통해 상세히 소개했고, 조선왕릉 석인상 · 비석에 숨겨진 변화상을 문헌과 시각자료로 고찰하여 그동안 조선왕실 조각의 성격이 절제미로 규정돼 온 것과 달리 개성과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조선왕릉 석물조각사(Ⅱ)〉는 내년에 발간되며, 석수와 병풍석 등 기타 석물을 모두 다룰 예정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학술서는 연구소가 10년 넘게 축적해 온 자료를 집성한 것"이라며 "신라~고려, 조선~대한제국에 이르는 방대한 시간적 편년에 따른 조각양식 등 미술사적 관점에서 왕릉석물의 변천을 통시대적으로 파악한 최초의 개론서"라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대승의 실천사상은 어떻게 수용됐나

학술서 〈대승불교의 실천〉 발간
스에키 · 이자랑 교수 등 공동저술
계율 · 선정 등서 실천사상 분석해

대승불교의 가장 큰 목표는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다. 그만큼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구현하는 것을 중요시 한다. 대승불교에서 나타난 이 같은 실천사상이 어떻게 수용됐는지를 살피는 학술연구서가 나왔다.

스에키 후미히코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교수 등이 참여해 공동 저술한 〈대승불교의 실천〉은 실천사상이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그 사상이 실제 대승불교 안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신앙이나 수행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되었는가를 짚어낸다.

〈대승불교의 실천〉에는 스에키 후미히코 교수를 비롯해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 하카마야 노리아키 前 고마자와대학 불교학부 교수, 야마베 노부요시 동경 농업대학 농학부 교수, 시마다 아키라 뉴욕 주립대학 준교수, 카츠모토 카렌 동방학원 강사, 후나야마 도루 교토대학 인문과학연구소 교수, 츠치야 다이스케 니카타대학 준교수가 참여했다. 김재권 박사가 번역을 맡았다.



이중 스에키 교수가 연구서의 총론 격으로 저술한 1장은 대승불교 개념이 어디까지 유효한지를 검토하고 실천 개념의 다양성을 논하고 있어 주목할만 하다.

스에키 교수는 서구학자 베르나르 포르, 로버트 샤프 등의 불교에 대한 비판 연구를 소개하고 사회참여불교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불교연구는 교조적 교리를 고정화하는 입장이 반성되고, 근현대의 사회적 실천까지 중요한 연구대상이 됐다. 연구장의 연구와 실천의 관계도 새롭게 되묻게 됐다"고 밝혔다.

스에키 교수는 대승불교의 핵심을 '타자론'에 뒀다. 그는 〈법화경〉의 후반부는 붓다의 열반 후에 '어떤 실천이 가능한가'를 묻고 있고 있음을 전제하고, "대승불교는 붓다 열반 후에 형성된 것이고, 죽은 자로서의 붓다와 어떻게 관계할 수 있는지를 큰 과제로 삼았기 때문에 죽은 자의 문제는 대승불교의 핵심을 이룬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자의 문제는 그대로 사회참여불교의 문제에 연결되고, 죽은 자의 문제는 산 자를 초월한 타자와의 연대 가능성을 여는 것"이라며 "불전해석은 그대로 현대의 실천적 문제에 결부돼 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자랑 교수는 '계율과 교단'을 통해 부파분열과 대승의 성립과정에서 계율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조명한다. 하카마야 노리아키 前 교수는 '신앙과 의식'에서 대승흥기시대의 실천적 모습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마다 아키라 교수는 '보살과 보살신앙'을 통해 사리를 모시는 장으로 불탑이 신앙 대상이 되고, 붓다를 시각화하는 것으로 불상신앙이 발전하고 있음을 고찰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금강대 발전위해 머리를 맞대다

23일 미래전략 포럼

천태종립 금강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종단과 학계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금강대(총장 한광수)는 1월 23일 서울 관문사 소강의실에서 '2017 금강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서남수 前 위덕대 총장이 '한국 대학의 위기와 대응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했다. 이어 민경찬 연세대 명예교수가 '글로벌 명문대학의 길, 무엇을 고민해야 하나?',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가 '미래 고등교육 동향과 대학 혁신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주제 발표에 앞서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축사를 통해 "오늘 포럼은 금강대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여 급변하는 교육과 사회 환경에 최상의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강대의 특성화와 미래형 비전, 그리고 대학 구성원과 종단의 역할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하여 학교의 내실과 외적 성장 모델을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광수 금강대 총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명문사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미래전략 포럼을 준비했다"며 "금강대를 명문사학으로 만들어 가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사硏, '한국불교사연구' 10호 발간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는 최근 〈한국불교사연구〉 제10호를 발간했다.

〈한국불교사연구〉 10호에는 '불교 전래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불교가 조선왕실 연향에 미친 영향(김상보) △불교가 한국의 주거문화에 미친 영향(최건업) △한국불교복식의 전개(강선정) △불교가 한국인의 수행문화에 미친 영향(심준보) 논문이 수록됐다.

이와 함께 '조선후기에서 대한시대로의 불교사적 전환'을 주제로 △선조의 광해군 양위 과정(이근호) △조선후기 불교계의 지성인 형성기반(고영섭) △한길로 법사의 한길사상(이성운) 논문이 실렸다. 신성민 기자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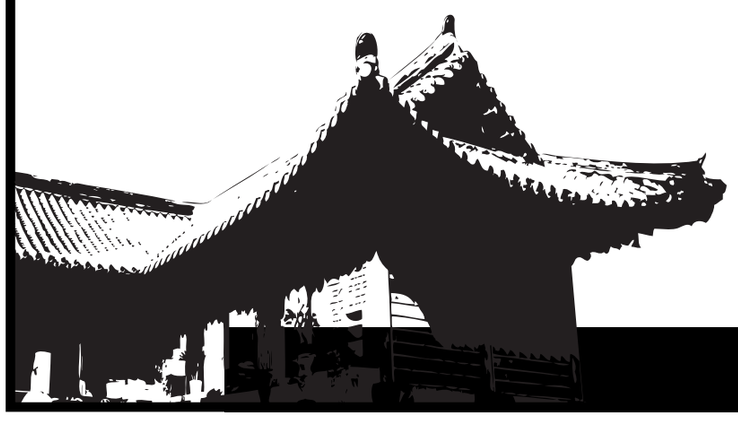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오늘도 좋은날

삶은 축복이자 기적이다. 꿈과 희망이자 빛과 어둠이다. 기대와 설렘, 노력과 도전, 성취와 행복이다. 청춘 만 아름다운 게 아니다. 노년(老年)도 아름답다.

여자는 여자여서 행복하고 남자는 남자여서 자유롭다. 더러는 고단하기도 하고 팍팍한 그림자와 함께 하지만 그림자는 빛이 있어 존재한다. 하여, 절반은 슬프지만 절반은 기쁜 일이 찾아든다.

때로는 너덜너덜한 넝마의 삶이 질기게도 따라오지만 개운한 삶이 솔찬한 기쁨을 몰고 온다. 삶의 톱니바퀴엔 미운 얼굴도 끼어 있지만, 마음 열고 보면 다 금싸라기 같은 사람들이다. 징검다리도 될 수 있고 버팀목이 될 수도 있는 햇살같이 따뜻한 이웃들이다. 미운 자도 보내고 나면 울컥 서러워지듯 오손도손 마주 손잡고 등 따시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형제자매처럼 살 일이다. 우울증에는 최고의 약이 설렘이라는 말이 있듯이 첫 데이트 있는 날처럼 첫 키스의 추억으로 조금은 들뜨고 더러는 설레며, 꿈과 희망을 일구어나가는 옥 경쟁의 사회, 있는 자 없는 자의 틈과 벽 사이에서 이용자가 되기도 하고 이용당하는 자가 되어 현생의 윤회를 거듭하는 게 우리네 삶이다. 그러나 신앙은 사닥다리 오르듯 하여 시야를 넓히는데 신앙의 생명력이 있듯이 마음의 빗장을 풀어 마음 열고 보면 길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꿈과 희망이 보이는 법이다.

천국의 극락세계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다. 살아서 누리는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한 생각을 접고 보면 미움이 사랑으로 바뀔 수 도 있을 터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생각이 바뀌면 운명도 따라 바뀌는 법이다. 마음이 열리면 세상도 열리는 법이다. 아미타불이 먼 곳, 까마득한 곳에 계신 줄 알고 찾고 또 찾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곧 진리의 실체인 아미타불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내가 섬겨야할 부처님은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 상이 아니라 나의 주거공간인 집이 참 법당이요, 움직이는 부모님과 아내 남편이 극진히 모셔야할 부처님이었던 것이다. 형제자매가 보살님이요 이웃사촌이 오백나한이었던 것이다.

내 집이 법당이요, 가족이 부처님
극락은 살아서 누리는 삶의 현장

밝은 빛으로 살 일이다.

어차피 삶에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의 눈높이에 따라 부정적인 착각으로 어둠과 빛 사이에서 생각의 윤회를 거듭할 뿐이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착각으로 어둠과 절망 사이에서 방황할게 아니라 긍정적인 착각으로 희망을 길들이며 밝은 빛이 가득 차게 꿈을 펼치며 살 일이다. 여자는 누구나 미인이길 바라지만 아름다움의 기준은 애매하고 모호하다.

결국 남자의 마음 차지는 얼굴 예쁨보다 마음 예쁨이다. 남자는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며 성취욕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여 건강 잃고 명예 잃고 어둠의 자식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결국 여자의 마음 차지는 돈과 명예보다 진솔한 믿음의 건강한 사랑이다. 세상의 절반은 여자이고 절반은 남자이다. 세상의 절반은 밤의 어둠이요 절반은 낮의 빛이다. 행복과 불행 또한 절반의 균형을 조화롭게 이어가는 것이다.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 없듯 영원히 불행한 사람도 없는 것이다. 시험의 지

극락세계는 죽어서야 이르는 곳이 아닌 살아서 누리는 삶의 현장이었던 것이다. 본래 동, 서, 남, 북은 없는 것이다. 나를 기준으로 나를 중심으로 동서남북과 팔방, 십방이 비롯되는 것이다. 나는 언제나 어느 곳에 있던 세상의 중심, 오늘의 참 주인공이었던 것이다.

오늘의 주인공으로 선(善)과 악(惡)을 지배하는 또 다른 의미의 창조주가 되는 것이다. 변두리와 모서리가 없는, 아웃사이더가 아닌 인사이더의 오늘의 참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가슴 활짝 펴고 어린 날처럼 주먹 나팔 불며 신바람 나게 호호탕탕하게 살 일이다.

쌀독에 담긴 절반의 쌀을 보고 한 아주머니는 배고픈 걱정이 앞선다면 한 아주머니는 배부른 여유를 누릴 수도 있을 터이다. 큰 아들은 우산장사요 작은 아들은 양산장사이다. 비오는 날엔 둘째가 걱정이요 햇볕 쨍쨍한 날엔 큰 아들이 걱정이다. 그러나 한 생각만 접고 보면 비오는 날엔 우산 팔려 좋고 햇볕 쨍쨍한 날엔 양산 팔려 날마다 좋은 날이다. 생각 바꿔 오늘도 좋은날로 살 일이다.

千經萬論의 끝은 본심부처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홍인(弘忍: 601~674) 대사는 도신(道信) 대사로부터 법을 전해 받은 중국 선종의 5대 조사다.

선종사에서 홍인 대사는 동산법문의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하고 〈금강경〉으로 선법을 드날린 새로운 가풍을 보였다. 그가 제자 육조 혜능 스님에게 법을 전해줄 때도 〈금강경〉을 설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달마 대사로부터 도신 대사에 이르기까지 〈능가경〉을 중시하여 선행을 닦은데 반해 홍인 대사는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삼았던 것이다.

홍인 대사에게는 특유의 전설이 있다. 그가 전생에 산중에서 소나무를 심으며 수행했던 재송도인(栽松道人)의 후신이었다는 설화다. 소나무를 심으며 살던 그는 늘그막에 도신 대사를 찾아가 출가를 하고 싶다고 말한다. 재송도인은 도신 대사를 두 차례를 찾아갔는데 처음에 찾아갔을 때는 도신 대사가 재송도인을 보고 세속인연이 아직 남아 있어 출가할 때가 아니라고 말해준다.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는 다시 도신 대사를 찾아가 출가를 원했다. 그때 나이가 이미 80세였다. 도신 대사는 재송도인에게 너무 늙었으니 몸을 바꾸어 오라고 했다. 이 말은 금생은 너무 늙었으니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 출가하라는 말이었다.

노인은 산을 내려가 산 밑에 있는 탁향(濁港)이라는 마을에 이르렀다. 마침 한 처녀가 개울가에 빨래를 하고 있었다. 노인이 물었다.

"내가 그대의 집을 빌려 하룻밤 묵었으면 하는데 되겠는가?"

처녀가 말했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대는 허락하는가?"

"집에 가서 부모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처녀가 집으로 간 사이 노인은 멀리 가지 아니하고 한 나무 밑에 앉아 죽어버렸다. 이 일이 있은 후 이상한 일이 생겼다. 빨래하던 처녀가 동정녀인데도 임신을 하게 된 것이다. 부모가 노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으며 지내다 기어코 아이를 낳았다. 부모가 아버지 모르는 아이라 하여 밖으로 안고 가 강물에 던져 버렸다. 나중에 보니 아이가 죽지 않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일설에는 학들이 와서 아이를 지켰다고 한다. 이런 이상한 조짐을 보고 아이를 다시 건져와 키우게 되었다.

이 아이가 자라 7살이 되었다. 하루는 황매산에 갔다가 길에서 도신 대사를 만났다.

"동자는 성이 무엇인가?"

"제 성이 보통 성이 아닙니다."

"무슨 성이기에?"

"불성입니다."

"그 불성을 너는 아직 알지 못할 것이다."

"저만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삼세제불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불성이 공하기 때문이지요."

도신 대사는 그를 출가시켜 가르쳐 나중에 의발을 전해 5조를 삼았다.

불교의 특색 가운데 하나가 전생의 인연을 자주 설해왔다는 점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도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설한 본생담(本生譚: Jataka)이 있다. 말하자면 초역사적인 이야기가 수없이 설해지고 있다. 5조 홍인 대사의 전생 이야기인 재송도인의 설화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이다. 마치 기독교의 예수가 마리아 동정에서 태어난 것과 비슷한 이야기다.

달마 대사의 이야기에는 부활 이야기도 있다. 독을 마시고 죽은(일설에는 독살설) 달마 대사의 시신을 땅에 묻은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달마 대사가 지팡이에 짚신 한 짝을 꿰어 메고 총령을 넘어가는 것을 한 관리가 보았다. 이 관리가 확인 차 무덤을 파 헤쳤을 때 시신이 없어졌더라는 것이다.

홍인 대사의 선사상을 요약해 말할 때 본래의 진심을 지키는 '수본진심(守本眞心)' 이라고 한다. 그는 문하의 제자들에게 말했다.

"나는 그대들이 스스로 본심이 바로 부처인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까닭에 그대들에게 간절히 권하기를 천경만론(千經萬論)이 각자의 본래 진심을 지키는 것(守本眞心)만 못하다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는 스승 도신 대사의 '수일불이(守一不移)' 를 실천적인 면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이라고 후대 사람들은 보고 있다.

일체 존재의 근원, 바로 마음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⑤분별과 마음

6조 혜능 선사가 남악회양 선사에게 말했습니다. 인도의 반야다라 존자가 예언하기를, "네 발 아래에서 말 한 마리가 나와서는 천하 사람들을 발길질로 차 죽이리라"고 하였는데, 이 역시 마조 선사가 천하 사람들의 분별망념을 없애버리고 깨달음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마조 선사가 상당(上堂)하여 말했습니다.

"대중들이여, 각자 자신의 마음이 부처이며, 이 마음 그대로가 바로 부처라는 사실을 확신하라. 남천축국에서 온 달마 대사는 이 땅에 상승(上乘)의 일심법(一心法) 만을 전해 주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또한 〈능가경〉을 인용하여 중생의 마음을 밝혀 놓은 것은, 사람들이 이 일심법을 믿지 않을까 염려해서이다. 경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을 근본으로 한다. 부처가 말한 마음을 근본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처가 말한 마음 그 자체가 바로 부처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즉, 이 마음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가 말한 마음을 근본으로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자네가 혹시 마음을 알고 싶다고 말한다면, 지금 바로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네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바로 부처라고 일컫는 것이며, 또한 실상법신불(實相法身佛)이며, 도라고도 일컫는 것이다. 자네의 심성 그것은 본래부터 부처였으므로, 그 외에 달리 부처를 구하지 말라! 자네 자신이 이미 금강정(金剛定)에 있으니, 일부러 마음을 모아 선정에 들어갈 필요도 없다. 설령 마음을 모으는 일에 능숙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구극(究極)의 길은 아닌 것이다."

마조 선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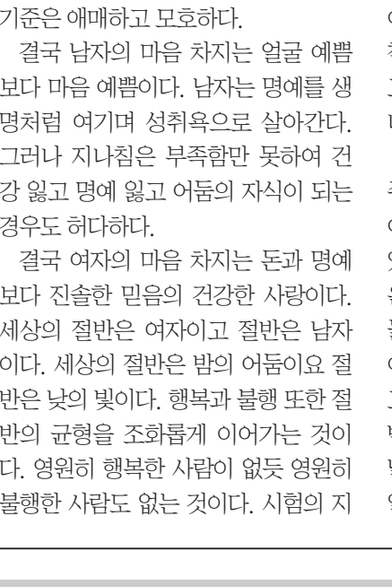
"눈에 보이는 일체의 대상(對象)은 모두 마음이 드러나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눈으로 대상을 볼 때 그것은 모두 마음을 보고 있는 것이다. 마음은 그 자체만으로는 마음일 수 없으며 아무런 의미도 없다. 대상과 더불어 비로소 그 의미를 갖게 되며, 대상과 관계 맺을 때에만 마음일 수 있다. 대상 또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대상일 수 없으며, 마음과 더불어 그 의미를 갖게 되며, 마음과 관계 맺을 때에만 대상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에도 대상을 보는 것은 곧 마음을 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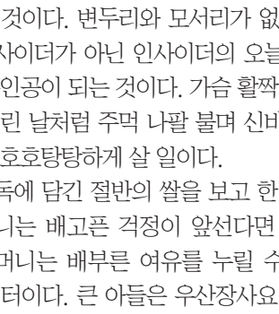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무엇 하나라도 스스로 있지 못하고 다만 대상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실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가락은 스스로 자신을 만질 수가 없어서 대상을 만지며, 칼은 스스로 자신을 자를 수 없어서 대상을 자르며, 눈은 스스로 자신을 볼 수 없어서 대상을 보며, 귀는 스스로 자신을 들을 수 없어서 대상인 소리를 듣습니다. 눈이 대상인 책을 볼 때 눈이 없으면 책이 없고, 책이 없으면 눈 또한 없습니다. 그러므로 책은 눈으로 인해 있고, 책은 눈으로 인하여 있습니다. 눈은 스스로 있지 못하고 책으로 인하여 있으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책 또한 스스로 있지 못하고 눈으로 인하여 있으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책은 눈으로 인하여 없기 때문에 눈은 없는 것도 아니고 책 또한 없는 것도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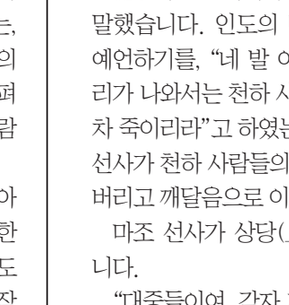
우주의 일체 존재가 이와 같이 있음과 없음에 속하지 않고 있음과 없음을 떠나 있지만, 우리들은 있음과 없음에 집착하여 때로는 있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며, 때로는 없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면서 갖가지 분별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티끌 수와 같은 분별의 이분법(二分法)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들의 허망한 생각 속에 존재 할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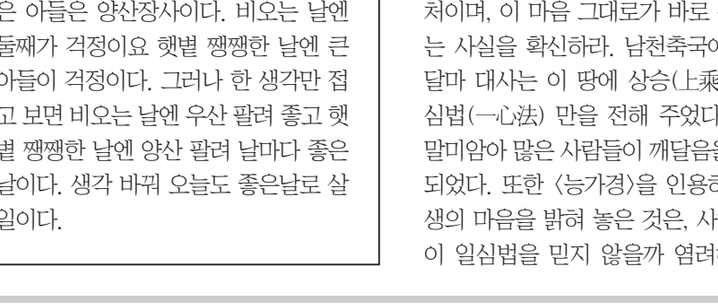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제11기 송강범음범패전승회 수강생 모집

범음범패에 관심있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목 : 49재 의식(평염불), 천수바라, 도량게, 작법무, 사물 다루는 법
■ 장소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미륵당길 70 봉업사 (☎ 031-676-0900)
■ 시간 :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4시(1년 과정)
■ 비용 : 입회비 200,000만원, 수강료 무료
■ 개강일시 : 2017년 3월 3일 오전 9시

특강 법고무 - 문곡스님
성명학 - 삼규스님
태평소 - 시우스님

연락처 ▶ 회 장(관희) 010-8290-6623
강 주(문곡) 010-3727-0870
총 무(진효) 010-5306-0856

송강범음범패전승회 회장 관희 합장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교통사고 · 자살’ 2無 부산 발원

화엄승가회, 1월 20일 생명의 소중함 강조 캠페인

‘교통사고 1위, 자살 1위’ 부산 화엄승가회 스님들 캠페인 나서 매달 20일 지속 실시할 것 “생명 사랑, 부처님 자비 정신”



화엄 승가회는 1월 20일 부산역 광장에서 ‘자살 및 교통사고 없는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캠페인’을 개최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데 앞장섰다.

사회에 봉사하는 스님들의 모임 ‘화엄승가회’(회장 자인)가 생명존중 사상을 확산시키기 위해 추운 겨울 거리로 나섰다.

화엄승가회는 1월 20일 부산역 광장서 ‘자살 및 교통사고 없는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캠페인’을 개최했다. 30여명 회원 스님들이 참여한 이번 캠페인은 교통사고 1위와 자살 1위인 부산의 안타까운 상황을 직시, 생명 존중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시작됐다.

먼저 스님들은 시민들에게 캠페인 안내서를 나눠줬다. 안내서에는 부산이 자살과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운전자와 보행자가 지켜야할 교통 문화 질서와 더불어 자살 예견 신호와 대처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방안을 제시했다.

시민들은 이렇게 많은 스님들을 거리에서 만난 것도 이례적이지만, 스님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선교행위가 아닌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더욱 좋다고 했다.

김정임(54 · 연산동) 씨는 “기독교인들이 거리에서 전도하는 경우는 많이 봤지만 스님들을 거리에서 뵙는 것은 새로웠다”며 “부산이 자살과 교통사고율이 높은지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알게 됐다. 스님들의 캠페인을 통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최순옥(33 · 가야동) 씨는 “스님들께서 하는 캠페인은 종교색이 안 나서 좋다”며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위해 걱정하는 마음이 전달되어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고 전했다.

캠페인에 나선 스님들은 생명 존중의 사회로 거듭나 더욱 행복한 부산이 되길 발원했다. 또한 이번 활동을 일회성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매달 20일 오후 3시 거리 캠페인을 펼쳐 나갈 것을 천명했다.

회장 자인 스님은 “불교는 생명을 존중하는 종교다. 새해부터 이렇게 부산역에 나온 것은 불살생의 중요성을 알릴 뿐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부산을 만드는데 일조하기 위함”이라며 “추운 겨울이지만 1명의 시민이라도 더 가깝게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오늘 만난 모든 시민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했다.

화엄승가회는 2015년 3월 창립됐다. 창립 후 매달 부산대불련에 지원금을 전달해 인재불사에 앞장서 왔으며 지역 포교를 위한 다양한 방법도 시도하고 있다.

한편 화엄승가회는 1월 24일 부산포교사단(단장 이승표)과 함께 부산 부전동에서 자비의 연탄나눔도 진행했다. 스님들은 직접 연탄을 배달하며 소외된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발원했다.

하성미 기자



용호복지관, 2017 설맞이 사랑나눔 한마당

위드아시아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1월 24일 복지관 내 2층 강당에서 ‘2017년 설맞이 사랑나눔 한마당’을 개최했다.〈사진〉 사랑나눔 한마당은 지난해 도움을 준 내빈들과 봉사자, 그리고 지역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행복한 새해를 발원하는 자리다.

행사는 흥겨운 축하무대로 문을 열었다. 이어 용호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세배인사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했으며 내빈들의 세배도 진행됐다. 참가한 어르신들은 설맞이 떡국거리 및 생필품 선물박스를 전달받았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모두 복지관 직원들이 직접 배달할 계획이다. 이번 새해선물은 자소득가정과 독거노인, 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정 등 총 400세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춘성 관장은 “경기침체 속에서도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따뜻한 설날을 맞이하게 됐다. 떡국거리 및 생필품을 지원해주신 많은 후원자들의 힘이 모여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은 지역사회 곳곳에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하성미 기자

정여 스님 특별법문 ‘행복에 이르는 길’

2월 15일 오후 2시 국제신문 4층 대강당

수행의 길을 되짚어 보며 회향하는 특별한 법석이 마련된다.

여여선원장 정여 스님은 2월 15일 오후 2시 국제신문 대강당 4층에서 ‘행복에 이르는 길’ 특별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법회는 정여 스님이 올해 봉암사에서 동안거를 회향하며 재가자들을 위해 여는 법석으로, 정여 스님의 수행 여정을 돌아보는 자리라 의미가 깊다.

여여선원 측은 “70년 스님의 삶을 되짚어보며 불자들을 위해 회향하는 법석”이라며 “또한 결사의 현장이었던 봉암사에서 이번 동안거를 성만하셨다. 수행의 결과로 얻은 행복의 길을 직접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관심을 독려했다.

세상을 향기롭게 대표인 정여 스님은 2008년 범어사 주지를 역임했다. 북한 어린이 신발 지원 사업을 영위하는 참여불교운동 본부 이사장, 북한 어린이 생필품 및 신발 보내기 사업의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독거노인 무료급식소 민들레자비원 등을 운영하며 자비나눔으로 회향의 삶을 실천해왔다. 2011년 (사)세상을향기롭게를 개설하고 UN기구를 통해 아프리카 대륙 어린이 급식지원 및 난민구호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나눔실천승가회 백혈병 어린이 후원

1월 23일 후원금 전달

대한국불교조계종 나눔실천승가회(회장 성보)는 1월 23일 마선 내서읍에 위치한 총본산 불광사에서 ‘사랑실은 교통봉사대(지대장 홍의주)’ 측에 백혈병 어린이 돕기 후원금을 전달했다.〈사진〉

회장 성보 스님은 “따뜻한 마음으로 모인 성금을 전달함으로써 한해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부처님 자비를 실천한다”며 “나눔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가장 숭고한 길”이라고 밝혔다.

나눔실천승가회는 매년 설 · 추석 명절을 맞아 백혈병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창원불교聯, 자비나눔으로 새해 출발

1월 23일 제27회 이웃사랑 자비나눔 한마당


창원불교연합회는 1월 23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제27회 이웃사랑 자비나눔 한마당’을 봉행하고 자비나눔실천으로 한해의 시작을 알렸다.

매년 ‘이웃사랑 자비나눔’으로 새해 시작을 알리는 창원불교연합회(회장 도홍)의 자비행이 올해도 이어졌다.

창원불교연합회는 1월 23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제27회 이웃사랑 자비나눔 한마당’을 봉행했다. 이날 창원불교연합회는 저소득 한부모가정과 모범 청소년, 다문화 가정, 독거 어르신, 시각장애인협회에 성금 5,000만원을 전달하고 떡국떡과 통조림 등 설 용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창원불교연합회 회장 도홍 스님을 비롯해 상임고문 지태 스님, 원행 스님, 고문 원종 스님 등 연합회 소속 스님들이 참가해 2017년 한 해 건강과 행복을 발원했다. 아울러 홍명대(사)금강자비회 이사장을 비롯해 각 신행단체 대표 안상수 창원시장, 노회찬 국회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회장 도홍 스님은 “상생과 자비 나눔으로 일구는 불국토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창원불교가 될 것”이라며 “108만 창원 시민의 즐거움과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손을 맞잡는 이웃으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매년 자비나눔 행사에 동참 및 후원하는 금강자비회를 대표해 홍명대 이사장은 “우리나라 불교 정신은 바로 자비 실천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육바라밀 실천 가운데 보시 바라밀이 으뜸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천행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웃사랑 자비 나눔 한마당’은 27년 전 마창불교연합회(마산 · 창원불교연합회)가 창립한 직후 바로 시작됐다. 당시 마창불교연합회 초대 회장 지안 스님(통도사 반야암 주석, 서울불학승가대학원장)의 발원으로 연합회를 만들고, 뜻있는 불자들이 마음을 모아 나눔을 실천하게 됐다. 현재까지 나눔한 성금은 올해를 포함 총 8억2,000만원이다. 하성미 기자

대원불교조계종 비로암 대웅전 재개원식

1월 22일 주지 진산식도



대원불교조계종 비로암(주지 월오, 대원불교조계종 감찰원장) 대웅전 재개원식 및 주지 진산식이 1월 22일 열렸다.〈사진〉 이날 자리엔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 총무원장 혜오 스님, 청송문도회장 법현 스님, 이종희 양산시의원, 전종호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삼귀의, 반야심경, 고불문, 축사, 발원문, 사홍서원 등 순으로 봉행됐다.

청봉 스님은 축사에서 “사부대중이 비로암의 발전을 위해 일심으로 활동하고, 월오 스님을 돕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사무량심으로 아이들 심성 변화를”

호남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연화유치원장 명진 스님

지난 1월 3일 광주광역시 성도재일 연합법회에서 축하공연으로 나선 유치원생들의 전통춤이 큰 인기를 끌었다. 여느 아이돌그룹 못지않은 아름다운 군무는 법회에 참석한 어른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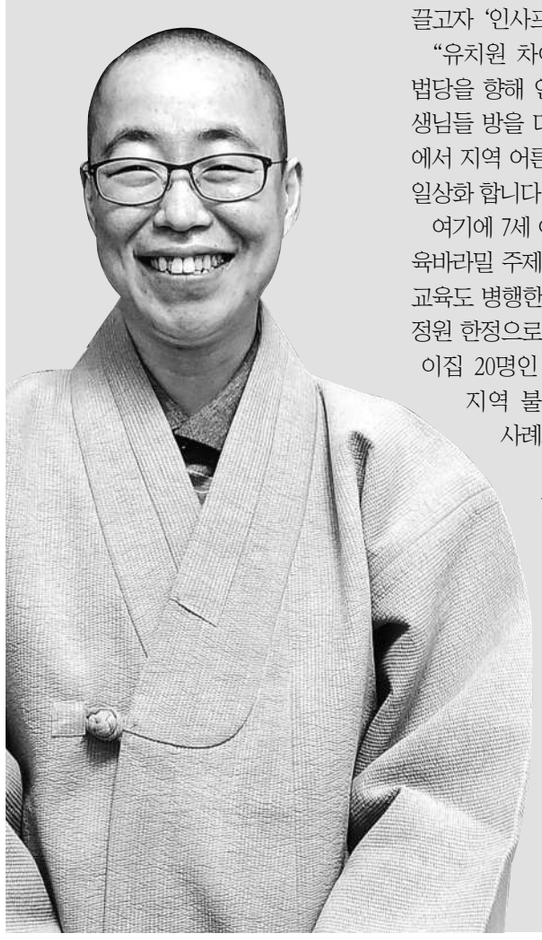
이날 전통부채춤과 사물놀이 등 공연을 선보인 단체는 광주 지산동 연화사에서 운영하는 연화유치원이다. 연화유치원은 광주고등법원과 조선대학교 사이에 있는 연화사 부설 유치원으로 1979년 개원했다. 이후 1,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역사 깊은 유아교육시설이다.

원장 명진 스님〈사진〉은 제6대 원장으로 부임한 후 4년 동안 지역의 우수 유치원으로 성장시킨 장본인이다.

“집은 있으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매뉴얼이 없었어요. 4년간 모든 행정업무를 직접 익혀야 했습니다.”

스님의 말처럼 연화유치원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었으나 명진 스님이 원장으로 부임했을 때는 행정적 어려움을 겪었다.

연화유치원이 있는 연화사는 주지 명신 스님의 원력으로 광주에서 큰 활동을 하고 있는 비구니 사찰 중 하나다. 특이한 것은 유치원 설립을 먼저 한 후 사찰 창건을 진행할 정도로 유아교육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에는 인근지역 유일한 유치원으로 2학급 80명으로 시작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변하면서 어려운 여건에 봉착했다. 이는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 지역불교가 급속히 퇴보하는 시절과 궤를 같이 한다. 하지만 명진 스님이 오면서 제2의 도약기가 시작됐다.

“가장 시급한 것은 ‘불교유치원이 어떻게 서양교육체계인 유아교육에 스며들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이후 역사와 전통문화를 도입, 불교의 다양한 형태를 교육하기 위해 ‘숲과 명상’을 중요한 주제로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갔다. 그리고 사찰에서 1박2일 캠프, 법당에서 보물찾기, 불교문화와 친해지는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스님들은 숲과 명상, 다례에 대한 교육을 맡았다.

명진 스님은 이전부터 동국대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불국사, 동국대 부속 유치원 등 어린이 포교만 10년간 진행한 베테랑이다. 이런 베테랑의 진면목이 여기서 나온 것이다.

명진 스님은 전체 교직원들의 마인드를 바꾸고자 불교적 가치관인 사무량심(四無量心)을 갖고 교육을 시작했다. 그리고 아이들의 심성변화를 이끌고자 ‘인사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유치원 차에서 아이들이 내리면 법당을 향해 인사하고, 원장스님, 선생님들 방을 다니며 인사 나누기, 숲에서 지역 어른들에게 인사 나누기를 일상화 합니다.”

여기에 7세 아동들에게 방송활동과 육바라밀 주제로 철학놀이 등 특성화 교육도 병행한다. 관계기관의 학급과 정원 한정으로 현재 3학급 80명, 어린이집 20명인 연화유치원은 어느덧 지역 불교계에서도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다.

이런 많은 일들을 진행한 명진 스님에게 유아포교의 필요성을 물었다. 스님의 답은 명료했다.

“부처님 밥을 먹으면 밥값을 해야지요. 이미 어른 스님들이 집을 지었으니 살리는 것이 도리입니다. 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베트남에 전한 감로수의 희망

전북 마하연불교승가회, 초등학교 식수대 설치



베트남 초등학교 식수 지원을 위해 방문한 진성 스님이 학교 관계자들과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지역 태고종 스님들의 승가공동체인 전북 마하연불교승가회(회장 승천, 정읍 일광사 주지)가 베트남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식수대와 최고 사양의 정수기를 설치한다.

마하연승가회 나눔봉사단 상임이사 진성 스님(마이산 탑사 주지)은 1월 13일 베트남 호치민 구찌구 탄 텅호이 초등학교를 방문해 웬방썬 교장, 교사와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수기 설치와 식수대 공사 협약을 체결하고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전북 마하연승가회는 탄 텅호이 초등학교에 한국산 정수기 6대를 설치하고, 10평 규모의 식수대를 건립하게 된다. 식수대는 탄 텅호이 초등학교 급식소와 교실 사이에 새로 건축한다. 비용은 최고급 사양의 한국산 정수기 6대와 물탱크, 식수대 공사비를 포함해 약 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성 스님은 기공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1991년 한국과 베트남 수교이후 양국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으로 베트남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 아름다운 교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어린이는 어느 나라나 미래의 희망이다”라며 “어린이들이 부처님의 감로수와 같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웬방썬 교장은 “멀고도 먼 이곳을 찾아준 한국 태고종 마하연승가회 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설치한 정수기를 통해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게 돼 학생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그는 또 “우리 학생들은 고마움을 항상 간직하면서 열심히 공부해 나라의 재목으로 성장할 것이다. 베트남과 한국의 우호를 위해 헌신하도록 가르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하연승가회 나눔봉사단은 지난해에도 구찌구 탄 텅호이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 총 566명 중 150명의 불우학생을 선발, 필기도구, 가방 등을 전달하고 학생들의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봉축율동 보급 나선 광주불교계

광주불교聯 율동강습회 사찰 100곳 방문 예정


1월 21일 광주불교회관서 열린 2017빛고을관등회 율동강습회.

2017년 광주 봉축행사의 흥겨움을 더할 율동 보급이 시작됐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1월 21일 광주불교회관 2층 법당에서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인 ‘2017년 빛고을관등회 율동강습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율동보급에 나섰다. 이날 강습회는 각 사찰과 단체의 연희단과 사찰 율동보급자, 빛고을관등회 율동리더 등 30여 명의 수강생들이 참여했다.

행사를 준비한 광주불교연합회 연희기획단(단장 일명, 신광사 주지)은 서울연등회의 율동을 지원받아 △1등단 벗이어오라(감로사~법림사) △2등단 환희의 노래(법선사~증심사) △3등단 님이 오신 날(천룡암~화림정사) △전체율동 뱃노래 △어린이율동 · 연등만들기 △청년율동 This is Buddha’s Day 등을 확정하고 첫 율동보급을 시작했다.

일명 스님은 첫 연합 강습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빛고을관등회의 환희와 즐거움을 더할 봉축율동에 많은 신도들이 참여해 부처님의 탄신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각 사찰과 단체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봉축율동을 보급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희기획단은 향후 3개월 동안 보급사업을 시작한다. 먼저 사찰과 단체는 중요한 법회시간을 이용해 강습회를 진행하며, 연희단은 연습시간을 배정해 보급에 나선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8개였던 연희단에 청소년, 군부대 등이 추가로 합류할 예정이다.

특히 봉축행사에 참여하는 100여 곳 사찰을 대상으로 방문강습회 진행과 함께 율동CD 배포, 사찰별 정월 방생법회 때 수송차량에서 봉축행사 영상 시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봉축행사의 중요프로그램을 홍보할 예정이다.

광주불교연합회 총무부장 증현 스님(만경사 주지)은 “지난해 처음 어울림마당을 통해 율동을 시작했다. 행복해하는 신도들 모습이 너무 감격스러웠다. 올해에도 봉축행사가 즐겁고 재미있는 축제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주지역 봉축행사 율동은 광주불교연합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북구 자비암 설맞이 溫情 나눠

관내 100가정에 후원품 전달

광주 북구 자비암(주지 해련)은 1월 23일 설을 앞두고 관내 어려운 이웃 100가정에 100만원 상당 떡국과 김을 전달했다.

올해로 15년째 실시한 자비나눔 행사는 매년 12명의 신도로 구성된 봉사단을 조직, 두암3동사무소를 통해 관내 독거노인과 차상위계층 세대에 전달해왔다.

자비암 주지 해련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분들에게 행복한 미소를 짓게 만드는 일은 결코 어렵고 거창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5년간 봉사단 활동을 하고 있는 박철 회원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뜻 깊고 가슴 따뜻해지는 일이다. 개인적으로 우리사회가 좀 더 따뜻해졌으면 한다”고 참가소감을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일광사, 정읍시청에 자비의 쌀 1000kg

1월 19일, 연꽃봉사회원들과

정읍 일광사(주지 승천)와 일광사 신도들이 설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

일광사 주지 승천 스님과 연꽃신도봉사회원들은 1월 19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김생기 시장에게 자비의 쌀 1,000kg을 전달했다.〈사진〉

승천 스님은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로 어려운 이웃들의 고충이 늘어난 것 같아 안타깝다”며 “불자들의 정성으로 모은 쌀이 이웃들에게 잘 전달돼 설 명절을 지내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생기 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온정 나눔에 앞장서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온정이 꽁꽁 얼어붙은 시장경제를 녹이고, 시민 모두 훈훈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 일광사는 지난해에도 불자들과 함께 자비의 쌀을 정읍시청에 기탁한 바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쳐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심우선원 選佛場


「선불장이란」 부처를 뽑는 장소란 뜻으로 禪門의 宗主인 마조선사로부터 비롯된 말로 본 도량은 20여년간 “돈오견성” 체험을 바탕으로 수행자를 독려, 견성해탈의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벼락치듯 돈오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동정일여, 몽중일여, 숙면일여, 오매일여”**인 깊은 선정삼매를 통해 의정이 독로될 때 비로소 확철대오의 기연이 도래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만법의 근원은 텅빈(空)의 자리에 있고 현대인의 모든 고통과 혼란은 공도리의 무지에서 오는 것으로... 마음이 밝아질 때 비로소 지혜로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침이란 “여실지견”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것으로**(단지 중생의 눈으로 實相을 경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뿐) 그것은 어떤 신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계종의 존경받는 큰 스님으로 고우스님이나 암도스님 같은 분들은 법문중에 자신의 경계를 꼭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좀 의아했으나 시간이 흘러가며 그분들의 진정성에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전에 성철스님은 지해종사(해오자)는 간판을 내려라 하고 경책하였습니다. 깨침이란 자기가 자기를 바로 보는 것으로 올바로 깨치면 그 즉시 열반을 증득, 자기인가(證悟)를 체득하는 것이므로 최상승법을 다루는 일은 절대적 양심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편안하십니까? **여기 선지로 함께 동행하는 깨달음(돈오견성, 해탈열반)체험으로의 여행에 수행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證悟” 왜 올바로 깨치면 自己認可 ‘究竟覺’를 성취하는 것인가 공부하는 모든 분께 도움이 될까하는 마음에 깨달아 가는 전과정을... 특히 깨닫는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계를 또한 깨달은 후에 성성함 “깊은선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험되는 현상경계를 참구자에게 자세히 설해 드립니다.

문의 傳法講主 釋眞性 010-3045-008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112번지 심우선원
☎ 031-255-0066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지혜로운 사람은 나쁜 말을 버리고 바른말을 항상 즐기어 쓰나니 그러한 아름다운 말을 쓰는 사람은 곧 열반을 얻으리라.

– 정법염처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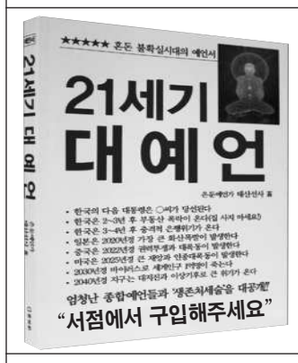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정신질환 상담
우울증, 정신분열, 정신이상, 빙의, 환청, 환시, 간질발작, 정신병원약을 복용하신 분
(상담 및 개인지도)
사주학, 성명학, 빙의퇴마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일단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 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 점안식,
시다림, 구병시식
010-5905-1249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척추교정
비법전수
누구든지 가능
하루교육완성
출장가능
사찰경제에 큰 도움
010-3055-9000

관상 (손금)
– 스님 특별 비법 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묘터,질병,재판,이혼수를 얼굴만 봐도 알수 있다
– 일반인,무속인,철학원,스님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타로 카드 수강
1개월 배우면 상담 가능
(전화. 출장 지도)
전화로 모든 인생고민 상담
* 모든 상담자 확실한 효과
변비환 무료 증정
010-2748-6321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노인 요양 복지시설 사업에 뜻이있으신 분을 기다립니다. 파주시에 있는사찰내 부지 약 1000평 활용 가능함. 꼭 뜻이 있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010-4718-4123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빙의.퇴마.전생체험 수강생 모집 (개인지도)
3개월 과정
교재는 무상 지급함
수업 : 매주 금요일 오후1시~5시까지
세종시 소정면 운당 (대승암)
010-5269-4168

'성명학'과 '도장'으로
월 300~500만원 수입을 창출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연락 주세요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가능
• 수강료 : 직접면담후 결정
강의 : 덕인성명학 연구원 (원장 이상민)
010-4686-3588,
02-562-835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역 2호선 5번출구) 역삼하이츠 905호

30년전 곡성 태안사에서 김천 청암사로 공부하러 떠나신 정윤스님을 찾고 싶습니다
정윤스님께서 광고를 보시면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광주에서 오연아 합장)
010-2349-9941
010-4604-408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김해)
010-3858-9210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양산)
010-8556-0015

부전스님 모십니다
(김해 동림사)
055-337-0001
010-3871-3000

100일 기도할 도량을 찾습니다
(비구 입니다)
010-3288-9406

문두루 기도비법?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이천)
010-3797-0068

천수작법 바라지 하실스님
인연 기다립니다
010-2168-2800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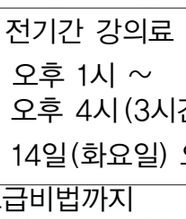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걸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강원,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사찰내외 유무선 마이크 설치전문
일반적으로 중형교회의 경우 5000만원 내외 정도의 음향설비를 합니다. 그러나 대전 한성음향은 노래방기기설치 21년차로 특허도 있고 간략하고도 기성복이 아닌 맞춤옷같은 방법으로 대웅전 음향설비를 평균 200만원대 소형은 100만원대로 교회음향에 준하는 설비를 해 냅니다. 예불과 설법과 천도가 쉽게 할수 있게 설치해 드립니다. 설치된 곳은 강원 인제읍 무애암, 충북 보은읍 만선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대국사, 경북경산 압량면 수안사, 경남창원 진해구 청룡사 등입니다. 문의 바랍니다.
특허등록업소 한성음향 (대전,전국 출장가능)
010-4440-8687

포교원 인수 하실 분
– 비구, 비구니스님
– 초기경전 강의 및 수행지도 가능하신 분
– 사천지역의 다양한 주민들에게 상응할 수 있는 학식과 지식을 갖추신 분
– 반드시 보문정사 주지스님과 면담 후 결정됨
– 소재지 : 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137-8번지 2층 보문정사 포교원
연락처 : 총무 010-5654-2148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자모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大醫王 부처님의 기도치료법을 널리 펴고 싶습니다


총 782P 두권 구입 값 43,600원
입금 확인후 택배비는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 인류최초로 기도치료법을 가르쳐 주신분은 부처님이십니다.
• 이것을 세계 최초 가장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쉽게 배워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 2권의 서적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건강 증진은 물론 포교방편으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1-557-2773, 010-2093-338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협(정보석)

육임 직접강의
대육임, 육임금구결, 주역, 월령도 등을 직접 강의합니다.
육임의 대가 운암스님께서 1:1 직접 강의로 수강 완료 후 즉시 개별 상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 교 수 : 법연정사 운암스님
• 과 목 : 대육임, 육임금구결, 주역, 월령도, 명리, 성명학
• 강의시간 : 1년 과정 (매주 5시간 강의)
• 수 강 료 : 대육임, 육임금구결, 월령도 } 각 60만원
주역, 명리, 성명학 – 각 40만원
• 강의장소 : 법연정사 (경기 구리시 교문동 233-15 2층)
• 연 락 처 : 031)554-3336 010-5931-3319
법연정사 운암 합장

2017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9기 수강생 모집
그동안 제1기에서 제8기까지 전국에서 1,0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9기 수강생부터는 스님과 불심 깊은 불자들에게도 무료로 명리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대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2) 불심 깊은 불자님들
◆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① 교육기간 : 2017년 3월 14일 ~ 9월 26일까지
② 수 강 료 : 6개월 교육 전기간 강의료 무료
③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3시간)
④ 개강일자 : 2017년 3월 14일(화요일) 오후 1시
⑤ 책 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대금 : 20만원 준비)
상담문의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비록 많이 들어 알아도 자기 체험이 없으면 장님이 등불을 들어 남을 밝혀 주면서 자기 앞은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 대장엄론경 -



서울 & 경기 사찰 / 포교원 중개 전문

-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전문적 / 중점적 중개
- 직접 방문을 통한 정확한 권리분석 및 상담
- 전국 매물 수백건 보유/심층상담을 통한 고객 만족 매칭서비스
- 공인중개사로서의 정확한 책임 중개
- 서울&경기 지역 매물 접수처(H.P 010-3426-9393, 카카오톡: hyeonjong01)

서울.경기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 44 101호 / www.010-3426-9393.com

010-3426-9393 / 070-8145-9393

예천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인법당. 요사채 94㎡, 토지 443㎡
- 마을 사찰. 운영 잘되고 위치 좋음. 주차 가능함
- 양도가액 : 1억1천만원(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 (대표 : 이규철)

■ 비밀보장. 방문접수.전국사찰. 암자 급히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 (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위치 : 신도시 포교원
◎ 부지 : 600평 ◎ 번화 중심가
◎ 법당 : 40평 ◎ 법당 : 60평
◎ 요사 : 120평 ◎ 요사 : 30평
◎ 양도가 : 협의 ◎ 양도가 : 10억 8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
- 총부지 : 183평
- 건물 : 60평, 법당, 요사채(방 4개), 화장실2개
- 정원,주차장 위치 좋은 암자
- 양도 : 몽땅 2억 2천

010-2595-7752 전무

주소: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504호(만덕동 302 다산타워)

사찰(급)안내

- 충북 단양 암자 양도
- 토지 4400㎡. 건물면적 76㎡
- 주변산,민가없음,앞은 확 트임
- 포장도로 접, 조용한 암자나 토굴
- 가액 : 2억 8천만원(융자가능)

010-7347-1010(사찰전문)

서울에서 접수. 상담.안내가능합니다

(원주 이박사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 동해 앞바다 (전망좋음)
- 해수관음 도량(7자)
- 대지 230평
- 1층 요사채, 2층법당
- 가액 : 몽땅 4억 3천
- 몸만오시면 됩니다

부동산사절

010-7441-234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기장
- 평수 40평, 3층 건물중 2층
- 교통 위치좋음
- 스님 건강상
- 가액 : 보 2,000만원 월 35만원 시설일체 500만원

010-8517-2357

삼 보 사 찰 안 내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포교원	
● 위 치 : 서울	● 위 치 : 경기		● 위 치 : 안양
● 대 지 : 120평	● 대 지 : 400평		● 총 평 : 65평
● 법 당 : 25평	● 법 당 : 30평		● 법 당 : 25평
● 요 사 : 30평	● 요 사 : 25평		● 요 사 : 40,방3개
● 양도액 : 12억	● 가 액 : 6억5천		● 시설비 약간,시설 굿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경매상담, 부동산 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량물건 보유 언제든 전화주시면 성실 안내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성지 금정산 등산로접
- 토지: 600여평 점유, 해발300m
- 건물: 법당10여평, 창건80년
- 주지실, 요사채(건축물 대장)
- 기적같은 산신기도 암자
- 약수터, 주말 등산객 많음
- 가액 : 몽땅 2억 5천만원

010-9906-3631 혜관

주소: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504호(만덕동 302 다산타워)

여항산 사찰 안내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 주서리 943 외 5필지 부동산 현황
- 가) 토지 : 654평(종교용지, 답, 임)
  나) 건물 : (대웅전 23평, 신영각 3.4평, 요사 27평 등)
- 가액 : 15억

010-6667-4753
010-3852-2576

사 찰 안 내

(시세이하 급 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하북면 소재
- 임야 : 종교부지 합 15,000평 (종교부지내에 개인부지 포함) 건물 1동 (약 70평)
- 터는 명당자리(좌백호, 우청룡), 토목공사 진행중
- 가격 협의 가능(현지답사후 협의 요망)

010-8014-7707
010-3832-7157

사찰(급)안내

- 위치 : 밀양시 단장면
- 854평, 산신각, 요사채
- 방 14개, 경치 최고
- 사찰 겸 고시원, 건강원 최적지
- 가액 : 7억

010-6763-8866

경기도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지하철역10분거리 아파트단지 밀집지역내 상가
- 5층 297.5㎡(약 90평)
- 방3실, 법당, 주방 등
- 가액 : 4억3천만원

010-3426-9393(포교원전문)

070-8154-939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1동 신정시장 부근
- 평수 30평, 2층 독채, 큰방 3개, 거실, 욕실 주방
- 편백나무 리모델링, 급한사정
- 위치 좋음, 교통도 좋음
- 삼존불, 석가모니, 약사여래, 관세음보살
- 후불탱화, 용왕, 산신, 신중
- 가액 : 전세 1,000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금액은 1000만원

010-9902-396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200평, 건평 40평, 법당, 요사채, 방 3개
- 친견실, 공양간, 샤워화장실 2개 밖에 남녀화장실, 산신각, 용왕 연못 등 시설 일체 방문 요망
- 가액 : 2억 5천 8백만원
- 급 양도

010-5427-3699

부산경남사찰전문

'사찰직방' 울산경주포함

- 네이버 - 블로그에서 "부산경남사찰매매" 치셔서 사찰 양도, 임대하실 분, 구하시는 분 연락주세요

busansachal@naver.com

010-6838-3140 최이사

부산 연제구 연산동 365-1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도심권) 큰사찰
- 2,700평, 대웅전, 요사채 등
- 계약 후 잔금은 담보 대출 지불 가능
- 가액 : 60억. 자세한 내용은 상담후 답사 및 절충 가능 꼭 하실 분만 상담 가능 수고비는 무상보시

010-7735-513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요지
- 1층 공양간 35평
  2층 법당 50평
- 가액 : 전 1,500만, 월 80만
  시설비 절충

010-3112-0480

사찰(급)안내

- 위치 : 창녕 IC에서 10분거리
- 건물 3동, 대지 197평
- 법당, 삼존불 외 소불 150불
- 방 4개, 공양간, 화장실
- 가액 : 1억 4천만원 (융자 2천 5백만원 있음)
- 몸만 오시면 됨

010-3753-7844

사찰 하실 분

- 위치 : 충남 부여군 은산면 부여 IC 5분거리
- 대지 200평
- 건평 77평(등기면적) (40평 별도 공간)
- 임야 155평 산속별장(다용도 사용가능)
- 가액 : 3억 7천

010-5398-252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음성 생극면
- 대지 513평, 법당 외 4동
- 계획관리 전망좋음
- 가액 : 1억 7천

010-6341-3477

사찰 부지 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대병면 유전리 소재
- 부지 : 666평중 사찰부지 조성 210평
- 건물 : 부지조성한 아래 종전 가든한 건물 3동, 32평1동 25평2동
- 특징: 철쭉꽃이 유명한 황매산 주령 아래 가든한 곳 건물 3동 위 산밑 210평, 사찰부지로 조성 연못지하수 1급수 면소재지 2~3분거리 합천읍 20분 영화테마파크 10분거리
- 현재 울산-함양간 고속도로건설중 대병IC 5㎞ 이내 국토변에 위치한 명당자리
- 사찰 연수원 팬션 가든
- 가액 : 4억 최저가액(대출금 있음)

주인직 055)933-4887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기반 VIP

※ ㅈ ˘ㄲ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당신도 명리학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주를 풀어주기 위해 명리학을 공부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본 책자는 초보도 만세력에서 일주만 찾으면 성격 및 당해년 운세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포교를 하다보면 제가자들이 많은 것을 물어오는데 부록편에서는 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 우혜안 -



정가 : 90,000원
발행인 : 초암사 주지 혜안 스님
주문처 : 초암사 043-215-1569
010-9405-8186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내수읍 초정길 156-9)
입금계좌 : 농협 317-02-322143 (우복진)



美 성소수자, 불교 개종 증가 "차별 없어 좋다"

애틀랜타 내 불교센터 2곳, 성소수자 커뮤니티 활발

보수성향이 짙고 기독교인 비율이 높은 미국 남부서 불교로 개종하는 성소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에 불자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지역 불교센터도 많아지는 추세다.

미국 격주 신문 'GEORGIAVOICE'는 1월 19일(현지시간) 조지아주 북서부 애틀랜타 시내 불교센터서 활동이 활발한 성소수자 커뮤니티 2곳을 소개하고, 성소수자들이 불교에 의지하게 된 사연을 소개했다.

먼저 애틀랜타 교외 주택도시 디케이터에 위치한 '애틀랜타 샴발라 불교센터(이하 샴발라 센터)'는 매월 1회 성소수자 모임을 개최하고 △명상수련 △다르마 회의 △그룹상담 등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에드윈 애셔트 샴발라센터 성소수자 대표는 샴발라 센터 내 성소수자 모임을 결성한 이유로 '공감대 형성'을 꼽았다. 그는 "단지 성소수자를 배척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이곳에 모인 성소수자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한다"며 "이에 5년 전부터 본격적인 모임을 주최하고 그룹상담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애셔트 대표에 따르면 모임은 유년기 성정체성으로 인해 불안정한 경험을 한 이들을 적극 수용하고 명상치료에 돌입해 유명세를 얻었다. 특히 엄격한 남부 침례교도 가정서 자란 애셔트 대표 자신이 유년시절 아픔의 치료 방법으로 불교를 선택, 상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내 어린 시절은 기독교 교리와 성정체성을 합치시키려 노력하는 혹독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나는 성경 구절을 엄격한 사실로 믿으면서 자랐지만 결국 성경 구절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었지요. 반면 불교 경전 구절은 구구절절 이해가 쉽고 합리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연결된 존재라는 가르침이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내 성소수자 불자 늘어
대부분 기독교 배척 경험有
'차별 않는 불교'서 희망 발견
지역 불교센터 활동 적극 동참

또한 샴발라 센터서 불교 교리를 가르치는 샐리 래릭 부위원장은 불교는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단 점이 많은 성소수자들을 끌어 모으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불교커뮤니티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이곳 센터엔 많은 성소수자들이 방문하며 이는 절대 부정적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서 성정체성으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고가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방출하라고 알려줍니다. 이런 수행법은 주위 사람들과 관계도 더 여유롭게 만들어주고, 스스로를 대하는 생각도 관대하게 해줍니다."

래릭과 애셔트는 샴발라 센터를 다니는 모두가 꼭 불자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애셔트는 "우리 센터는 인류애에 관한 보편적인 가르침을 설파한다"며 "태어난 모습 그대로 불성을 지닌 존재란 사실을 알리고 보편적 선을 펼치기 위해 계속 모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교인 비율이 높은 미국 남부서 불교로 개종하는 성소수자들이 늘어나고, 불자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지역 불교센터도 많아지는 추세다. 사진출처=lovelaughveggies.com

보편적 인류애와 불성을 설파하는 또 하나의 성소수자 모임은 '창가학회불교센터'서 열린다. 애틀랜타 시내 17번가에 위치한 창가학회불교센터는 매주 수요일 진행하는 성소수자 모임을 통해 △불교 교리 공부 △지역사회 화합 회의 △염불 · 명상 수련 등 제공한다.

센터 이용자 로키 캐럴은 기독교에 대한 흥미를 잃은 후 귀의할 종교가 필요한 상황서 지난해 4월 창가학회불교센터를 발견하고 매주 집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캐럴 씨가 내세운 가장 큰 불교 교리의 매력은 '개방성'이다.

"센터 멤버들과 모여 공부하는 시간에 게이바에서 일한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멋진데요!' 하는 겁니다. 눈 깜짝 하지 않으면서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해줘 감동했습니다."

캐럴 씨는 "감리교도 가정서 자라면서 자기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던 아픈 기억이 남아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불자로 살면서 불교 교리가 일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을 믿고 있다.

"불교는 제게 상황서 한 걸음 물러나 논리 · 이성적으로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가르침을 줬습니다. 다른 분야에 얽매여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되니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쉬워졌습니다. 불교센터는 내 인생 최초로 남들로부터 버림받았다거나 외로운 기분이 들지 않게 해준 공간입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 필사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수련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불교학자가 된 신부의 실화 영화 '사일런스'

마틴 스콜세지 감독 신작, 2월 22일 국내 대개봉



영화 '사일런스' 공식 포스터.

선불교로 개종한 어느 신부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사일런스'가 곧 한국서 개봉한다.

세계적 거장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신작 '사일런스'는 17세기 포르투칼 출신 가톨릭 예수회 신부 크리스토바오 페레이라 선교사 이야기를 담은 대서사 드라마다. 이 작품은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됐던 거장 엔도 슈사쿠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소설을 읽은 후 영화화를 구상했다. 1980년대 후반 각색을 시작해 15년 만에 시나리오를 완성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앤드류 가필드, 리암 니슨, 아담 드라이버가 열연을 펼쳐 더욱 화제다.

실종된 스승을 찾고 복음을 전파하려 일본으로 떠난 크리스토바오 페레이라는 천주교 박해가 한창이던 일본서 처참한 광경을 목도한 후 충격에 빠진다. 온갖 핍박 속에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신은 고통의 순간에 어디에 계시는가'란 고민에 빠진다.

이후 크리스토바오 페레이라는 파격적인 행보를 나타낸다. 1636년 책 〈기만의 폭로〉를 통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가톨릭교회를 강력하게 비판, 선불교로 개종한 뒤 불교학자가 된다. 페레이라 신부의 이야기는 현재까지도 가톨릭 역사상 가장 큰 파문을 일으킨 사건으로 구전된다.

한편 사일런스는 2016년 전미비평가협회 각색상을 수상하고 2017년 아카데미 주요 부문 유력후보로 거론될만큼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2월 22일 국내 개봉한다.

박아름 기자

태국 '파계승 블랙리스트' 작성 초읽기

1월 18일 분셰드 키띠타랑쿤 상가 최고위원장 발표

태국 당국이 범법을 저지른 파계승들을 단속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 계획을 발표했다.

태국 언론 'CHIANGRAI TIMES'는 1월 18일(현지시간) "분셰드 키띠타랑쿤 상가 최고위원장이 태국 불교 사무소(The National Office of Buddhism)가 파계승 블랙리스트를 작성할 계획임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CHIANGRAI TIMES'에 따르면 분셰드 최고위원장은 "범죄를 저지르고 쫓겨 난 승려가 교묘히 승복을 입고 돌아다니며 똑같은 비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겠다"며 "파계승 정보를 블랙리스트로 작성하고,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국 불교 사무소는 각 승려에 대한 정보가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면 경찰이 파계승을 적발하는 데 최고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구족계 수지를 앞둔 승려는 반드시 중앙 데이터베이스 확인 작업을 거치도록 법안을 제정, 중앙 및 지방 불교사무소가 정식 승려를 임명하는 단계부터 파계승을 철저히 단속한단 의지를 내세웠다.

이에 관해 전문가들은 "파계승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당국의 조치를 환영한다"면서 해외 파계승 단속 문제도 제기하는 등 보완책을 제안했다.


분셰드 키띠타랑쿤 상가 최고위원장이 태국 불교 사무소(The National Office of Buddhism)가 파계승 블랙리스트를 작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사진출처=CHIANGRAI TIMES

프리챠 페름파라싯 불교학 겸임교수는 "현재 태국엔 29만 명이 넘는 스님과 60명의 사미승, 39,883개 사찰이 있다. 파계승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범죄를 저지른 승려들을 관리한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며 "다만 해외서 파계된 승려들도 이 리스트에 올라야 더욱 완벽한 제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태국 승가법에 승려는 △성관계 문제 △절도 △살인 △미신행위 등을 저질렀을 경우 승려직을 박탈당한다고 명시됐다.

이승희 기자

"화장으로 행복 전하고 싶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일본 스님 '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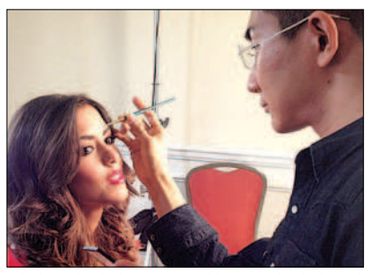
스님들은 화려한 삶을 살기보다는 금욕적인 방식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도쿄 출신의 코도 니시무라 스님(26)은 성직자로서, 또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화려하면서도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

니시무라 스님은 자신이 해준 화장으로 상대방이 행복해 하는 것을 보고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길을 걷기로 했다.

그의 고객 명단에는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회(2014년 우승자 포함) 참가자들과 수많은 패션쇼 모델들이 포함되어 있다.

니시무라 스님은 "스님이 관심을 끌기 위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나의 스승은 사람들에게 불교적 메시지만 전달하는데 도움만 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조언하셨다"고 말했다.

니시무라 스님은 불교 수행 외에도 일본에서 유명한 동성애 커뮤니티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트렌스젠더 모델들의 사진 촬영 후 무료로 화장을 다시 고쳐주거나, 화장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 성소수자들을 위해 무료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로도 활동 중인 니시무라 스님(사진 오른쪽). 사진출처=코도 니시무라 인스타그램

니시무라 스님은 "'Out in Japan' 사진 촬영에 참여했을 때 많은 트렌스젠더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 중 대부분이 화장에 문외한이었고, 나는 그들을 돕고 싶었다"며 "불교 승려로서 나는 모두가 조화롭고 행복하게 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화장은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행복하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친절을 베풀게 된다"며 "그래서 불교와 화장은 아주 연관이 없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보형 객원기자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치유도 전문가를 만나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 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 마다 가위 눌리는 경우
• 숙면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 심한 경우
•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가정불화, 사고 우환이 계속되는 경우
• 중, 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 행동, 폭력적 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효과 못 보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 천도가능 함.
• 신기운, 무병에 시달리는 경우
• 동물(소,돼지,개,닭,오리,어류 등). 식물(큰나무 베고 탈난 경우) 영가도 천도 가능함.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원격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가능)
• 몸안에 들어온 영가제령, 최고실력 보유 (전국 최고)
상 담 문의처 | 제주 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 전국 어디든 상담환영!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이젠 몸에 좋은 천연방향제가 대세!!
천연 한방방향제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 향이 좋은 생약재를 엄선한 한약 방향제입니다.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향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방향제와는 달리 자연에서 얻은 천연향으로 심신을 안정시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주는 이의 마음처럼 향기로운 동의보향은 오래토록 기억되는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 구매 시 추가로 덤 증정
•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장롱 등
• 규격 : 12*19cm(복주머니), 100g
주문전화 : 010-5607-3313 (062)385-9954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제조원 : 수풀림

靈山齋儀式集
영산재의식집
일승 행원 편저 | 국배판 | 446쪽 | 40,000원
영산재 각 의식마다 소리의 길이와 높낮이 등을 그린 채보를 수록하여, 범패를 배우는 초보자들이 보다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영산재는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던 모습을 재현한 것이라는 설과, 위나라 조식이 천태산에 오르자 범천에서 오묘한 소리가 났고 그 소리에 맞춰 고기떼가 춤을 추자 그 소리를 모방해서 범패를 만들었다는 설이 있다. 영산재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한국 불교의 귀중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전통예술이자 인류가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범패는 구전으로 전승되는 관계로 한 구절을 익히려고 해도 그 소리를 수십 수백 번 반복해서 들어야 하고, 게다가 전승자마다 소리가 조금씩 달라서 범패를 배우기는 매우 어렵다.
이 책은 실제로 저자가 범패를 배우면서 소리를 잊지 않고 익히고 공부하기 위해 한 구절 한 구절 일일이 채보한 것들을 모아 다시 편집한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범패를 배우는 이들이 좀더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익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시련, 대령, 관욕, 조전점안, 신중작법, 괘불이운, 영산작법(상단권공), 식당작법, 운수상단권공, 중단권공, 신중퇴공, 관음시식/전시식, 봉송 및 소대의식까지 의식 내용과 그에 따른 채보를 수록하여 범패 전승의 현대화를 꾀하였다.
불서총판 운주사 02-3672-7181 010-9726-0626 (저자)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의식 확대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박태수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명상은 세상과의 소통 ③



내 존재의 주인 '의식'

최근 신문이나 SNS를 보면 사회에는 남을 칭찬하거나 인정하는 것보다 헐뜯거나 비난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이런 사회의 소식들을 보노라면 왠지 기운이 뚝 떨어진다. 남을 헐뜯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은 사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다. 호킨스(Hawkins, 2012)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기 안에 품고 있는 감정대로 세상을 본다'고 했다. 그는 인간의 의식을 측정할 때 근육의 힘을 테스트하는데, 의식수준 200이하의 부정적인 감정의 자극을 받으면 곧바로 근육의 힘이 빠지고, 200이상의 긍정적인 자극을 받으면 곧바로 근육에 힘이 들어간다고 하였다. 진정한 인간의 힘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을 때 생긴다고 본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힘을 알아차릴 수 있는 의식이 깨어있지 않다는 데 있다.

인간의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식은 이 순간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을 아는 마음이요, 무의식은 내 안에 무엇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마음이다. 호킨스는 인간의 마음을 금붕어가 들어있는 어항에 비유했다. 어항에 들어있는 물은 의식이고, 금붕어는 생각이나 개념이다. 물은 늘 그대로 머물러 있으며, 금붕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비유에서 보듯이 물이라는 의식은 본질적인 것으로서 금붕어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하고 있을 뿐 그대로이다. 여기서 의식은 형상이 없고 내용이 비었기 때문에 형상이 있고 움직이는 생각을 식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마음에는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하는 마음과 이러한 마음을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의식이라는 마음이 있다. 파탄잘리(Patanjali)는 경전 〈요가수트라〉에서 마음을 나무에 앉은 두 마리의 새에 비유하고 있다. 한 마리는 가지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 다른 가지에 앉은 새는 이를 바라보고 있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새는 행동하는 마음이고 이를 바라보는 새는 의식이라는 마음이다. 여기서 의식은 마음이면서도 다른 마음을 바라보는 본질적인 마음이다.

의식은 생각이나 느낌, 행동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알아차린다. 그래서 의식이 깨어있을수록 자신의 생각과 욕망과 꿈, 그리고 자기가 지니고 있는 동기와 질투들을 좀 더 선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다. 의식은 나라고 하는 한 존재의 주인이므로 의식이 깨어있으면 생활 속에서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다. 친구와 음료를 마시고 싶을 때 '커피를 마실까 차를 마실까'로 망설이는 자기 마음을 볼 수 있고, 주말에 아내와 '산엘 갈까 고궁을 갈까' 하고 망설이는 마음을 바라볼 수 있다. 보다 현실적으로는 눈앞의 상황을 판단 분별할 수 있다. 가령 차를 운전하다가 건널목에서 빨간 신호등이 켜지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개인의 의식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행동을 취할 수 있다. 가령 A라는 사람은 빨간 신호등을 보는 순간 멈춘다. B라는 사람은 빨간 신호등을 보고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간다. 그리고 C라는 사람은 빨간 신호등을 보지만 그냥 지나간다. 이 세 사람의 운전의식은 각기 다르다. 빨간 신호등을 보고 멈춰선 A는 평소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한 것은 늘 지키는 사람이다. 빨간 신호등은 '멈춤'이라는 약속이므로 자연스럽게 멈춘다. 앎과 행동이 일치한다. B는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무시하고 지나간다. 가려고 하는 마음이 멈추려고 하는 마음보다 더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법을 무시하는 마음이 작용하여 범법행위를 하게 된다. 그리고 C는 그 순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으므로 빨간 신호등이라고 지각했지만 그 빨간 등에 주의가 가지 않고 하던 생각을 따라감으로써 멈추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의식은 그 순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주는 마음의 변별능력이다.

필자는 아침 운동으로 가까이 있는 나지막한 오름에 올라간다. 한 번은 오름 아래 좁은 길을 걷고 있는데 길 가운데서 한 사람이 체조를 하고 있었다. 비켜달라고 하기도 미안해서 그냥 도랑을 건너 밭으로 갔다가 다시 길로 들어섰다.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내 뒤에 오는 사람들도 나처럼 그렇게 걸어오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여전히 체조를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저 사람의 의식은 어떤 상태일까?'라는 궁금증이 들었다. 그는 개인적으로 자신을 위해 운동을 하니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 길이 여러 사람이 다니는 길인데 남을 생각하지 않고 운동을 함으로써 타인에게는 피해를 준다. 그렇다면 그의 의식은 자기에게 한정지어 있는 셈이다. 인간에게는 육안과 심안이 있다. 육안은 눈을 감지 않는 한 사방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심안은 육안너머까지 볼 수 있는 영적 능력이다.

> 에고 강화될수록 합리적이지만
> 자칫 자기중심적 사고 매몰 위험
> 명상 통해 에고의식서 해방되면
> 의식 수준 높아져 세상과 '조화'

인간의식의 7단계

Ken Wilber(2011)는 인간의 의식을 존재양식에 따라 전개인적(Pre-personal)→개인적(Personal)→초개인적(Trans-personal) 의식으로 나누고 있다. 전개인적인 사람은 아직 한 개인의 존재로서의 자아가 확립되지 않은 허약한 자아상태라고 볼 수 있다. 아직 자기라고 하는 의식이 뚜렷하지 않아서 혼란된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의식상태는 나이와 관계없이 정신적으로 미숙하여 자기에 닫혀있어서 대인관계가 어려워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인 사람은 자아가 발달하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며, 이때가 가장 자기라고 하는 에고가 강할 때이다. 자칫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상태로서 보통 사람들의 의식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초개인적인 수준에 이르면 세상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임을 자각하고 서서히 자기로부터 세상으로 의식이 확대되어 간다. 자기에 묶여있지 않고 자아로부터 해방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인간의 의식을 구분해 본다면, Davis(2000)는 인간의 의식을 7단계로 나누었다. 1단계는 '반의식 상태(Semiconsciousness)'로서 부분적으로 각성된 흐린 상태다. 정신적, 감정적으로 둔하고, 냉담하며, 권태롭고, 자기만족에 빠져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물리적 육체를 진정한 존재로 믿기 때문에 생존 지향적이거나 욕망과 기분에 이끌린 행동을 하기 쉽다. 기억, 습관, 습득된 행동들이 그 사람의 정신적 태도, 행위를 결정한다. 2단계는 '역기능적 자의식(Dysfunctional Self-Consciousness)'으로 정신적 혼란과 심적 갈등상태이다. 자기중심적이고, 망상과 환상이 의식을 흐리게 한다. 자신의 불행에 대해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비난하고, 무책임하다. 잠재의식적 조건들이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 단계의 사람들은 주로 습관에 의한 행동을 한다. 1, 2단계 의식을 가지 사람들은 의식이 깨어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잠재의식에 의해 자신의 행동이 영향을 받는다. 3단계 '기능적 자의식(Functional Self-Consciousness)'에서는 보통 건강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나 여전히 에고 지향적인 의식 상태이다.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능숙하게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자신의 본성에 대한 지성적인 이해보다 개인의 목표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개인의 업적 때문에 자신이 특별하다는 잘못된 관념을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대체로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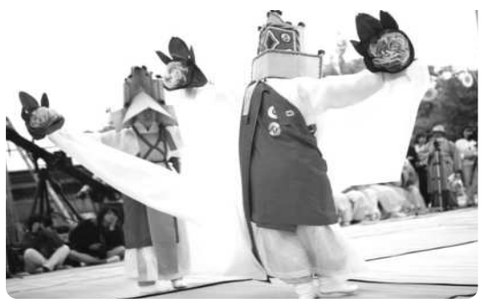
이제 3단계의 수준을 넘어 4단계인 '초의식(Superconsciousness)'에서는 순수한 초의식 상태와 초월적 실상에 대한 인식이 경험될 수 있다. 에고는 감소되고 정화되어 지성의 힘이 향상된다. 일상의 활동과 관계는 조화를 이루며 사랑, 희망, 믿음 그리고 의무에 대한 헌신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후 5단계의 '우주의식(Cosmic Consciousness)'과 6단계의 '신의식(God-Consciousness)', 7단계의 '지고의식의 깨달음(Illumination of Consciousness)'에서는 다루기 힘든 잠재의식적 조건들이 깨달음의 영향으로 약해지면서 명상을 하고 있지 않을 때도 깨달음은 사라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적절한 행위를 취한다. 망상이나 환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식은 세상 비추는 거울

위의 의식수준에서 보았듯이 인간의 삶은 3단계까지는 자기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자기를 넘어 세상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4단계로 확대되어야 가능하다. 의식이 자기에게 한정되어 있는 한 이 세상은 끊임없이 비난과 경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 의식은 확대될수록 건전한 생활양식을 영위하고, 깨달음에 대한 열망이 확고하다. 그러므로 명상을 수행하는 사람은 초의식 상태를 경험함으로 영적 성장의 단계로 발달하게 된다. 반면에 무질서한 생활, 자신의 영적 성장능력에 대한 의심, 그리고 인내심의 부족은 영적인 성장을 방해한다. 명상은 인간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세상과 조화롭게 지내는 힘을 길러 준다. 명상을 통해 영성이 깃든 사람은 남들을 편안하고 품위 있게 대한다. 명상은 높은 의식 상태를 끌어내고, 그것을 실생활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기를 초월해서 세상의 존재들과 함께 하도록 이끈다.

나의 의식이 어떠하냐에 따라 세상은 다르게 다가온다. 의식이 열려 있고, 자비롭고, 창의적이라면 세상은 유익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의식이 탐욕, 화,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세상은 그런 에너지를 반영할 것이다. 의식은 나를 이끌어 가는 주인이므로 나의 의식이 확대될수록 남을 탓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어 비로소 세상은 변하게 된다.

제 11 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7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 1644 - 9108



대행 스님

우리가 죽는다 산다 하는 거 이거 말짱 거짓말입니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에 대해서

질문 저희 모친께서 지병으로 10년 넘게 병원을 전전하고 계시다 갑자기 체중이 20kg 이상 빠지시면서 기력이 소진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얼마 사시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보살이 편안한 임종을 맞이해서 다음 생에 인도 환생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고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공양을 올려야 부처님세계에 전달이 돼서 어머니께서 인도환생하실 수 있는 공덕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답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마음이라는 자체가 바로 우주 삼라만상을 빚어내기도 하고, 삼라만상의 모든 일체 만물만생을 다 마음으로 그려 내기도 하고 마음으로 짓기도 합니다. 이 마음은 정말 어디다 비할 수 없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한생각을 잘 굴려서 내면은 일체 모든 게 생기고 구해지지만, 한생각을 쉬게 되면 모든 고에서 벗어나게 된다, 모두가 소멸된다 이 소립니다. 이 고가 다 소멸된다는 그 자체가 한생각에 어떻게 그렇게 다 소멸될 수 있을까 하지만 믿고 물러서지 않는다면 생사에 관한 건도 모든 것이 다 놔집니다. 죽고 사는 것도 다 놓게 되면은 고에서 벗어나는 거죠.

우리가 죽는다 산다 하는 것은 이거 말짱 거짓말입니다. 이건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름이 흩어졌다 모였다 하듯이 그와 같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뭐 별건가요? 이 무명을 쓰고 있다가 무명이 벗겨지면 다른 무명을 쓰고 다시 나오고, 그래서 마음이 발전을 해야만이 지금 산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발전, 즉 정신계의 발전을 해야만이 물질계의 발전도 할 수 있거니와 여러 가지로 중용을 할 수 있어서 자동적으로 자유자재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한 그릇 먹어도 그것을 해서 올리는 자는 누구며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해서 올리는 자도 자기요 받는 자도 자깁니다. 그런데 내면으로 볼 때 내가 먹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서 먹는 것입니다. 몸속에도 수십억 마리의 생명들이 모두 들어 있음으로써 네가 먹었다, 내가 먹었다, 누가 먹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양 한 그릇을 내가 먹는다 하더라도 생각을 잘하면 공양이 되고 생각을 잘못하면 밥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하면 네가 먹었다 내가 먹었다 할 것이 아니니 그래서 공양입니다. 그래 공양을 올리게 되면 공덕을 입는다 이런 소립니다. 공양이 아니고 개별적인 밥이라면 공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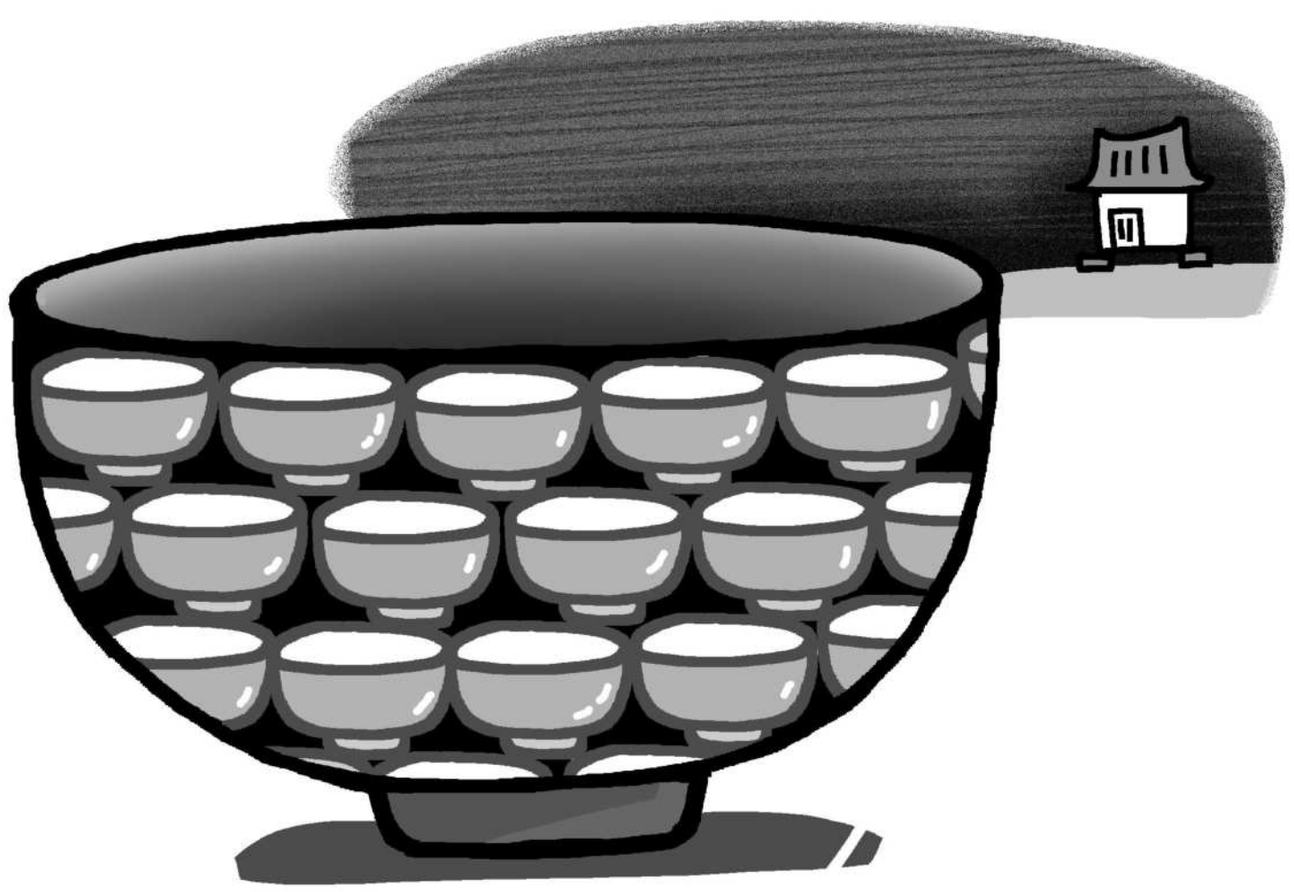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 공양이라는 것이 내 한 몸체의 조직체, 즉 모든 생명들이 한 그릇을 놓고 다 같이 먹는다는 뜻입니다. 다 같이 먹으니까 다 같이 마음을 내서 모두 서로서로 도와 가면서 서로서로 작용을 하고 작용을 해 주고 이러면서 사니까 공동체고, 그러니까 바로 공덕이 되죠. 공덕이 된다는 뜻도 그렇지만은 공양을 올린다 하는 것도 그렇고 공향(共香)을 피운다 하는 것도 이런 데서 오는 겁니다. 공양을 올리면 이 삼라만상 대천세계가 전부, 만물만생이 전체가 다 한 그릇을 놓고 내부나 외부 전체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덕이 될 수밖에요. 나를 떠나서 상대로 믿는다면, 상대를 믿는다면 공덕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공양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마음의 향이 될 수가 없고요. 공향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공덕이 되게끔 공양을 올리고 공향을 피우고 공덕이 되게끔 행을 하고 마음을 내라 이거죠. 바깥으로 믿고 바깥으로 끄달리고 바깥으로 아무리 공양을 많이 올리고 시주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공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조직체로서 운영을 하는 거지 조직체가 아니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회사도 조직체가 돼 있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조직체라는 이름 없이도 말입니다.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고 총무가 있고 상무가 있고 이렇게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질서 정연하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공동체고 그렇듯이 우리가 공양 한 그릇을 올린다 하면 내가 먹는다 하더라도 공양입니다. 이거는 내가 먹으니까 아무렇게나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단 한 숟가락을 먹더라도 공양을 올리십시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도 공양이요, 둘이 아닌 바로 공생(共生) · 공용(共用) · 공체(共體) · 공식화(共食化)하고 돌아가는 이 전체가 바로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든 한 그릇을 바치든 공양은 공양입니다. 더불어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까닭입니다. 그러니 어찌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제사 지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는 사람은 내가 먹는 밥 한 그릇 가지고도 천도를 할 수가 있는가 하면 내가 먹는 밥 한 그릇 가지고도 지극하게 공양을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를 알면 아주 멋진…, 자유권을 갖고 행할 때 그게 공덕이죠. 모두가. 내가 먹는다고 해서 공양이 아니고 남을 준다고 그래서 공양이고 이게 아닙니다.

향을 하나 피워 놓는다 하더라도 마음은 체가 없어서 이 우주 삼라만상을 한 찰나에 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 물질적인 향이 아니라 마음의 향을 피우시라 이겁니다. 잘 생각해서 공덕이 되게끔 마음을 잘 내는 것이 바로 마음의 향입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예배를 올릴 때 계향(戒香) · 정향(定香) · 혜향(慧香) · 해탈향(解脫香) ·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 합니다. 이 다섯 가지 향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공양을 올려야죠? 누구나가 입산 제자나 유발 제자나 다 마찬가집니다. 이 모두가 다 공양이 되게끔 하고, 공덕이 되게끔 하고, 내가 공동체로서 어느 거 하나 빼놓지 않고 구할 수 있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전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나요

질문 『한마음요전』과 마음공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많은 신도들이 한 권씩은 다들 구입해서 공부에 참구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어떤 분은 하루에 몇 구절씩 읽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평소에 큰스님의 법문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는 요전을 보지 않아도 내용을 다 안다, 심지어는 읽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어느 분이 옳고 어느 분이 그르다 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마음공부 하는 과정에서 경전의 중요성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하는 점이 더 궁금합니다. 평소에 경전을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대해야 하며, 특히 『한마음요전』을 어떻게 참구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처님께서는 사십구 년을 설하셨고 그것을 경전으로 편집해서 냈어도 이날까지도 모두들 그 마음을 모르고, 그러면서도 그 마음을 움죽거리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 A18면으로 계속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품설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모든 것을 근본에다 놓고 돌아가는 것도 진언입니다!

☞ A17면에서 계속

나로서는 경전을 봐야 옳다, 경전을 안 봐야 옳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마음 자체는 다 똑같지만 이 오장육부 속에도 모습들이 천차만별로 다르고 행도 다르고 모두 다르듯이 이 세상만사의 모든 마음 내는 그릇은, 마음 내는 차원은 천차만별로 달라서, 그건 그릇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할 뿐이지 누가 봐야 옳다, 안 봐야 옳다 할 수는 없죠.

생각을 해 보세요. 경전을 써 놨어도, 풀이를 해 놨어도 기복으로 풀이를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복으로 써 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적으로 지혜를 넓혀 가고 마음을 계발하려면, 즉 지혜롭게 발전을 하려면 자기가 어떤 때는 모르는 게 있으면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래서 목차 목차대로 있으니까 자기가 아쉬운 대로 한번 넘겨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보고 듣지 않으면 이름을 몰라서 생각도 안 납니다. 우리 먹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먹어 봤으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지, 보지도 못하고 먹어 보지도 못하고 맛도 모르는데 어떻게 먹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적으로, 길잡이로서 꼭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책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교 자체에서 개선할 게 너무도 많은데 그 책을 만약에 잘 보고 습득해서 넘어간다면 그 책은 살아 있는 겁니다.

어떤 돌부처가 말입니다, 옮겨 놓으려고 하니까 꿈에 나타나서 "나는 가기 싫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다시 모셔 놨답니다. 그와 같이 돌 하나도 생명이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책에 말입니다, 일체제불의 마음이 다 들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딴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다 한마음으로써 다 같이 한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의 진리이자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그냥 글귀로 해 놨을 뿐이지 모두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해 놓은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누가 했다, 누가 안 했다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참고적으로 우리가 보고 알아야 되지 않나. 그래야 마음의 발전이 되면서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나죠.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날 때는 가차 없이 갖다가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응,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만날 그 얘기가 그 얘기야. 그런데 뭘 그래?"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글을 외워서 배우라는 게 아니거든요. 외워 가지고 그 외운 거는 다 버리더라도 그 뜻을…. 내가 진짜 갖다 먹을 수 있도록 행을 중용으로 해라, 정신계와 물질계를 중용으로 해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지, 그걸 외워서 읽으라고 해 놓은 게 아니거든요. 읽다 보면 때에 따라서 어떠한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면 생각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차 사고가 날 일이 생겨도 읽었던 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차 사고가 안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보이지 않는 데, 이 우주 자체 허공에 말입니다, 생명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 어떻게 부딪쳐서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몸뚱이나 혹성 자체도 다 대기권에서 통신으로 들일 건 들이고 버릴 건 버리고 대치할 건 대치하고, 이렇게 해서 다니게끔 돼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데 그렇게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득문득 스스로 생각날 수 있도록 그런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 그 책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진언이 어째서 효력이 있는지요

질문 진언(眞言)이란 무엇입니까? 아침저녁 예불 중에 외우는 경에도 많은 진언이 있고 또 다라니경(陀羅尼經) 같은 것은 주력이 있다 하여 예불 중에도 빼놓지 않고 외우는 데, 그 진언이란 과연 무엇이며 어째서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인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누가 효력이 있다고 그러나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효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네들이 하는 것뿐이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었을 때는 지장경을 염하고, 이게 진언이 되죠.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가난하게 살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진언을 외우고, 또 명이 짧다 하면 남의 말을 듣고서는 또 칠성에게 빌면서 진언을 외우고, 또 아주 좋은 데로 가게 해 달라고 지장한테 빌고 진언을 하고, 또 용신(龍神)한테 진언을 하고, 이거는 자기의 용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진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 닥치는 대로요. 그런데 다 똑같은 진언이 아니죠. 모두가 자기 가정에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진언을 하게 되죠. 병고가 있으면 바로 약사보살을 찾고, 길을 가다가 잘못될까 봐 걱정이 되면 바로 지신한테 진언을 하고, 이렇게 모든 게 우리 사는 용도와 똑같죠.

그런데 내가 말하는 건 바깥으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로서의 진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한군데서, 여러분이 못났든 잘났든 한군데서 모두 살림살이를 하고 갑니다.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뺏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못났든 잘났든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을 꾸려 나갑니다. 그러면 자기를 끌고 다니는 바로 근본 자기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용도에 따라 닥치는 대로, 아까 말했듯이 명이 짧으면 짧은 대로 거기다가 되돌려놓고 '너만이 할 수 있어. 병도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너야!' 하고 모든 것을 거기다 놓고 돌아가는 것도 굳이 말하자면 일종의 진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진짜 진언이 아닙니다. 그거는 바깥으로 떨어지는 진언이고 이것은 안에다가 되돌려놓는 진언이기 때문에 우주 법계에 일체제불의 마음으로서 전부 통신이 되는 겁니다. 직결이 돼 있고 가설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짜 진언이라는 것은 그대로 그냥 진언입니다. 바깥으로 상대를 두고 진언을 하는 거하고 상대를 두지 않고 직접 자기 자성(自性)에 진언을 하는 거하고는 어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항상 가도 노예가 될 수밖엔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가르치지도 말아야 하고 노예가 되지도 말아야 합니다.

> 믿고 물러서지 않는다면 생사에 관한 건도
> 모든 것이 다 놔집니다.
> 죽고 사는 것도 다 놓게 되면은 고에서 벗어나는 거죠.

사람들 앞에 서면 겁에 질려요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교 1학년입니다. 불교에 뜻이 있어 단기 불교대학도 다니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대행 스님의 답변을 보고 용기를 내어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일종의 공포증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겁에 질려 떨려서 말도 잘 못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책도 읽기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어렸을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저의 성격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별로 없답니다. 이 때문에 저는 불교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이 난국을 극복하려 했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의 아상이 강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아직 수행이 부족한 탓인가요? 이대로는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는 잘못되고 잘되고가 없고 악도 선도 없어요. 잘못된 거 잘된 것이 없다고요. 그 없는 도리를 안다면 전부 내가 공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세상살이를 편안하게 할 수 있겠죠. 마음속으로 자꾸 편안치 않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세요.

그러면 두 가지 표현으로 해 보죠. 한 가지는 차를 탔으면 내리죠? 그렇죠? 한계가 없이 그냥 타고 갈 그런 사람은 없죠. 차를 타면 내리려고 타고 내리면 타려고 내립니다. 어때요? 그 답답한 마음도 또는 어떠한 마음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과거의 업식에서 입력된 게 나오는 거니까 그대로 상관할 게 없이 거기다가 놓아 버리고 새 걸로 바꿔서 쓴다면 좋은 거고요. 좋게만 생각을 해서 거기다가 놓으세요, 자기한테 유익하게만. 자기의 가정에도 이익하고 자기에게도 이익하고 모든 걸 이익하게만 생각을 해서 놓으세요. 바꿔 놓으세요.

꿈을 꾸고도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관습에 의해서 쩔쩔매지 말고 또 다가오는 용도도 '이거 이렇게 다가오니까 사람이 살 수가 있나?' 하고선 고민하고 이럭하질 말고 '고민하게 하는 것도 너니까 고민 안 하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거기 돌려놓는다면…. 믿고 돌려놓을 수만 있으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100%로 놓질 못하는 까닭이죠. 놓는다는 건 믿어야 놓는 거지, 믿지 못하면 놓지 못하죠. 우리가 걸음을 걸어갈 때에 구덩이에 발을 떼어 놓을 수는 없죠. 그렇듯이 바로 자기 마음이 구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거기다 발을 떼어 놓을 수 없는 거죠.

마음은 체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거를 나쁘다고, 좋은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나 그건 관습에 의해서 오는 거니까 모든 것은 거기다가 맡겨 놓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내 마음이 조절을 해서 밝게 만들어 주는 활력소면서 재생산이거든요. 재생의 생산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처에다가 모든 것을 다시 바꿔서 재생을 하게끔 거기다가 놓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자기 주인공을 믿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학생이 지금 생명의 근본, 움죽거리지 않으면서 한 기둥이 기계 기둥 가운데서 중심을 타고 돌아갈 때 여러 가지에 연결된 기계가 다 돌아가죠. 그런데 그 가운데 중심의 기둥은 움죽거리질 않아요. 힘만 배려해 주죠. 그 기둥에다가 다 놓으란 말입니다. 자기 근본, 주인공을 믿고 일상생활을 전부 그렇게 한다면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다 맡겨 놓고, 그 힘에 다 맡겨 놓으면 다시금 새 물로다 생수를 먹을 수 있고, 새 걸로다가 굴릴 수 있고 쓸 수 있어요. 어떤 애고든지 말입니다.

주인공의 무엇을 믿어야 하나요

질문 저를 고민케 하는 것들은 교리나 신행과 관련되는 것들이 아니라 살다 보면 부딪치게 되는 생활상의 문제들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스님께서는 주인공에 놓으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이런 문제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놓아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주인공을 믿으라고 하시는데 주인공의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요. 주인공이 존재함을 믿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이 주인공의 나툼이니 결국 주인공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뜻인지요.

답변 여러분의 깊은 잠재의식 속에 참나가, 바로 공(空) 안에 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맡겨 놓으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공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 공했으니 포함해서 공한 주인공에 의해서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부처도 이루고 세상이 공한 줄 알았고 내가 공한 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일체 생활을, 들이고 내는 것을 몰락 다 '들이고 내는 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서 다 알아서 길잡이가 될 거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안되는 거는 나를 테스트해 보는구나 하고선 놓고 또 되는 거는 감사하게 놓고, 그렇게 모든 것을 믿고 맡겨 놓을 때에 비로소 자기 자신의 은사 아닌 은사, 참 은사를 만날 것입니다. 진짜 은사를.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있기 때문에 부딪침이 있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 가난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더더욱 잘 알게 됩니다. 가난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이라는 걸 찾지 못해서 한데로 떨어지는 수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은 가난하고 없는 것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일생에 눈물 흘리고 가슴 아프고 그런 일들이 한두 건입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안 보이는 자기한테 다 맡기고 '너만이 길을 찾아가게 할 수 있고, 너만이 네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할 수 있고, 너만이 가정을 지켜 주고 너만이 애들을 굶기지 않고 먹여 살릴 수 있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간절한 한마음이 아주 필요할 때입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불자 세상보기 |

과로사회 대한민국, 치유가 필요하다



김형중
동국대부속고 교장

일은 많고, 못 쉬고, 고독한 사회
'N포세대', 불안한 미래를 반영해
10년 전보다 여가시간 30분 줄어

인간은 일하려고 태어나지 않았다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 돌려줘야

불교계도 사찰 內 미술관 등 유치해
휴식 여가활동 공간 제공 노력해야

요즘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맞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으로 국운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이고, 경제적으로는 나라 경제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북한 핵무기와 사드문제 때문에 중국, 일본, 미국과의 국가 외교가 흩어진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온 국민들은 201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런 나라의 위기를 일거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미륵 구세불과 구세주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보다 더 시급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젊은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않고, 아이도 낳지 않고,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현실이다.

우리는 직장생활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일을 함으로써 사회와 국가에 봉사하고, 또 생계를 유지하는데 재화를 얻는다. 직업은 삶의 기본 수단이다.

여기에 비해 여가활동이란 생업을 위한 직장의 일을 떠나 자유롭게 여가시간에 취미와 오락 활동, 문화예술 활동, 스포츠와 여행 등 휴식활동을 통해서 삶의 여유와 활력 그리고 행복을 느낀다. 여가활동은 경제력에 의하여 수준 높은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가 있어서 돈을 쓰는 활동이다.

세계 경제 10대국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점점 활기를 잃고 우울하게 혼자서 여가시간을 보내고, 혼자서 밥과 술을 마시는 고독한 사람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N포세대 · 혼밥 · 혼술 등 우울한 신조어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요즘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설사 직장을 구한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노동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쉴 틈이 없어지고 있다고 한다. 경기침체와 불안한 미래 탓으로 노동 시간이 줄어들어 국민들의 여가시간이 10년 전보다 오히려 30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직장인의 3명 중 1명이 만성두통으로 시달린다고 한다. 스트레스성 두통환자가 최근 10년 새 급작스럽게 늘었다. 며칠 전에는 세종정부청사에서 행정고시 출신의 여성 공무원이 밤 10시까지 초과근무하는 격무에 시달리다 과로사한 보도가 있었다.

이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인간은 일만 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아무리 나라 일도 중요하지만 젊은이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시간을 도둑질하고 착취해서는 안 된다.

삶의 활력을 재충전해야 할 여가시간을 혼자서 골방에 누워서 돈이 들지 않는 TV만 보는 젊은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는 우리 청년들에게 쓸모없는 시간에 투자하는 '스펙쌓기'에 엉뚱한 시간을 낭비시켜 돈과 시간의 노예로 만들고 있다. 이런 족쇄에서 해방시켜줘야 한다.

사랑과 아름다운 추억이 가득 찬 여가시간, 가슴이 뛰는 희망이 가득 찬 여가시간을 만들며 살아가야 행복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문화원을 통해서 저소득층과 청년들에게 문화 예술 활동비를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 영화 · 연극 · 음악회 · 미술관 관람권을 지원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사회는 활력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불교계에서도 사찰 안에 미술관과 음악회를 유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사찰에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예 · 다도 · 꽃꽂이 · 요가 · 산사 둘레길 등을 개발하여 산보와 등산 등을 할 수 있는 휴식 여가활동의 공간을 제공하는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젊은 시절에 시간을 저축해서 늙어서 행복하게 살 수 없다. 시간은 저축할 수 없는 것이다. 행복을 즐겨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 행복을 느껴야 할 장소는 바로 이곳이다. 시간과 행복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社說

수행열풍, 유행으로 끝나선 안 된다

도심에 위치한 대형사찰을 중심으로 참선수행 열풍이 불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명상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남방불교 수행단체들의 국내 진출 등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 과정이야 어떻든 분명 현재 한국불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불교사회연구소가 2013년 발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보고에서 불자 중 70%가 실천 중인 수행법이나 기도법이 '없다'고 답했다. 그나마 '있다'고 답한 불자들 중에서도 간화선은 고작 4%였다. 불과 몇 년 전 상황을 돌이켜보면 지금의 수행열풍은 불자감소 위기에 빠진 한국불교가 잘 활용해야할 기회다.

다행히도 참선반을 운영하는 사찰들이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지도법사를 상주하게 해 대중으로부터 호응이 높다. 인원 제한에 걸려 대기순번을 받은 불자들이 아쉬움을 토로할 정도다. 어느 사찰에서는 참선에 관심이 있어 등록한 참가자가 불교에 심취해 불교대학까지 다니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이제는 이 같은 선사례를 더 많은 사찰로 확대하고, 최종적으로 수행공덕을 쌓은 불자들이 제대로 회향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상업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없도록 불교계 전반적으로 성찰하며 이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불교계에 덕 높은 선승이 지금보다 많이 배출돼 재가불자들을 이끌고, 수행문화 확산에 앞장서야만 한다.

현대사회의 문화 소비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다. 그래서 이 수행열풍이 단순한 유행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대중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고, 불교계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할 때다.

은퇴자출가로 대안 출가 길 열자

지난해 11월 조계종 중앙종회서 부결된 은퇴출가제도가 대폭 수정된다는 소식이다. 조계종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1월 20일 열린 3차 회의를 열고 은퇴출가자 특별법 수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종회에서 문제된 은퇴자 출가자의 지위를 수행법사로 한정한 부분에 대해 '승려에 준하는 지위'로 변화하는 등의 변화를 주기로 결의했다고 한다. 다만 악용될 소지가 있는 법계품수 · 선거권 및 피선거권 · 종무직 취임 등과 관련된 권리는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은퇴출가 절차는 3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행자로서 3년간 사찰서 공동생활을 한 뒤 세속의 인연을 모두 끊고, 출가독신자인 경우 갈마를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할 수 있다. 이때 출가독신자가 아닌 경우에도 행자신분은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사미(니)로서 10년간 수행정진과 교화활동을 한 자에 한해 갈마를 하고 구족계를 수계한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 은퇴자출가 법안보다는 진일보한 결과이다. 다변화 되는 현대사회에서 전통적 출가방식과 함께 대안 출가 방식으로 부처님 법에 귀의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할 시기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번 은퇴자 출가 수정안은 이런 시대 조류를 반영한 것이기에 충분한 의미가 있다.

다만 은퇴자 출가이든 전문가 출가이든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봉책일 뿐이다.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제일 중요한 출가 진흥 정책은 양이 아닌 질이다. 뛰어난 자질의 출가자가 들어와서 한국불교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다익선보다는 소수정예가 더 용이할 때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인재가 출가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기존 승가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기자칼럼
신성민 취재부 기자

드라마 '도깨비'에 대한 단상

TVN 드라마 '쓸쓸하고 찬란하神-도깨비(이하 도깨비)'가 지난 1월 21일 종영됐다. 케이블드라마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인 20.5%를 기록했고, 모든 광고가 완판되는 기염을 토했다. 주인공 도깨비 김신 역을 맡았던 배우 공유 역시 향후 4개월 동안 광고 촬영만을 해야 할 정도다. 해외 판권 역시 세계 각국에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드라마 '도깨비'에 대한 종교계의 반응은 어떨까. 우선, 드라마 '도깨비'를 일부 보수계열 개신교도들은 매우 불편한 시각으로 봤다. 개신교계 언론 뉴스앤조이는 "일부 기독교인이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에서 드라마 '도깨비'가 '사탄', '종북'과 관련 있다는 글을 퍼뜨리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불교계의 경우 촬영지였던 석남사, 월정사 전나무 숲길에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등 문화포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기실 '도깨비'는 잘 만들어진 '종교적 배경의 드라마'이다. 정확하게 한국의 양대 종교인 불교와 기독교가 배경으로 혼합돼 있는 드라마다. 드라마의 가장 큰 배경은 불교의 윤회설을 기반하고 있으며, 절대자인 '신'에게 부여받은 전능한 힘을 가진 도깨비와 저승사자가 나온다. 또한 극중 인물들의 꼬일대로 꼬여있는 운명과 인과는 극의 몰입도를 높였다.

한국 전통 신앙인 도깨비, 저승사자, 삼신할머니를 소재로 하면서도, 이면에서 서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신을 대하는 태도는 다분히 기독교적이다. '저승은 유턴'임을 알리고 나서는 문에 나타나는 계단은 천국으로 향하는 기독교의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다. 도깨비와 저승사자가 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울 시내의 수많은 교회 십자가들이 오버랩되는 장면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드라마 '도깨비'는 윤회전생, 인과, 결정론을 바탕하면서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더했다.

이는 극중 인물의 대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도깨비가 극 초반에 던지는 "보통 사람은 그 기적의 순간에 멈춰서 한번 더 도와달라고 하지. 당신이 있는 것을 다 안다고. 마치 기적을 맡겨놓은 것처럼. 그대의 삶은 그대 스스로 바꾼 것이다"라는 대사나, 류덕화에게 빙의된 신이 "신은 답을 알려주지 않는다. 운명을 통해 질문을 던진다. 답은 인간들이 찾는 것"이라는 대사는 이를 잘 보여준다.

드라마의 마지막, 명부에 없던 지은탁이 자신의 의지로 아이들을 구하고 죽는 것 또한 자신의 의지로 결정한 행동이었다. 망각의 차를 마시지 않고 전생의 기억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기로 결정한 지은탁의 선택도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이다.

'비극적 운명'을 가진 도깨비 신부가 절박함으로 도깨비를 불러냈던 것처럼 드라마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새로운 문을 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보여주기 위한 극의 배경과 장치로 '종교'들은 사용됐다. 일종의 '이미지 소비'로도 볼 수 있다.

종교가 미디어의 소재로 사용되는 것이 특별한 시대는 아니다. 다만, 미디어는 부단히 종교를 소비하지만 이렇게 소비된 종교는 새롭고 창조적인 종교성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드라마 '도깨비'는 찬란했지만, 이면에는 '종교 소비'라는 쓸쓸함도 존재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염주세트(10㎜) 30,800원 (무료배송)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주문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佛事의 모든것 대원불교 사랑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사랑을 성원해 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사랑에서는 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및 불교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거한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대표 임일주 올림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456-1
전화 031)573-3722. 010-7171-2636
010-5738-3859. 010-4037-3722
팩스 031)573-3723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사랑이 되겠습니다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냄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진귀 수인(手印) 수행법



수인 수행법은?

80화엄경 제 17품 초발심공덕품에서 법혜보살의 게송중에 〈부처님의 복과 지혜가 무변함과 같아서 수인(手印)을 따라 집착함이 없음이로다〉에 근원한 수행법으로 불가사의하게 지은 집착덩어리를 자연스레 부수어 소멸되는 고멸도성제로 나아가게 하며 이러한 귀한 인연으로 스스로 사대가 강건해짐을 체득하게 되고 스스로 자신의 해탈문을 찾는 불가사의한 수행법입니다.

깨달음 산문은?

기존의 각종 기도법 및 수행법과
불교의식을 일체 하지 않는 곳이며,
오직.....
80화엄경을 현대식 버전으로 재번역한
깨달음 경전으로 독경, 사경, 법경
수행을 함과 동시 독창적인
진귀 수인수행법으로 고통 해탈의
문을 여는 순수 수행 단체입니다.

수인(手印) 수행법 1기생 모집

- 인 원 : 53명 제한
- 과 정 : 3개월
- 개 강 : 2017년 3월 5일(일요일 오후 2시)
- 종 강 : 2017년 5월 28일(일요일 오후 2시)
- 수 강 료 : 별도문의
- 문 의 : 깨달음 산문 1899-9532

2017년 무료공개강좌 일정

〈2017년〉

2차 공개강좌 : 주제 : 집착 그리고 분노
일시 : 2017년 2월 19일 일요일 오후2시

3차 공개강좌 : 주제 : 정견과 사견의 전도몽상
일시 : 2017년 3월 19일 일요일 오후2시

4차 공개강좌 : 주제 : 붓다의 충격?
일시 : 2017년 4월 16일 일요일 오후3시

5차 공개강좌 : 주제 : 이뭣꼬?의 정체성
일시 : 2017년 5월 21일 일요일 오후3시

6차 공개강좌 : 주제 : 깨달음 경전은 어떤것인가?
일시 : 2017년 6월 18일 일요일 오후3시

7차 공개강좌 : 주제 : 범부의 고뇌와 희망
일시 : 2017년 7월 16일 일요일 오후3시

8차 공개강좌 : 주제 : 수행자의 고뇌와 희망
일시 : 2017년 8월 20일 일요일 오후3시

9차 공개강좌 : 주제 : 일승기신론과 대승기신론
일시 : 2017년 9월 17일 일요일 오후3시

10차 공개강좌 : 주제 : 고통과 병통은 괜히 오지 않는다
일시 : 2017년 10월 22일 일요일 오후2시

11차 공개강좌 : 주제 : 길없는 길속의 내비
일시 : 2017년 11월 19일 일요일 오후2시

12차 공개강좌 : 주제 : 희망은 있다
일시 : 2017년 12월 17일 일요일 오후2시

- 신청접수 : 각 회차별 무료예약 (선착순33명 제한)
- 문 의 : 1899-9532
- 강 사 : 깨달음산문 - 방장 진귀

※ 공개강좌 예약신청 후 참석하지 않으신 분은 다음 강좌부터는 예약신청 및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깨달음 山門

NAVER 깨달음산문 검색

虛密淸圓… 옹심이 빚다보면 마음은 둥글둥글

〈허밀청원 : 비워야 둥근 마음 채운다〉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가자 옹심이를 만드는 보살님들의 손이 바빠졌다. 넓은 스테인리스 접시는 하얀 옹심이로 금방 가득찼다. 작지만 탱글탱글한 옹심이처럼 봉사의 삶을 사는 이들의 모습은 아직 청춘인 것 같았다.

설특집 道伴의 향기

신행과 봉사로 나이 잊은 '옹심이 보살들'

작은 재능도 기부하는 삶

조계사서 목·금 이틀 봉사
2011년 '승소' 만들어 지며
음식 만드는 봉사 시작해
찹쌀로 옹심이 만들어 보시

불교 공부보다 중요한 실천

수 십년 경전 읽고 기도해도
삶 의미 자비실천서 찾아
음성공양·설겆이 등 진행
봉사자 건강은 부처님 가피

누구나 젊었던 적은 있어도 늙은 적은 없다. 다가올 미래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은 가장 젊은 순간이다. 이런 젊음을 삶 속에서 밝게 빛내는 사람들이 있다. 봉사로써 젊은이들보다 더 활기찬 삶을 사는 이들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0일 서울 조계사 공양간 '승소'에서 봉사로 또 다른 젊음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조계사 식당에서 봉사하는 이들의 모습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뿜어내는 에너지와 정열이 감지됐다. 기도와 신행, 그리고 봉사로 하나가 된 그들은 열정 넘치는 젊은이들이었다.

다양한 신행활동, 옹심이로 한마음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 위치한 조계사 주변에는 작은 골목길이 많다. 새들이 지저귀는 골목길 중간에는 조계사가 2011년 옛 모텔을 인수해 개조한 관음전 건물이 있다. 이 건물 1층이 바로 조계사 대중공양간 '승소'다.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이 승소의 문을 열면 입구에서 찹쌀로 '옹심이'를 만드는 광경이 펼쳐진다. 예닐곱 명의 어르신들이 오순도순 앉아 함께 옹심이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옛 시골마을의 풍경이 떠오르곤 한다. 승소에서는 이 옹심이를 활용해 미역국과 떡국 등을 만들어 보시한다.

승소는 조계사 신도들을 위한 휴식공간 개념으로 만들어진 곳으로 신도 등록 후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승소를 찾는 인원은 하루에 100여 명이 넘는다. 그만큼 사용되는 옹심이 양도 어마어마하다. 1주일에 사용되는 옹심이가 40kg이 넘는 상황. 찹쌀가루를 반죽하고, 몇 시간씩 한자리에 앉아 옹심이를 만드는 일은 여간 고역이 아니다.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뭉칠련만 옹심이를 만드는 어르신들의 표정은 행복 그 자체다.

"5년 전 주지 스님이 승소 공양간에 옹심이를 빚는 봉사자들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당시에 지원자가 별로 없었어요. 4시간 이상 한자리에 앉아서 같은 일을 반복하다보니 젊은 봉사자들은 며칠 하다가 다른 봉사 쪽으로 갔지요. 결국 모임 형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던 중 조계사 실버합창단인 회화나무합창단원에서 지원자를 받아 이렇게 함께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 연령대가 70대를 훌쩍 넘네요. 호호호"

가장 연세가 많아 일명 '회장님'으로 불리는 보림화 정순녀 씨(81세)는 지난날을 회상하듯이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정 보살은 "나이가 들다보니 특별히 활발한 봉사보다는 작은 힘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봉사를 찾는 것 같다"며 웃었다.

조계사 공양간에서 봉사하는 옹심이 보살들이지만 이들이 조계사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조계사 뿐만 아니라 능인선원 등이나 서울 각지의 사찰에서 교리공부를 한다. 하지만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다시 옹심이 봉사로 조계사에서 뭉친다.

화요일이면 조계사 회화나무 합창단에서 모여 합창연습도 하고 일요법회에서 음성공양도 올린다. 합창단 소속으로 조계사 나눔실천 현장에도 동참한다.

3년 전 이들 모임에 가장 늦게 참여한 도행 이선옥 씨(77세)는 이들 봉사자들 대부분이 신행공부를 해온 분들이라 서로 마음이 맞는다고 말했다.

"제 경우는 회화나무합창단 출신이 아니에요. 여러 군데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조계사에서 봉사교육을 받게 됐고, 이후 조계사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승소에 옹심이 봉사가 있다고 하여 참여하게 됐는데 신행활동을 꾸준히 해오신 분들이라 서로 편안하네요. 배려와 이해해주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봉사가 따로 있나요? 서로 마음씀씀이 자체가 봉사지요."

취재 중에도 자식 걱정부터 손주 얘기, 시시콜콜한 고민까지 대화는 이어진다. 가만히 보면 가족같다. 옆에 있던 감로성 김정숙 씨(72세)가 거든다.

"저는 막내입니다. 다들 나이가 많으시지만 마음만큼은 젊으세요. 아니 저희는 젊은 것 같습니다. 호호호"

이들이 처음부터 옹심이를 만든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대량으로 만드는 공양간에서 다들 주부9단 출신이지만 찹쌀가루와 소금 등의 비율을 맞추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감로성 김정숙 씨는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3일씩 했는데 처음 와서 드신 분들이 풀죽이 아니냐고 항의하시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모두들 기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직접 만들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손으로 만든 음식을 조계사를 찾는 이들이 맛있게 먹고 갔으면 한다"며 "최근에는 절이 문화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인근 회사원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조계사와 인연을 맺을 수 있는데 기여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도 이들의 손은 바삐 움직였다. 인생을 고스란히 담은 손 사이에 새알 옹심이들이 만들어졌다. 새하얀 찹쌀가루가 묻은 그 손은 어느 손보다 고왔다.

궂은 일 마다 않는 부루나 존자

이들 대부분은 옹심이를 만드는 봉사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었다.

특히 전법신 유영주 씨(78세)는 고령의 나이에도 조계사 만발식당 설거지 등 궂은 일을 마다 않는 이였다. 유 씨는 가톨릭 신자였던 자신이 불교로 개종하게 된 계기와 노력봉사의 중요성을 털어놨다.

"원래 건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등산을 했죠."

B2면에 계속

INSIDE

B3
기획연재
김성우의 '염불각자 열전'

B6
기획연재
고원영의 '저 절로 가는 길'

B7
가족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옹심이 마음

치대는 옹심이 반죽
손바닥 비비고 돌려
일매지게 똑똑 떼어내
주먹으로 꾹꾹 주물주물

쟁반 위에 가로세로
나란히 줄지어 놓으면
빚깔도 하얗게, 뽀얗게
동글동글 예뻐라

우리는 예쁜 마음
옹심이 봉사자
동서남북 각양각성
마음은 일체동심

오늘의 봉사
서원 실은 성심이니
부처님 자비광명
가슴 속 우담바라로 피네

- 전법신 유영주

저마다 各樣各性, 나눔실천만은 하나


조계사 공양간 '승소'에서 신도들이 식사하고 있다.


옹심이 찹쌀가루가 저절로 손의 주룸을 감춘다. 옹심이를 빚으며 근심을 내려 놓은 이들의 마음은 청춘이다.


옹심이 보살들이 활동하는 회화나무합창단.

신행과 봉사로 나이 잊은 '옹심이 보살들'

B1면에서 계속

유 씨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다.

"불교를 접한 것은 1980년에 전남 광양 상백운암에 갔을 때였습니다. 상백운암은 워낙 높은 지대라 오는 불자들도 없어 쌀도 없는 형편의 암자입니다. 그때만해도 불교에 대해 관심이 없을 때인데, 암자에서 만난 스님이 오히려 '산 속에 있으면서, 기도만 한다고 도를 닦는 것이 아니다'고 하시는 겁니다.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정도'라는 스님의 말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고 불교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유 씨는 이후 해인사와 금산사 등 전국사찰을 다니며 봉사활동을 펼쳤다. 보통 불자들이 법회 참여와 기도에 매진하기 마련이지만 사찰의 봉사현장을 다니는 것이 수행이란 생각에 봉사에 전념했다. 2000년부터 13년간 지하철 역사를 다니며 지하철 문화포교단체인 '풍경소리' 회원으로 포스터 관리도 했다.

"현재는 못하고 있지만 지하철 역사 6곳을 관리했어요. 포스터를 바꾸고 나면 사람들이 와서 부처님 말씀 보는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떼어낸 포스터는 좋은 말씀이라 버리기에 아까워 자비로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사찰이나 서예 하는 곳에 보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좋은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접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은 굴뚝같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불교계 봉사활동도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바로 젊은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다.

"해인사 등 여름 수련회 철이 되면 봉사자로 방사 청소나 설거지 등을 했습니다. 10년 넘게 해오다 나이가 들다보니 물리적인 면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쳐지는 것 같아 서글펐어요. 그 마음을 떨쳐 버리고 작은 힘이나마 도와야 하는데 마음이 그렇지 않네요. 괜히 짐만 되는 것 같기도 하구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함께 활동하는 자리가 불교계에서 많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수행과 봉사 하나된 삶

해인사 수련회 설겆이,
조계사 합창단 음성공양 등
사찰 봉사, 수행으로 여겨

"젊은 사람 짐될까봐…
비슷한 나이대 봉사 많았으면"

삶의 의미 봉사서 찾아

이들은 각자 매일 〈금강경〉과 〈화엄경〉 독경 등을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한다.

이들 중 감로성 김정숙 씨(72세)는 일주일의 대부분을 법당에서 보내고 있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1988년부터 여의도 포교원에서 불교공부를 시작한 그녀는 주말과 월요일이면 능인선원을, 화요일에는 조계사 합창단을, 수요일에는 BBS불교방송 다보법회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승소 등 조계사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다. 김 씨는 삶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래 해오던 신행활동에 4년 전부터 봉사활동을 해보니, 무의미하게 집에서 허송세월 하는 것 보다는 밖에 나와 사람을 만나서 공유하는 것이 참 좋더군요. 우리 나이 대에는 집에 남아서 '시간 죽이기'가 많아요. 기도 정진을 하더라도 스스로나 가족을 위한 것이 많지요. 이제 봉사로서 모두가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합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거든요."

전법신 유영주 씨는 여기에 불자들에게 꼭 보여줬으면 한다며 지난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자신이 지은 시를 전해줬다. 이 시에는 앞서 김 씨가 말한 삶의 의미가 녹아 있었다. 유 씨는 "작은 힘이라도 모이면 큰 산도 옮길 수 있다"며 "불법 홍포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교관인 남편을 따라 외국서 생활하다 귀국 후 1978년부터 40년간 조계사서 신행활동을 한 보림화 정순녀 씨는 "처음에는 불교가 합장하고 절 세 번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배울수록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씨는 "절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활동력이 있고 하니 잔병치레를 확실히 덜하는 편"이라며 "부처님 도량서 활동하는 것에서 활력이 생긴다. 병원생활 없이 도반들이 반듯하게 늙는 것에서 보람을 찾는다"고 말했다.

"젊은 사람들에게 불교 책을 주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부처님 말씀을 듣고 오면 남편에게 잘 할 수 있고, 가정 평화를 줄 수 있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게 하게 된다'고 합니다. 불교를 공부하고 실천하면 살면서 가슴에서 올라오는 불을 끌 수 있어요."

그래서 일까. 이들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이들의 남은 목표는 하나. 바로 건강하게 함께 봉사하며 사는 삶을 이어가는 것이었다.

"힘이 있을 때까지 함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렵니다. 이제는 남편도 여의고 자식들도 대부분 출가했지요. 그저 건강하게 일주일에 두 번씩 함께 모여 수다도 떨고, 옹심이도 만들고, 함께 행복하게 봉사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모두가 와서 잘 잡숫고 가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는 승소 옹심이 보살들은 기자에게 한그릇 먹고 가라고 권한다.

슬그머니 옆에 앉아 옹심이 미역국 한 그릇을 시켰다. 밥과 김치가 나오고, 잠시 뒤 또 다른 봉사하는 보살이 하얀 그릇을 환한 미소와 함께 놓고 간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미역국 속에 작은 옹심이가 마치 아기부처님처럼 살포시 웃음 지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김성우의 念佛覺者 列傳
③ 정토종 제8조 연지(蓮池) 대사

견성의 생사윤회, 염불로 해탈하다



"요즘 사람들이 염불하려 들지 않는 것은 단지 서방정토를 얕잡아 보기 때문입니다. 서방정토에 왕생하는 것은 바로 가장 큰 공덕과 복덕과 지혜를 두루 갖춘 위대한 성현만이 가능한 일이며, 사바세계를 정토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자대비로 이 염불법문을 가르쳐 주셨으니, 그 공덕은 천지보다 훨씬 크고, 그 은혜는 부모님보다 더 막중하여, 이 몸을 다 박살내고 뼈를 죄다 빻아도 보답하지 못합니다."

염불행은 하근기가 아닌 상근기가 닦는 원돈법문

사람들이 염불수행을 하근기나 하는 수행이라고 여기는 것은 400여년 전 연지 대사(蓮池大師, 1535~1615)가 염불법을 펼치던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 하지만, 앞에서 연지 대사께서도 설했듯이 염불행은 하근기는 커녕 지혜와 공덕을 겸비한 상근기만이 믿고 받아지녀 닦을 수 있는 가장 원만하고도 단박에 성취할 수 있는 원돈(圓頓)법문인 것이다. 대사는 〈아미타경〉을 풀이한 〈미타경소초(彌陀經疏抄)〉에서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것은 수많은 공덕을 한꺼번에 다 갖추는 것이고, 아미타불 명호만 부른다면, 이는 온갖 수행법을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대사께서는 염불수행법이 계정혜(戒定慧) 삼학(三學)을 두루 포함하고 육바라밀을 빠짐없이 갖춘 법문이라고까지 하였다.

불자들에게는 〈죽창수필(竹窓隨筆)〉의 저자인 운서주굉(雲棲株宏) 스님으로 더욱 유명한 정토종 제8대 조사인 연지 대사의 삶을 따라가 보면 염불법이 왜 가장 원만하고 단박에 성취할 수 있는 원돈(圓頓)법문인지를 자각하게 될 것이다.

어려서부터 염불 배워 불살생 실천

1535년, 명(明)나라 세종 당시 항주 땅에 태어난 대사의 속성은 심(沈) 씨이며, 17세에 이미 제반 학문을 마치고 남을 지도할 정도로 총명하였다. 문장은 물론 덕행(德行)까지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불연이 깊어 친구의 할머니로부터 염불을 배워 어린 시절부터 살생이라고는 벌레 하나도 죽이지 않으셨다.

대사의 나이 27세 되던 해에 부친이 세상을 떠나시고, 29세에 부인이 죽었으며, 31세에는 모친마저 돌아가셨다. 인생에 허망함을 뼈저리게 느낀 그는 염불심이 더욱 간절해졌다. 그래도 세연(世緣)이 아직 남아서인지 재혼하여 18세의 탕(湯)씨 부인을 맞이하였다. 하지만 부부인연도 잠시, 1년 후 32세 되던 해에 성묘를 하러 가서 풀이 우거진 무덤을 바라보며 '인생이란 어찌하여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것일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법은 없는가?' 하는 한 생각이 일어 불문에 출가하여 영원불멸(永遠不滅)의 진리를 탐구하기로 결심했다.

성묘를 끝내고 곧장 집으로 돌아와 부인에게 차(茶)를 가져오라 하여 같이 마시고 나서 찻잔을 깨뜨리고는 웃으며 "흩어지지 않는 인연은 없소" 하고는 출가의 뜻을 밝혔다. 그러자, 부창부수(夫唱婦隨)인지 그 부인 또한 "저도 낭군님을 따라서 출가를 하겠사오니 앞에 가시면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해 뒤에 가겠습니다"라고 화답하였다. 훗날 탕씨 부인은 47세에 연지 대사의 은사이신 성천(性天) 화상에게 출가하여, '주금' 이란 법명을 받았다. 주금 스님은 58세 되던 해에 효의암(孝義庵)을 창건해 비구니 총림(叢林)을 개설, 덕높은 비구니 스님들을 많이 길러내어 큰 공덕을 지었다.

임사체험 통해 견성만으로 생사해탈 어려움 절감

이렇게 부인에게 극적인 이별을 고한 대사께서는 그 즉시 남방의 오대산 성천 화상에게 출가하였다. 연지 대사는 그곳에서 1년을 머물고서 여산(廬山)의 변융(編融) 선사를 뵙고 수행법을 물으니 이렇게 일러주었다.

"일체 명예와 영리를 탐하지 말고 오로지 힘을 다하여 오직 일념(一念)으로 도(道)를 판단하여야 하니 명(命)이 다하도록 계행을 굳게 지킬 것이며 오직 염불수행을 행할지어다. 생사고해(生死苦海)를 신속히 벗어나 신속히 정각(正覺)을 성취함에는 염불보다 더 좋은 법은 없는 것이니 마땅히 힘써 행할지어다."

선사의 가르침대로 여실히 수행을 해나가다가 얼마를 지난 후, 연지 대사는 산동 지방을 지나가다가 홀연히 마음이 열려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오도송을 읊었다.

"20년 전 일이 의심스럽다 하여/ 30리 밖에선들 무슨 기특한 일 만나랴/ 선과 악이 모두 꿈인 걸/ 마(魔)와 부처 공연히 옳다 그르다 다투네."

염불수행으로 마음이 밝아지자 드디어 본래성품을 깨달아 초견성(初見性)을 이룬 것이다. 그러나 명심견성(明心見性)도 어렵고 어려운 일이지만, 견성했다 하더라도 미혹과 업장을 완전히 끊지 못해 여전히 생사윤회를 거듭하는 구도자가 대부분이다. 이런 사실은 연지 대사의 임사(臨死) 체험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대사는 견성체험 이후, 강소 땅 와관사라는 절에서 주석하던 중 우연히 병에 걸렸는데, 병이 낫지를 않고 점점 심해져 마침내 숨이 끊어지고(絶命) 말았다. 그런데 대중이 다비를 하려고 시신을 관 안에다 넣고 운반하려고 하는데, 관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 대중이 관을 열고 보니 연지 대사가 아직 살아계시더라는 것이다.

대사께서 깨어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당신은 그동안 도(道)를 깨쳐 안심하고 살아온 것인데, 이제 이러한 죽음을 당하고 보니 그런 정도의 도력(道力) 가지고는 생사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임을 크게 깨닫고 앞으로는 오직 염불수행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명심견성 후 미혹 · 업장 남아
생사 윤회 반복에 염불 정진
염불 위신력으로 호환 · 가뭄 막아
정토총림 구성해 1천 제자 키워



염불로 호랑이 조복시키고 가뭄에 단비 내려

그리하여 운서(雲棲)산을 찾아가 그곳에서 평생 염불수행을 하고 갈 것을 발원하고, 송나라 때 호랑이를 조복(調伏) 받으셨다는 복호 선사가 지은 암자에서 살기로 하셨다. 그런데 그 산중에는 호랑이가 많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다. 매년 수십 명이 호식(虎食)을 당했고, 그 지방 사람들은 해만 지면 삽작의 문을 걸어 닫고서 출입을 하지 않을 정도였다. 그런 말을 듣고도 연지 대사는 홀로 그 깊은 골짜기에 있는 암자를 찾아가셨고, 거기서 며칠 동안 높은 소리로 경을 독송하고 염불을 하고 많은 고혼(孤魂)을 위해 시식(施食)을 하니 그 후부터는 일체 호환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

이 어찌 염불의 위신력(威神力)과 가피력(加被力)이 아닐 것인가. 이 일로 그 고을 사람들은 연지 대사를 위대한 도인으로 믿어 받들게 되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이적이 일어난다.

연지 대사가 운서산에 주석한 지 얼마가 지나 날이 가물어 곡식이 말라 죽고 산천에 초목까지도 시들 정도여서 온 농민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과 그 지방 관리들과 유지들이 모여 연지 대사가 계신 암자에 찾아가서 무수히 예배 드리고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지성으로 간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대사는 "나는 단지 염불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며 아무런 도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까지 찾아오신 성의를 생각해서 염불이라도 해드리겠나이다" 하시고는 목탁을 들고 그분들과 같이 들로 내려 오셨다. 가물어서 먼지가 푸석푸석 나는 논과 밭을 다니시면서 목탁을 치며 높은 소리로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시면서 한시 바삐 비를 내려달라고 기원을 하셨다. 그랬더니 갑자기 먹구름이 온 하늘에 가득히 덮이고 뇌성벽력(雷聲霹靂)이 치면서 바라고 바랐던 비가 오기 시작했다. 흡족하게 비가 내리자 농민들은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뻐했다. 이를 계기로 연지 대사의 도력은 온 천하에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나라에서도 대사를 위해 절을 하나 크게 지어 드렸다 한다.

부처님 말씀과 행만 실천

연지 대사는 그 후 정토총림을 만들어 많은 스님들과 신도들을 교화해 문하인만 천여 명이 넘었다고 하며 도력 높은 제자들이 14명이나 되었다. 스님의 저술로는 유심(唯心)으로 종지를 삼아 사(事)와 리(理)를 융회하며 아미타경을 해설한 〈미타경소초〉와 선정쌍수(禪淨雙修)의 관점에서 고인들의 기연과 어록을 기록한 〈선관책진〉, 염불과 참선, 보살행 등의 일상수행법을 안내한 〈죽창수필〉 등 20여 종이 유명하다.

평생 분수에 넘친 생활을 하지 않아서 일찍이 '자신을 경책하는 32가지 조항(三十二自警)' 을 지어, 늙을 때까지 스스로 빨래하고 요강을 치우며 시자를 힘들게 하지 않았던 스님은 늘 평등한 대비심으로 대중을 교화했으며,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않았고, 부처님의 일과 행이 아니면 하지 않았다.

성품 깨닫고 염불로 보림하면 윤회 벗어나

그렇게 연지 대사의 세수가 80에 이르자, 세상 인연이 다 되어 임종의 때가 되었다. 하루는 제자들을 모아 놓고 간절히 당부하셨다.

"너희들은 앞으로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서 오직 정토수행에만 전념하거라. 아미타불 일념에 무량공덕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며, 한번 왕생하게 되면 일체의 모든 원을 다 성취하게 되는 것이니 오직 왕생극락만을 위하여 살아가야만 한다. 왕생을 위해서는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지성껏 염불을 해야만 하느니라."

대사는 이렇게 유훈을 내리신 후 서쪽을 향해 단정히 앉아 염불하시고는 고요히 세상을 떠났다.

연지 대사의 구도기를 살펴보면 견성하고도 보림(保任)을 잘 해서 남은 습기(習氣)를 제하지 못한다면 윤회를 벗어나기 어려운 반면, 성품을 깨닫고 나서 염불로 보림하면 생사해탈이 훨씬 수월함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연지 대사의 '권염불문勸念佛文' 을 통해 염불법의 수승함을 믿고 '발보리심 일향전념 아미타불' 하시길 간절히 발원한다.

"우리 모두에게 두루 염불을 권하오니,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시급히 염불하여 아홉 품계의 연화에 왕생합시다. 연화가 피어나면 부처님을 뵈올 수 있고, 부처님을 뵈면 법문을 들을 수 있으며, 마침내는 궁극의 불도(佛道)를 이루어 자기 마음이 본래 부처임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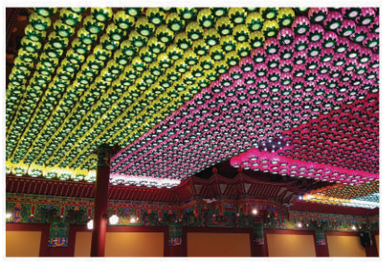
김성우(도서출판비움과소통 대표)



보련기획
전국 방방곡곡 자비의 등불을 밝힙니다!
연등자동승강장치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연등 자동승강장치란? 법당의 구조와 규모등의 특성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를 바탕으로 장엄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화된 프레임(틀)을 설치하여 자동으로 프레임을 상하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키므로 연등, 축원표등의 설치, 교체 등의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동승강장치 설치 효과
- 높은 사다리에서의 낙상으로 인한 부상위험과 공포에서 해방
- 법당의 규모와 모양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로 뛰어난 장엄효과
- 프레임(틀)을 보다높게 하고,연등을 정방형으로 정렬하여 넓은 시야확보
- 최소의 인력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등,축원표 설치 교체 가능
- 철저한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로 반영구적 사용


원불


위패


인등

2017 카렌다 주문 접수
카렌다

보련기획 BORYEON | 010-5381-9355 031-526-2201~2 www.boryeon.com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189번길 27 A동 (모현면 일산리 549-1)
찬덕연등의 전통과 기술력을 계승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1.25~2017.1.3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사찰불화명작강의	강소연	불광출판사
2	붓다컬러링(손끝으로 만드는 마음속평화)	매튜스미스	(주)조계종출판사
3	붓다아비담마	멤틴몬/김종수	불광출판사
4	대방광불화엄경강설50(三十七.여래출현품)	여천무비	담앤북스
5	유식으로읽는반야심경	요코야마코이츠/허암	민족사
6	모든순간껴안기	아남 틈텐/임희근	담앤북스
7	안되겠다내마음좀들여다봐야겠다	용수	나무를심는사람들
8	테라가타-장로게경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9	니까야로읽는금강경	이중표	민족사
10	혜민스님의따뜻한응원(365일마음달력)	혜민	수오서재



"지공·나옹… 고려말 재점화된 禪宗"

한국 선불교의 원류 지공과 나옹 연구

자현 스님 지음 | 불광 펴냄 | 2만 8천원



4개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계종 교육아사리 자현 스님이 여말선초 붓다의 후신(後身)으로 존숭받은 지공 선사와 나옹 화상에 대한 시리즈 논문 13편을 엮어 한 권의 책으로 펴냈다. 이 책은 지공과 나옹에 대한 입체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 선불교의 원류를 재조명하며 조계종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큰 목적을 갖는다.

지공·나옹 선사 연구는 필수

〈태종실록〉 권30에 의하면, 조선 태종 이방원은 불교를 배척했음에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지공과 나옹 이후로, 내가 보고 아는 바로는 한 승려도 도에 정통한 이가 없다(我國自指空 懶翁之後 予所見知者 無一僧精於其道者)." 이는 당시 지공과 나옹의 위상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할 것이다. 지공과 나옹은 현대의 불교의식에서도 빠지지 않고 증명삼화상(證明三和尙:지공·나옹·무학)으로 모셔진다. 지공과 나옹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불교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한국 선불교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지공과 나옹에 대한 연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한국 선불교에는 인도불교의 피가 흐른다. 인도의 왕자 출신으로 고려에 머문 지공 선사의 막대한 영향력 때문이다. 그리고 지공의 수제자 나옹은 임제종의 제 18대 법손 평산처림의 법맥도 계승한다. 즉 인도의 선과 중국선종을 모두 계승한 것이다. 또 나옹은 현 조계종의 법맥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법맥의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조계종의 시원은 보우가 아닌 나옹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공은 인도불교가 이슬람의 공격으로 사라진 후, 대승불교의 잔존문화 속에서 출가한 왕자 출신의 승려다. 지공은 1300년 중인도 마가다국의 국왕인 만(滿)과 남인도 향지국의 공주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는 그의 기록에 따르면 부계로는 붓다, 모계로는 달마 대사의 혈통이다. 8세에 인도불교의 3대 사찰 중 한 곳인 나란타사로 출가해, 10여 년간 반야학과 계율을 수학한다. 이후 스리랑카에서 선불교를 수행한 후 티베트를 거쳐서, 차마고도를 따라 운남을 경유해 원의 수도인 대도(현 북경)에 도착한다. 그리고 원나라 제 6대 황제인 진종의 어향사(御香使) 신분으로, 1326년 금강산의 법기보살에게 향공양을 올리기 위해 고려를 찾는다. 당시 고려불교는 원 간섭기에 따른 티베트불교의 영향으로 대처승이 절반이나 되는 등 극히 세속화돼 있었다. 지공은 1328년 9월까지의 총 2년 7개월을 머물면서, 하루는 선(禪)을 설하고 하루는 계(戒)를 설하며 고려의 풍속을 일신시키고 선불교의 기상을 중흥하게 된다. 지공은 대승불교의 계율관을 갖고 있던 선승이다. 지공은 대승의 무생계(無生戒)를 통해서 고려불교를 교화하는데, 이는 이후 고려불교의 계율관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공민왕에 의해서 원 간섭기가 끝나는 시기부터 고려불교는 신속하게 청정성을 회복하는 저력을 발휘한다. 즉 지공의 계율 강조가 고려불교의 청정성 회복에 초석을 마련한 것이다.

이런 영향으로 지공이 원의 대도로 돌아간 이후에도, 고려에서 유학 가는 선승들의 다수는 지공을 참배하고 가르침을 받는다.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수제자였던 공민왕의 왕사 나옹과 〈직지〉로 유명한 백운경한, 그리고 태조 이성계의 왕사인 무학자초와 정지국사 축원지천이다. 지공과 이들 선승들의 노력에 의해서, 고려불교는 티베트불교의 그늘을 벗어나 신속하게 청정성을 회복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지공이 고려불교에 남긴 유산은 실로 엄청나다고 하겠다.

한국 선불교의 완성자, 나옹선사

나옹은 20세에 친구의 죽음을 계기로 문경 대승사 묘적암의 요연 선사의 문하로 출가한 후, 25세까지 각지를 두루 유력하며 수행하다가 양주 회암사에 이르러 4년간의 장좌불와를 통한 용맹정진 끝에 28세의 나이로 깨달음을 얻게 된다. 나옹은 깨달음을 증득한 직후 원나라로 유학을 떠나, 대도의 법원사에서 지공을 참배하고 문하에서 수학한다. 이후 중국의 불교유적과 선승들을 참례하는 과정에서, 임제종의 18대가 되는 평산처림의 인가를 받게 된다. 그리고 계속 성적순례를 하다가 수도로 되돌아와서 지공에게도 인가를 받는다. 고려로 돌아온 나옹은 공민왕 말기에 불교계의 중심인물로 대두된다. 공민왕의 불교개혁에 발맞춰 고려불교 최대의 초승과(超僧科)인 공부선(功夫選)을 주도하고, 왕사가 되어 고려불교의 발전과 변혁을 도모한다. 그러나 공민왕이 시해되고 우왕이 옹립되는 과정에서, 나옹 역시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당시 나옹에 대한 탄압 명분은 나옹이 중창(修造)한 회암사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즉 최고 권력자를 위협할 정도로 명성이 높았던 것이 죄목이었던 셈이다. 결국 나옹은 여주 신륵사에서 돌연 열반하게 된다.

열반 이후 무수한 사리가 분신하여 증가하는 등 기이한 이적들이 속출하면서, 나옹에 대한 대대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로 인하여 나옹에 대한 추모열기가 전국을 휘몰아치게 되고, 마침내 조선 초에 이르러서는 붓다의 후신으로까지 평가되며 신성화되기에 이른다.

나옹은 또 한국불교의 승단 안에서도 증명삼화상이라는 신화구조를 통해 오늘날까지 모든 불교의식문(佛教儀式文)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다. 이 외에도 모든 사찰에서 새벽예불 때 올리는 행선축원 역시 나옹의 발원문을 사용한다.

조계종과 한국선의 원류를 찾아서

흔히 현대의 조계종을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확립된 구산선문(九山禪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선종은 스승과 제자의 상전(相傳), 즉 법맥을 통해서 계승되는 불교다. 그러나 원 간섭기를 거치면서 고려 선종의 전승, 즉 법등은 완전히 단절되고 만다. 이 단절된 법맥과 법등을 원나라의 임제종으로 유학해서 다시금 이어오는 인물이, 바로 나옹과 보우 같은 유학승들이었다. 즉 현대의 조계종은 이들에 의해서 고려 말에 새롭게 재점화된 선종인 셈이다.

김주일 기자

자연은 가장 오래된 經典

지율스님의 산막일지

지율 스님 지음 | 사계절출판사 펴냄
1만 5800원



지율 스님〈사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닉네임은 '천성산 지킴이'이다. 스님은 생명을 파괴하는 자본과 권력에 맞선 오랜 단식을 끝내고, 걸음도 걷지 못하는 아픈 몸으로 경북 영덕 칠보산 기슭 마을에 들어왔다. 그곳 산막에서 지율 스님은 심고, 가꾸고, 수확하고, 나누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생생히 기록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스님은 죽음의 문턱서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서로 일손을 보태고 음식을 나누며, 오순도순 투덕투덕 정을 쌓아가는 마을 어르신들의 일상을 통해 자연스레 생명의 귀함과 인간사의 애틋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초봄 땅이 풀리자마자 시작돼 절기에 따라 진행되는 소농들의 농사 이야기를 통해 농촌의 한해살이를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다.

이 책은 지율 스님의 농사일지이자, 열 가구가 모여 사는 오지 마을 어르신들이 평생 땅을 일구며 살아온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이다.

자연의 순리가 곧 깨달음

천성산 살리기를 위해 5차에 걸쳐 단식한 지율 스님은 지난 2006년 단식을 중단했다. 그리고 칠보산 기슭에 정착한다. 처음 한동안은 기웃거리는 외부인에 불과한 스님은 문 앞에 슬그머니 음식을 놓고 가고, 멀쩡한 데가 없는 낡은 집을 손봐주고, 어설픈 텃밭 농사를 거들어주는 마을 어르신들의 다정한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스님은 '마을 사람'이 되어간다.

닷새에 한 번 버스가 들어오는 깊은 산속 오지 마을서도 어르신들은 쉬지 않고 일했다.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손발을 가만 두는 날이 없었다. 몸도 마음도 상할 대로 상해 삶의 끄트머리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스님은 세상 끄트머리 같은 그곳에서 죽음이 아닌 삶 쪽으로 돌아설 수 있었다. '봄에 싹이 터서 그해 가을에 열매를 맺고 죽는 일'이라는 '한해살이'의 정의처럼, 심고 가꾸고 거두고 '죽음'과도 같은 겨울을 보내고 다시 또 씨를 뿌리는 농촌의 삶을 지켜보며 죽음의 터널서 빠져나와 다시 자기 삶을 심고 가꿀 수 있게 됐다.



자연의 신음 소리에 함께 아파하며 쓰러져 가던 지율 스님은 바람 소리, 빗소리, 할배의 장작 패는 소리, 댓잎이 사그락거리는 소리, 할매의 구성진 노랫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몸을 일으켰다. 긴 겨울 끝에 다시 봄이 오고, 또다시 낫과 호미를 드는 소농들의 삶. 돌고 도는 자연의 순리가 곧 깨달음이요, 경전이었다.

오지 마을 농촌서 한해살이

이 책에는 칠순, 팔순을 넘긴 어르신들이 자기가 태어난 혹은 시집 온 집에서 예전 방식 그대로 농사를 지으며, 한 해를 보내는 모습이 담겨 있다. 오랜 시간 변해가는 자연을 기록해온 지율 스님은 이 마을서도 관찰자이자 참여자로서 어르신들의 농사 일지를 대신 써내려간다. 한 해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온 마을이 모여 동제를 지내고, 길일을 택해 장을 담그고, 분뇨를 모아 거름을 만들고, 소를 몰아 밭을 가는 식의 전통적인 농경은 이 땅에 얼마 남지 않은 귀한 풍경이라 여기며 사소한 일화 하나까지 꼼꼼히 수집하듯 적어 넣었다.

도시 사람들에게 계절의 변화라고 하면 옷차림이 달라지는 정도겠지만, 농촌에서는 마을 전체가 앉는 자리가 달라지고 하는 일이 바뀐다. 한 장 한 장 달력을 넘기듯 지율 스님의 일지를 따라가다 보면, 철따라 달라지는 농촌의 풍경과 쉴 틈 없이 움직이는 농부의 손과 발이 눈앞에 그려진다. 농촌에 고향을 둔 이들이라면 잠시 향수에 젖을 것이고, 마트 진열대서 계절 감각을 잃은 도시인들이라면 식탁 위에 놓인 곡식과 작물들이 어떤 노동을 거쳐 온 것인지 대략적으로나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기록한 적 없는 어르신들 작은 일대기

이 책에 등장하는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분명한 '캐릭터'가 있다. 삼십오 년 동안 꼬박꼬박 마을 살림살이를 수첩에 적어온 이장님, 늘 막대사탕을 물고 다니며 사탕이 입안서 녹는 시간으로 거리를 계산하는 나무 할배, 이십여 년 전 당뇨로 시력을 잃었지만 여전히 나무를 하고 밭일을 하는 자야 아재, 이야기 중에 늘 '대한민국'을 끼워 넣는 옥이 할아버지, 구성진 노랫가락에 시름을 잊는 옥이 할매와 진국 할매, 도시에 나갔다가 팔 하나를 잃고 고향으로 돌아와 술에 절어 사는 총각 호영이 등 지율스님은 누구 하나 허투루 쓰지 않고, 짧은 글 안에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드러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심성의껏 묘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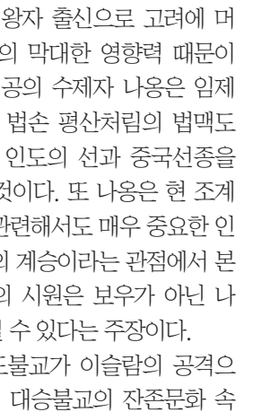
구십이 넘은 눈먼 할매, 팔순이 넘은 나무꾼 할아버지와 할매, 소를 모는 아재, 호미질로 하루를 시작하는 할매들, 도시에서 싸움질하다 크게 외상을 입고 고향에 들어와 술에 쪄들어 사는 청년, 도시로 나갔다가 고향이 그리워 가족을 두고 혼자 돌아온 초로의 아재, 귀 어둡고 눈먼 가난한 사람들… 등등.

저자는 "그분들의 거친, 그러나 착한 마음들을 깊이 들여다본다. 사람이 풍경을 좌우한다는 말을 이곳에 살면서 알게 되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을 때는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이라도 한 장의 사진도 찍히지 않는다"고 밝힌다.

풀 한 포기, 나무 열매 하나, 도롱뇽 한 마리가 귀하듯 지율 스님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분 한 분의 삶이 다 소중했다. 땅에 엎드려 평생을 심고 가꾸고, 낳고 기르고, 거두고 나누어왔지만 삶의 끝자락에 온 지금까지 누구 하나 그들의 삶에 주목하지 않았다. 지율 스님은 자신의 삶에 생기와 온기를 불어넣어준 마을에 은혜라도 갚듯이 할배의 발, 할매의 한숨, 아재의 손, 젊은이의 상처에 두루 눈길을 주고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 완성한 이 책은 곧 마을 어르신들의 작은 일대기이자, 처음으로 기록된 그 마을의 역사이기도 하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최상승 방편의 비밀신주!
원하는 바를 즉각 얻을 수 있게 하는 진언, 진언 중의 근본진언!



수구즉득대다라니
隨求卽得大陀羅尼

"나(부처님)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법을 널리 설하여 헤아릴 수가 없지만, 그 가운데 이 진언이 가장 최상이며 제일이니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본문에서)

우리말 번역과 함께, 가피의 효험, 사서 방법, 기도법 등을 덧붙여 누구라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불공금강 한역漢譯/석법성 역주/국판/160쪽/ 9,000원

마음을 울리고
영혼을 일깨우는 맑은 소리!

개에게 우유를 먹이는 방법

17년 동안 쌓인 지하철 〈풍경소리〉의 에센스!

고요한 산사의 풍경소리처럼, 삶에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고, 맑은 여운을 남기는 100편의 이야기!

고암 정병례 선생의 전각그림과
박준수 화가의 동양화가 어우러져 깊이를 더해준다.

글 풍경소리/전각 정고암/그림 박준수/국판/216쪽/13,8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국립중앙박물관서 4월 25일~10월 22일 전시되는 옥천사 괘불(경남유형문화재 제299호).

국립중앙박물관, 신년 주요 전시계획 발표

국중박, 석가탄신일 '옥천사 괘불展'

지역서도 불교 관련 전시 이어져

호남 불교 조명 '마음이 곧 부처' 등

2016년 韓日반가사유상 만남

일평균 관람객 2,229명 '3위'



국립부여박물관 특별전 '백제 왕실 사찰, 왕흥사'서 전시되는 '치미'

전국 국립박물관, 2017 불교 관련 전시 '풍성'

전국 곳곳서 더욱 다양해진 불교 관련 전시가 관람객들을 찾아간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영훈)은 1월 23일 교육관 1층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립중앙박물관 및 13개 지역 소속박물관 2017 주요 전시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진행된 국립중앙박물관의 대형 괘불전이 올해도 이어진다. 19세기 전반 경남지역 괘불의 신앙과 특성을 조명하며, 4월 25일~10월 22일 고성 옥천사 괘불 등 4점을 전시한다. 옥천사 괘불(경남유형문화재 제299호)은 1808년(순조 8년) 제작된 견본채색 대형불화로, 높이 9.99m 너비 3.36m에 달한다. (02)2077-9000

지역서도 불교 관련 전시가 이어진다.

국립경주박물관은 3월 7일~5월 7일 특별전 '세계유산 백제'를 마련한다. 웅진 · 사비기의 백제문화를 신라문화와 연관성을 토대로 조망하며, 미륵사지 석탑 출토 사리장엄 등 100여건이 소개된다. (054)740-7500

국립광주박물관은 호남 불교의 정신적 토대 '구산선문'의 역사와 선맥 계승을 조명하는 특별전 '마음이 곧 부처卽心是佛-호남 불교미술의 정수'를 진행한다. 8월 14~10월 22일 보림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및 탑지석 등 100여점을 선보인다. (062)570-7000

국립부여박물관은 왕흥사의 창건과 운영과정을 규명하고, 수준 높은 백제의 불교 공예와 건축 등 조명하는 특별전 '백제 왕실 사찰, 왕흥사'를 실시한다. 기간은 7월 25일~10월 9일로, 왕흥사 동승방터 출토 '치미' 등 300점 작품을 전시한다. (041)833-8562

국립대구박물관은 불교 관련 특별전 1건 및 테마전 2건을 마련한다. 먼저 '관음(觀音), 소리를 보다'는 불교의례의 소리들과 중생의 소리를 살피는 관음보살을 조명하는 특별전으로, 국보 제183호 금동보살입상 등 80여점을 선보인다. 기간은 5월 23일~7월 30일이다. 또한 테마전 '흙에서 찾은 불상'과 일연 스님이 저서한 〈삼국유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는 '민족의 역사책, 삼국유사'를 진행한다. 각각 2월 7일~9월 10일, 9월 22일~12월 10일 열린다. (053)768-6051

국립춘천박물관은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 등 50여점을 선보이는 특별전 '학수고대-새로운 전시를 기다리며'를 3월 29일~10월 1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은 9월 5일~12월 31일 녹유연꽃무늬서까래기와 등 100점을 소개하는 테마전 '미륵사지의 백제 수막새'를 진행한다. (033)260-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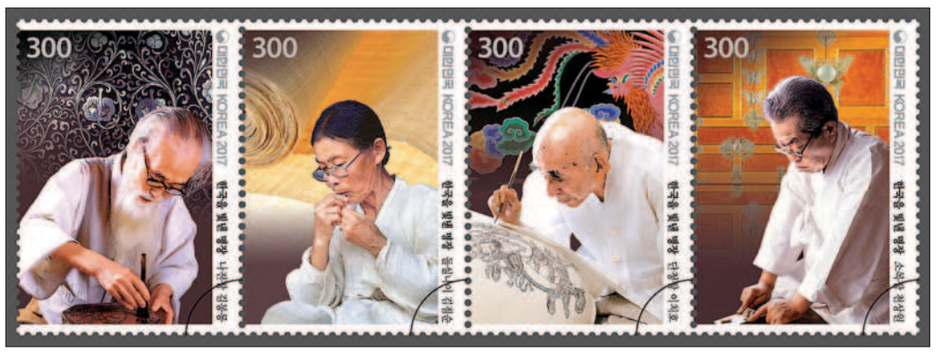
한편 이날 이영훈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발표한 2016년 관람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3일~6월 12일 진행된 '한일 국보 반가사유상의 만남'이 일평균 관람객 2,229명(총 관람객 4만6,801명)을 동원, '아프가니스탄의 황금문화', '보존과학, 우리 문화재를 지키다'에 이어 하루 관람객수 평균 3위를 차지했다. '한일 국보 반가사유상의 만남'展이 인기를 끈 이유에 대해 이영훈 관장은 "한일을 대표하는 명품반가사유상 단 2점만으로 전시가 이뤄졌단 점이 관람객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갔다고 생각한다. 일본 관람객이 많이 방문한 점도 1가지 요소"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장은 신년 계획에 대해 "2005년 10월 개관 후 12년차를 맞는다. 세계적 박물관으로 거듭날 앞으로 100년을 위해 내실을 다질 것"이라며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각 지역 소속 박물관 활성화 지원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단청장 만봉 스님, 우표로 기린다

우정사업본부, 25일 명장 기념 우표 발행



한국 문화유산 명맥 전승에 기여한 명장 우표 낱장 이미지.

시대를 대표한 단청장이자 불모(佛母)였던 故 만봉 스님(1910~2006)을 우표로 만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기덕)는 "전통공예 분야에 종사하며 한국 문화유산의 명맥을 잇는 데 크게 기여한 국가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4인을 선정해 기념우표 4종 총 56만장을 1월 25일부터 발행한다"고 1월 24일 밝혔다.

명장 기념우표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만봉 스님을 비롯해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김봉룡 나전장과 국가무형문화재 제32호 김점순 곡성 돌실나이 보유자, 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천상원 소목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만봉 스님은 14세부터 예운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 전통 불교 미술의 양식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스님은 교화용 불화, 건물의 단청까지 두루 제작했고, 전통적 소재 위에 화려한 색감과 상서로운 의미를 더하여 현대적으로 표현해 왔다.

이와 더불어 김봉룡 나전장은 검은 옻칠과 대비되는 화려한 빛깔을 가진 자개를 섬세하게 오려 작품을 만들었으며, 김점순 돌실나이 보유자는 대마[삼] 줄기를 쪼개어 실을 만들어 삼베를 직조하는 장인이었다. 통영 출신의 천상원 소목장은 장롱을 비롯한 가구를 만들 때 나뭇결의 자연스러운 미를 살려내는 기술이 뛰어났다. 특히 상감기법으로 硨磲 무늬를 장식하는 솜씨로 유명했다.

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은 "선정 장인들의 각기 기술은 다르지만 오랜 기간 뛰어난 솜씨로 전통공예 분야에 종사하며, 한국의 옛 멋을 발전시켜왔다"면서 "이번 우표발행으로 한국 전통공예의 아름다움과 기술의 우수성을 국내 · 외에 널리 알려 전통공예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첫 삽

템플스테이 · 사찰음식 등 체험 가능

범어사의 12년 숙원 사업 '선(禪)문화교육관'이 드디어 첫 삽을 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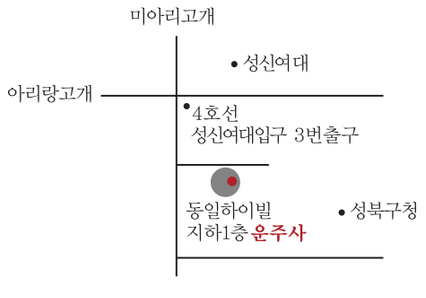
선문화교육관은 2005년 10만평 규모로 추진됐던 '선문화타운'이 환경훼손 우려로 중단된 후 다시 재개된 불사다. 전통 기와 미를 조합한 한옥형 지붕 건물 2층으로 총 2동이다. 건축면적은 900여 평(2900㎡)이며 2018년 3월 완공 목표다. 범어사 측은 "선문화교육관을 통해 숙박형 템플스테이, 명상체험, 사찰음식 등 다양한 불교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공식은 2월 5일 오후 2시 범어사 상마을에 위치한 사자암서 개최된다. 하성미 기자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불교도서, 명상음반,
불교용품 전문
운주사

www.unjusa.com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1층 Tel. 02-3672-7181



유일사로 오르는 길에 낀 자욱한 안개

저 절로 가는 길
③ 유일사서 망경사 가는 길

하늘아래 첫 동네서 마주한 心象

카빌라바투를 멸망시키려고 군대를 일으킨 코살라국의 비두다바 왕이 국경을 넘다 부처를 발견했다. 부처는 잎이라고는 없는 마른나무 밑에 앉아 뜨거운 햇볕을 견디고 있었다. 비두다바는 말을 몰아 부처에게로 다가갔다.

"잎이 무성한 니그로다 나무도 있는데 왜 마른 나무 밑에 계시지요?"

"친족의 그늘만큼 시원한 그늘이 어디 있겠소."

부처의 말뜻은 카필라 성을 공격하여 당신의 친족을 죽이지 말아 달라는 부탁이었다. 그 말을 절실하게 전하려 그늘이 없는 마른나무 아래 일인시위를 벌인 것이었다.

비두다바는 부처의 부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처의 나라 카필라바투를 무너뜨리고 사카족의 씨를 말렸다고 〈증일아함경〉은 전한다.

부처의 시대처럼 전쟁이 나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른바 가족 해체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부처의 시대보다 훨씬 마른나무 아래에서 살고 있으며, 조만간 나무 한 그루 없는 사막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우울한 시대상황 속에 태백시 터미널로 가는 버스는 추적추적 내리는 겨울비를 흐린 창문으로 보여 주고 있었다. 그런데 이 을씨년스러운 풍경은, 버스가 정선 고개 1,000m를 넘을 때 수증기처럼 사라졌다. 놀랍게도 햇빛이 구름을 열고 나타나서 창문에 어른거렸다.

변덕스러운 날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태백시 터미널에서 다시 시외버스를 타고 유일사 매표소로 내려서자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나는 눈에 보이는 풍경들을 믿을 수 없었다. 나무들 사이를 쏘다니는 안개도 믿을 수 없었다.

유일사 가는 일반버스를 갈아타기 전 나는 터미널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시켜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보리차로 입을 헹구면서 나는 물으나 마나 한 소리를 식당주인에게 건넸다.

"여기선 보슬비 내렸다 말았다 하는데 태백산엔 눈이 오겠죠?"

식당주인은 보고 있던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말했다.

"그걸 어찌 알겠드래요. 태백산 마음 아니겠드래요?"

식당주인 말이 맞다. 태백산은 제 힘만으로 날씨를 다스리기에는 너무 큰 산이다.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인 검룡소와 황지연못을 품었고, 함백산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산과 봉우리들을 거느렸다. 17.44㎢의 면적으로 1989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산이다.

그토록 큰 산인데도 등산객들이 쉬이 태백산 등정에 나서는 까닭은 뭘까. 높되 험하지 않고, 크되 그 품이 아늑한 까닭이다. 유일사에서 오르는 길은 8분 능선의 완만한 언덕이므로 등산 초보라 할지라도 그다지 힘들지 않다. 출발지점이 이미 해발 890m라서 정상인 장군봉(1567m)의 반은 접고 들어가는 셈이다.

장군봉으로 오르는 길에 눈은 정강이에 닿을 정도로 쌓여 있었다. 보드득 보드득. 아이젠을 찬 발에서 오돌뼈 씹는 소리가 난다. 겨울 안개가 짙어 등산객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두런두런 곁을 지났다. 새벽에 정상에 올랐다가 하산하는 사람인가보다. 눈뭉텅이가 안개를 뚫고 난데없이 툭툭 떨어졌다. '유일사 100M'. 유일사를 가리키는 아라비아 숫자는 이처럼 비현실적인 풍경의 한귀퉁이에서 나타났다.

유일사로 내려서는 계단은 길고 구불구불했고 계단의 끝은 안개에 잠식당한 상태였다. 얼음이 박힌 계단에 조심스레 발을 내려놓기를 몇 분이 지났을까. 흐린 간유리 너머의 세상, 비구니 스님만 상주한다는 유일사가 보였다. 태백산의 음지에 속하는 골짜기라 절 전체가 꽁꽁 얼어붙었고, 무량수전 앞마당은 온통 빙판이었다. 나는 얼음으로 지은 집인 양 보이는 무량수전 앞에 서 있을 뿐, 감히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 안에 금색 불상이 있고 촛불이 타오르고 있으리란, 그 흔한 상상도 꽁꽁 얼어붙어 버렸다.

나는 빙판 위에 서서 머리만 조아려 삼배를 올렸다. 그리고는 내려왔던 계단길을 다시 올라가 동토의 절에서 빠져나왔다. 산등성이에 올라붙는 길에서 나는 방금 들른 유일사를 생각했다. 왠지 꽃 피는 봄에 들러야만 비구니 스님들에게서 겨우 절의 유례라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입대하는 장정처럼 나는 훗날을 기약했다.

태백산의 명물인 주목이 하나둘 보이더니 우르르 무리를 이룬다. 나는 장군봉 아래 주목 군락지로 들어서고 있었다. 눈더미를 받치고 선 주목의 뒤틀린 줄기가 힘겨워 보인다. 태백산 주목들은 겨우내 눈꽃과 상고대를 번갈아 피우는 사이 얼었다가 녹고, 녹았다가 얼기를 되풀이한다. 나무껍질은 얼다 못해 얼어 터진다. 침엽수인 주목은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 소백산, 태백산, 오대산, 설악산 등 고산지대에 모여 사는 한대성 식물이다. 더디게 성장하는 대신 목질이 단단해서 옛사람들은 주목을 잘라 병장기의 재료로 사용했다. 죽어서도 여간해서는 썩지 않아, '살아서 천 년, 죽어서 천 년'이라는 경구를 만들어낸 나무이다.

바람이 불자 잣나무, 졸참나무, 분비나무들이 진저리를 쳐 풀풀 눈을 털어낸다. 반면에 주목은 바늘잎이 촘촘히 뒤덮인 나뭇가지를 두어 번 뒤채여 뭉텅뭉텅 눈을 털어낸다. 그러나 장군봉이 가까운 길에는 유독 죽은 주목이 많았다. 하늘로 뻗은 고사목의 부러진 가지가 더 뾰족하고 메말라 보였다. 바람이 거세졌고 안개의 이동속도도 빨라졌다.

내가 걷는 길에서는 눈보라가 몰아쳤다. 태백산을 감싼 안개도 여기 와서는 하얗게 얼어 죽을 판이었다. 태백산 정상인 장군봉의 나무들은 이미 죽었거나 겨우 살아있었다. 그 나무들이 쿠시나가르의 언덕을 오르는 부처 일행을 먼발치서 조심스레 바라보는 말라족 같았다. 모두 지독히도 가난한 백성이거나 사람 취급이라곤 받아본 적 없는 불가촉천민들이었다.

태백산 정상에는 제단이 세 군데나 있다. 상단격인 장군봉 제단과 중단격인 천제단, 그리고 하단으로 이뤄졌다. 불교국가였던 신라와 고려 때도 이들 제단에서 제사를 지냈다. 우리나라 불교는 토속신앙과 습합하여 절에 산신각을 두니 이상하게 여길 일도 아니다.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시대에도 제사는 끊이지 않았다. 나라가 잘 되는 일이라면 산신령이든 단군이든 단종의 원혼이든 모셔다가 술과 과일과 돼지머리를 바쳤다. 대한제국의 항일의병장 신돌석은 백마를 잡아다 바쳤다. 지금도 이들 제단 곁을 지나면 무당임을 금세 알 수 있는 이들이 소망을 입에 담아 주절거리고, 등산객들은 물론 대학교 다니는 여학생까지도 두 손 모아 싹싹 빌고 있다.

하단 주변은 비교적 바람이 잔잔한 평지이다. 하단에서부터 당골로 가는 길과 문수봉 가는 길로 갈리고, 문수봉 가는 길은 백두대간 가는 길과 갈린다. 나는 망경사(望鏡寺)가 있는 당골길을 선택했다.

망경사를 처음 안 건 20여 년 전이었다. 그때 나는 몇몇 친구들과 태백산에서 해맞이할 요량으로 밤기차를 탔다. 유일사 앞에서 랜턴을 켜고 단숨에 장군봉에 올랐으나 어둠은 고드름처럼 꽁꽁 뭉쳐 있었고, 해는 동해바다의 두꺼운 이불 아래서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밤새 천제단 곁에서 발을 구르며 동트는 하늘을 바라봤지만 기대했던 해는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하산길에서 만난 망경사는 태백산 새벽바람에 움츠러든 누추한 암자에 지나지 않았다. 가난한 집 밥그릇을 닮은 전각 두어 채뿐이었다. 비구니인지 공양주 보살인지 알 수 없는 중년 여인이 우리를 대접하려고 나무를 때서 아침밥을 준비했다.

지금은 대웅전, 용정각, 범종각, 요사채, 객사 등 제법 절 모양을 갖추고 있다. 망경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절이다. 하늘 아래 첫 절이라는 지리산 법계사나 설악산 봉정암, 치악산 상원사보다 높다. 망경사 경내에 있는 용정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샘이다. 그만큼 접근성이 떨어졌으나 등산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졌다. 새로 조성한 문수보살 석상과 석탑은 번영을 누리는 망경사의 현주소이다.

망경사는 신라 진덕여왕 때 자장법사가 창건했다. 정암사에서 말년을 보내던 자장이 문수보살 석상이 땅속에서 나왔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지은 절이 망경사이다. 혹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데 있는 절인 만큼 달을 맨 먼저 본다 하여 망월사라 부르기도 했다. 달을 거울로 비유한 것은 해묵은 비유이거니와, 거울에 비친 마음의 실상을 보고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뜻이다.

가족 해체의 마른나무가 우리 사회의 풍경화일 때 거울을 보는 마음은 겨울과 같지 않겠는가. 곧 봄이 온다. 그때 나는 나와 내 가족, 내 모든 주변을 봄꽃처럼 피어나게 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봄이 오면 꽃피는 언덕길을 걸어 유일사에 들를 것이다.



고원영(조계종 산악회 수석부회장)

"가족해체의 시대단상
강추위의 겨울과 같아
태백산 사찰서 본 희망
봄소식처럼 전하고 싶어"

• 걷는길 : 유일사–장군봉–천제단–하단–망경사–호식총–당골
• 걷는시간 : 5시간


눈과 얼음, 안개로 뒤덮인 유일사 무량수전.


장군봉의 기울어진 주목.


하늘과 땅의 뜻을 소통했던 천제단.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만난다는 것

겨울산길을 걷는다. 한 시간째 세상엔 아무도 없다. 그렇게 길은 깊어갔다. 깊어진 길에서 하얗게 마른 꽃들을 만났다. 꽃이었던 꽃들. '생(生)'과 '사(死)' 사이에 저렇게 많은 글자가 있었다니. 어쩌다 나는 이 깊은 곳을 찾아와, 이 하얀 꽃들 앞에 서있는 건지. 어쩌다 이 설명할 수 없는 꽃들 앞에서 새로운 글자를 보는 건지. 이 알 수 없는 시간은 어떻게 내 앞에 와 있는 건지.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신현득 작가의 동화 팔만대장경

③ 불상의 손가락을 보수한 공덕

시체 황금으로 변화시킨 '등지'의 깨달음

마갈타 나라 아사세왕이 신하들로부터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에 광명이 나는 아기가 있다 하옵니다."

왕은 그 아기의 손가락 광명을 보았으면 하고, 밤 시간에 아기를 데리고 오도록 했습니다.

과연 아기 손가락에서 광명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기 손가락에서 나는 광명이 대궐 안을 환하게 밝힐 정도였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재산이 있는 장자였습니다. 아사세왕이 아가 손에 선물을 들려주며, 아기를 잘 키우도록 장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기에게는 등지(燈指)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등불 손가락'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등지는 자라서 나쁜 친구를 사귀고, 낭비를 일삼았습니다. 타이르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도적에게 재산을 몽땅 잃었습니다. 손가락의 광명이 줄어지다가 아주 없어졌습니다. 가족이 흩어졌습니다. 등지는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등지는 뉘우쳤습니다.

"어쩌다가 이 꼴이 되었는고? 내 잘못이다. 부모님 유산을 잃고 나니, 친구까지 잃었다."

거지가 된 등지는 누더기를 걸쳤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졌습니다.

'세상에서 남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자.'

세상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일은 송장을 주무르는 일이었습니다. 적은 품삯을 받기로 하고, 죽은 사람의 시체를 업고 무덤까지 날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나무라고 뉘우쳤습니다.

"내 잘못이다. 등지라는 이름이 참으로 부끄럽구나. 죄갚음을 해야 한다. 참아야 한다. 참자."

힘들고 어려운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업었던 송장이 등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떼려 해도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등지를 보고 피했습니다.

할 수 없이 등지는, 송장을 업은 채 천민이 사는 전타라 마을로 갔습니다.

"누가 내 등에 붙은 시체를 떼어주시오. 곱으로 일을 해주겠소."

전타라 몇이 달려들어 힘을 모았으나 시체는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다른 전타라 천민들이 등지를 내쫓았습니다.

"시체를 업고 와서 마을을 더럽히다니 빨리 나가거라!"

천민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성문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등지는 피를 흘리며 쫓겨났습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 꼴인가? 손가락으로 세상을 밝히던 등지가 왜 이 꼴인가?"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있으니, 성문을 지키던 문지기가 부축을 해서 거지의 굴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림 · 강병호

"아니? 저 사람이 시체를 업고 오네."

거지 굴에 모여, 밥 얻으러 갈 궁리를 하던 거지들이 놀라서 모두 달아났습니다. 거지들조차 등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지들에게도 배척을 당하자 이제 등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시 통곡을 하고 있는 그 때였습니다. 탁, 소리를 내며 짊어졌던 송장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살았군!"

하고 자세히 보니 송장이 순금이었습니다. 송장의 손가락 하나를 뜯어내니 다시 순금으로 돋아나는 것이었습니다. 발을 한 쪽 뜯어내니 다시 순금으로 돋아나는 것이었습니다. 등지는 황금을 뜯어내어 거지 굴에다 쌓았습니다.

등지에게는 새 옷이 생겼습니다. 좋은 집이 생겼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토지와 가축이 생겼습니다.

"등지 장자님!"

하고 마을 사람들이 등지를 받들어 장자로 모셨습니다. 지위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모여 와서 모두 반가운 인사를 했습니다. 어제까지 본체만체하던 친구들이었습니다.

황금과 돈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잃었던 나라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소경이 잃었던 눈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선정에 든 도인이 도를 깨쳤을 때는 그 기쁨이 여기에 비할 수는 없겠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등지가 거지에서 다시 황금을 쌓은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아사세왕이, 신하를 보내어 황금을 얻어갔습니다. 그런데 대궐에 닿자, 그것은 송장의 팔 한쪽이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등지가 직접 금을 들고 가서 왕에게 올렸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황금이었습니다. 송장에 놀랐던 왕이 매우 기뻐하며 등지를 칭찬했습니다.

이처럼 등지의 일생은 등지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위를 잃고, 송장을 업고 다니는 최하급 천한 일을 하다가 지위를 다시 찾았다. 그러나 이 황금은 극히 가볍고 독사나 독벌레 같아서 오래가지 못한다. 진정한 보배는 부처님 말씀이다!"

등지는 재물을 나누어 남에게 주고, 비구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수도하여 곧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부처님 제자들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등지 비구가 지은 인연은 어떤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등지 비구는 전생에, 세상을 밝히는 많은 공덕을 지었다. 불상의 손가락 하나가 부러진 것을 보고, 지극 정성으로 보수하고 금박으로 도금하였느니라."

〈등지인연경(燈指因緣經)〉



미얀마연방승가회 · 미얀마종교성 주관

‘미얀마 연방승가회 연방승가 시상식 및 띳따우(황금우산복원) 기념 공식행사’

2016년 12월 23 ~ 27일 미얀마 양곤

(사)세계불교법왕청 대승정 목탁스님 일행 한국 불교지도자 자격으로 참석





(사)세계불교법왕청은 2016년 12월 23~27일 5일간 미얀마 양곤에서 진행된 미얀마 연방승가회 주최 공식행사에 초청되어 미얀마 연방승가회와 각국 불교지도자들과 행사 일정을 함께 했다. 이번 행사에는 미얀마연방승가회 회장인 Dr 우꾸마라 종정스님을 비롯한 연방승가회 대표 스님들과 미얀마종교성 장관, 우 쉐만 전하원의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외국 종교지도자 일행으로는 (사)세계불교법왕청 대승정 목탁스님 일행과 태국 마하쭐랄롱꼰(Maha Chulalongkorn)승가대학교의 총장인 프라브라마푼딧(Phra Brahmapundit)박사 등이 공식 초청되어 함께 했다.

미얀마 종교성과 연방승가회 시상식 (2016년 12월 25일)

(사)세계불교법왕청 법왕인 Dr 우꾸마라(브하딴다 쿠막캅히반사(Bhaddanda Kumakabhivansa, 브하모 싸야드로 Bhamo Sayadraw. 미얀마 연방승가회 회장)의 2015년 11월 미국평화상 수상, 2015년 5월 태국 마하쭐랄롱꼰 승가대학의 철학박사학위 취득, 2015년 10월 대한민국 세한대학교 철학박사학위 취득을 기념하기 위해 미얀마 양곤에 위치한 까바에(Kabar Aye, 세계평화)파고다의 마하파따나(Mahasasana)동굴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날 행사는 미얀마연방승가회 회장인 Dr 우꾸마라 종정스님의 그동안의 업적에 대한 경과보고와 시상이 이어졌으며 Dr 우꾸마라 종정스님의 생신을 축하를 겸해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미얀마 불교수호협회의 띳따우(Hti-taw, 황금우산복원) 기념행사 (2016년 12월 26일)

미얀마 양곤의 자부유성맷폰카웅닷파웅손(Zabu U-Shaung Myat Phone Kaung Datpaungsone) 파고다에서 개최된 띳따우(Hti-taw, 황금우산복원) 기념행사를 축하하기 위한 미얀마 종교성과 연방승가회 주최의 공식일정의 행사로 진행되었다. 띳따우(Hti-taw, 황금우산복원)행사는 미얀마 종교성과 연방승가회 그리고 불교수호협회가 주관하여 미얀마 전국에 흩어져 있는 주요 파고다를 새롭게 복원하고 양곤에 집결하여 미얀마 불심을 지켜가자는 새로운 불교중흥운동으로 하원의장인 우 킨쉐이 박사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쉐다곤(Shwe Dagon)파고다, 마하미얏무니(Mahamyatmuni)파고다, 짜익띠유(Kyeik Htee Yo)파고다, 짜익띠성(Kyeik Htee Saung)파고다, 짜이라따(Kay Lar Tha)파고다, 담마야지카(Damayazaka) 파고다, 마하아난다(Maha Arnanda)파고다의 복원행사가 완료된 상태이다.



















(사)세계불교법왕청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세계불교 지도자 합동금강계단 대합동 대설법전

(미얀마 삼사 아사리 주석사찰 친견 대설법전)

불조의 법맥을 전해 받은 수법제자로서 스승의 법통을 이어받아 四種教授의 가르침을 받고 四種鉤印하여 지구촌 모든 중생의 스승이 되길 기원하는 대설법전을 봉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계대화상과 3師7尊證阿闍梨께서 법을 가르치고 바른 길을 전수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요. 두 번째는 법왕님과 법상자간에 因緣에 의해서 성립되었고 서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얽혀있으니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三師七尊證 阿闍梨 큰스님들을 찾아 뵙고 예를 올리는 것이 도리인지라 이를 실행에 옮기고자 합니다.



世界佛教指導者 合同 金剛戒壇 大法會 2016.10.5 국회의원회관 대강당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법왕 비서실장 **대승정 목탁** / 봉행위원장 **대종사 대공 법혜** 합장

■ **일 정** : **2017년 丁酉年 3월 1일 출발 (6박 7일)**

■ **대설법전** : 양곤 사사나 승가대학 대설법전,
미얀마 삼장법사 주석사찰 대설법전,
양곤 불교회장 주석사찰 대설법전,
짜익티오성 파고다 대설법전

■ **참가자격**
- 5회에 걸친 세계불교지도자 합동 금강계단 수계자 전원
- 수계 희망자 사부대중 누구나

■ **참가신청** (미리 신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02)737-5665. 010-3618-6061
봉행위원장 010-8930-1785 / 기획실장 010-4467-9600

관리본부장 : 성각 대종사 합장

존증아사리 : 혜정. 남륜. 인경. 혜담. 제성. 현담